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와
여성 주체성에 관한 연구
-여자대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 성 학 과

김 현 경

2003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와
여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여자 대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김 현 경

김 현 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김 은 실



심사위원

이 재 경



김 현 미



김 은 실



목 차

논 문 개 요	iii
 I. 서 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과정 및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11
A. 근대 사적 영역의 제도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	11
1.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와 ‘성의 각분’	11
2. 제도로서의 이성애 비판	17
B. 후기 근대 사회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20
C. 분석틀	24
1. 연애	24
2. 연애 각분	25
3. 프로젝트(project)로서의 연애	25
 III. 여대생의 일상과 연애	27
A. 변화하는 한국 대학 사회와 개인의 등장	27
1. 집합적 주체에서 다중적 정체성으로	27
2. 여대생 주체 형성 과정의 변화	33
B. 준거틀로서의 소비 대중 문화	39
1. 글로벌 소비 대중 매체를 통한 연애의 지식화	39
2. 성적 주체성과 자아 의식	44
C. 연애 공동 기획자인 또래 친구들	49
1. 또래 집단을 통해 유지되는 연애 관계	49
2. 집단적인 성 지식의 획득	54

IV. 연애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59
A. 산업화/이벤트화되는 연애 과정	59
1. 연애 매뉴얼로서의 로맨스	59
2. 연애 과정의 이벤트로서의 성(性)	66
B. 연애 연행을 위해 연출되는 성별성	73
1. 스타일로 재구성되는 남성성	73
2. 자아연출력으로서의 여성성의 연기	79
C. 자아정체성 프로젝트로서의 ‘관계’	84
1. 사회적 교류와 협상권의 훈련	84
2. ‘관계’를 통한 자아 발견	91
V. 연애 경험을 통해 재구조화되는 친밀 관계	98
A. 계급적 기반으로서의 결혼의 의미 수용	98
1. 가족 의존적인 소비 주체의 전략	98
2. 결혼과 결부된 성의 의미 변화	106
B. 연애의 여성화	109
1. 남성과 여성의 차이 심화	109
2. 여성들간의 차이 심화	113
VI. 결론 및 종합논의	117
참 고 문 헌	121
ABSTRACT	130

표 차 례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
<표-2> 보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자대학생)	10
<표-3> 보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80년대 여자대학생)	10
<표-4> 연구대상자들의 희망 직종과 준비 상황	36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개인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떠오른 연애 경험을 통해 여성들이 형성해 가고 있는 새로운 여성 주체성의 내용과 의미를, 대학이라는 공적 교육 기관에 진입해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느끼는 힘과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여성을 사적 존재로 규정 하였던 연애, 결혼, 성의 통합을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여성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재검토가 필요한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일상과 관계맺음을 프로젝트화하게 만드는 사회적 변화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는 젊은 여성들의 삶의 과정 변화, 여기에서 가능한 여성 행위성을 어떻게 페미니즘적으로 문제화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연애 경험을 통해 재구조화되고 있는 친밀 관계 속에서 문화 자원과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여성들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의 행위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페미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점에 개입할 수 있을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고, 연애와 결혼,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4년제 대학 고학년 여성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험을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같은 학년대의 남성들과 1980년대 대학생이었던 여성들의 경험, 각종 대중 매체 자료를 보조 자료로서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이 연애를 결혼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위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고 과정에 목적을 둔 일종의 프로젝트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후기 근대라는 시대적 조건 하에서 증가하는 삶의 불확실성, 여성 삶의 기회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 때 글로벌화되는 소비 대중 문화와 또래 집단은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와 언어를 제공하는 문화적 기제가 된다 둘째,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은 연애를 세분화된 과정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의 연속으로 만드는 소비 문화 속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로맨스를 매뉴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유희하는 형태로 연행하게 되는 연애 관계에서 여성들은 특정 코드를 유희할 수 있는 스타일과 외모 중심의 남성성을 욕망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여성성을 연출하는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확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연애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벤트로서 경험되는 성은 여성들의 이러한 자아 인식을 강화한다. 셋째, 이와 같은 연애 경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시절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계급적 기반으로서의 결혼의 의미를 수용하고 있다. 이 때 연애 관계에서 쾌락과 주체성으로 의미화된 성경험은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점에서는 다르게 의미화되기도 한다. 넷째, 이러한 연애 관계에 대한 지식과 욕망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자원과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심화된다. 또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차별화된 존재로 여기는 기제가 다양해지고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연애, 결혼, 성이 개별적인 사건임을 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기반으로서의 결혼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들 여성들의 특정한 배경은 연애 경험을 통해 증대된 자의식과 행위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게 한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은 첫째, 한국 사회 남성성의 형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작업과 이를 통해 더욱 갈등적인 양상을 띠게 될 남녀관계에 대한 탐구, 둘째, 여성을 둘러싼 삶의 변화와 여성 주체 구성에 대한 다른 의제 설정, 셋째, 젊은 여성들의 증가하는 삶에 대한 기대와 이에 못 미치는 현실의 거리에 대한 페미니즘적 성찰과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서론¹⁾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3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둘러싼 기대는 온통 장밋빛이다. 여성부가 신설되었고,²⁾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을 입증하는 여러 사례들이 나열되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고급 여성 인력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1970년대부터 여성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1990년대 이후 더욱 가시화되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한국여성의 전화연합, 1999),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여성학 교육의 확대,³⁾ 대학 내 성폭력, 여성노동, 성정치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대학의 성별성을 문제화 한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등장(달과 입술, 1999; 권김현영, 2001)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여성들이 교육과 직업을 통해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이처럼 페미니즘이 운동으로서나 이론으로서나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여성들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젊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소위 ‘사적인’ 인간관계⁴⁾에서도 어떤 변화라고 할 만한 조짐이 감지된다. 그것은 바로 남녀간의 ‘연애’가 무제한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연애 방식은 세대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특히 연애에서 여성들이 보여 주는 적극성은 세대 차이와 더불어 여성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⁵⁾이 되고 있다.

1) 이 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연구과정에 1999년도 제 2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우수연구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2) 여성부는 2001년 1월 29일 신설되었다. 상세한 연혁은 www.moge.go.kr를 참조할 것

3) 1970년대 학부 교양 강의로 시작된 한국 여성학은 1982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개설로 아시아 최초로 제도 교육 내에 여성학을 정착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 학부 과정에서 교양 강의를 개설되어 있다.

4) 공/사 영역의 개념은 여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지만 이를 둘러싼 거센 논쟁이 있어왔다. 특히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산물인 이분법적 공/사 영역의 모델이 다른 역사적 시간대와 공간에서 어떤 분석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자세한 것은 김은실(1996)을 참조할 것.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 영역 구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연애’가 사적인 인간관계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5) 특히 대중 매체들은 젊은 세대의 연애 방식과 여성의 적극성을 세대 변화로 재현한다. “마음에 드는 것은 다 가진다 - 남자 선택해 길들이는 ‘나쁜 여자’들” 『시사저널』

젊은 남녀의 연애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최근에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다 특히 젊은 남녀의 연애는 결혼과 이성애 핵가족으로 이어지는 근대의 사적 영역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 연애를 규정하는 것은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이데올로기다. 근대 이전 전통적인 친족 관계망 내에서 집안끼리의 만남을 뜻했던 남녀의 결합이 상대방 개인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땃어지고 유지되는 관계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 결혼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편과 가사를 돌보는 아내라는 성별 역할로 규정되는 제도(조은·이정옥·조주현 1997, 19-36)이다. 남녀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때 연애는 이러한 조건을 탐색해 보는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탐색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신중하게 한 번의 사귀이 영원한 결혼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의 교환은 각자가 가진 능력의 평등한 교환이라기보다 가부장적 이성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성별화된 조건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귀고 결혼의 결과도 남녀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남성에게 결혼은 한 ‘가족의’ 가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노동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한다 이를 통해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휴식과 재생산을 보장받는다 결혼과 가족은 그에게 유일한 세계가 아니며 그의 사회적 위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이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과의 사귀기를 반드시 결혼과 연관지을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 여성과의 사귀기는 자신의 인생 계획과 궤정 속에서 그 때 그 때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경험이다 결혼을 위한 사귀기는 결혼할 때가 되어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여성에게 결혼은 한 ‘남성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녀는 결혼과 가족을 통해 정서적, 경제적, 성적 안전을 구할 수 있었다. 그녀의 가사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자연적인 여성성에 통합된다 그녀의 미래 계획은 결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짜여지고 결혼은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이기 보다 생존과 의무의 문제였다 여성에게 남성과의 사귀기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럴수록 좋은 것이다 또한 여성의 성(性)은 남성의 능력 및 보호와 교환되었기 때문에 처녀성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유일

2002년 5월 2일자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연애, 불확실성의 시대 사는 신세대 신혼 종교” 『시사저널』 2002년 6월 20일자 “사랑학 교과서 인터넷 게임” 『시사저널』 2002년 6월 20일자 “신인류의 사랑법” 『MBC 시사매거진 2580』 2003년 4월 6일 방영

한 자본으로 의미화되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사قم에서 삽입 성교는 그들이 지켜야 하는 최후의 의무이자 금기였다. 그래서 순결은 ‘지킨다’거나 ‘준다’는 은유가 보여주듯 여성성의 핵심이면서 사물화된다.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는 연애와 결혼의 이러한 성별 장치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연애’라는 관계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 연애는 결혼과의 연결로서 강조되기보다 그 자체로서 중요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단 한 번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이를 기대하는 것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그 관계만을 위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의식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⁶⁾ 둘째, 이처럼 여러 번의 연애가 적당한 짝을 만나는 연습의 과정으로 여겨지면서 결혼 전 남녀의 사قم과 성(性)⁷⁾의 연결이 보다 용이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여성의 성적 욕망’에 관한 대중적인 담론들은 여성들이 결혼 바깥의 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⁸⁾ 연구들 또한 미혼의 여성들이 연애 관계 내에서 맺는 성관계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다(이숙경 1993; 이경미 1994, 조윤정 1996; 장수정 1998; 최원영 2003)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적 이성애 결혼과 핵가족 제도의 서곡으로서 남녀의 사قم을 문제화했던 기존의 페미니즘 분석에 도전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여성들이 공

6)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시작으로 이른바 남녀관계에 관한 자조 지침서(self-help manual)들이 최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상은 이 같은 관찰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자조 지침서들은 남녀관계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획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종의 프로젝트로 취급하면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기술을 소개한다. 그레이(2002), 루이스와 코플랜드(2003)를 참조할 것.

7) 페미니즘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논쟁적으로 사용되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개념의 한국어 번역어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된 용어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성(性)’이 구체적인 성행위와 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고와 사회적 관행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보고 따라서 이를 구체적인 성행위(sex act)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또한 젠더는 성별 혹은 성별성으로 번역한다.

8) 1999년 김찰의 내사 착수까지 불려 일으켰던 텔런트 서갑숙의 자전적 고백서 파문 이후 여성들의 결혼 밖 성 추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심찮게 단골 소재로 다뤄졌다. 결혼 이후 외도 뿐 아니라 미혼의 연애 관계에서도 성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섹스 말고 궁금한 건 없다? - <섹즉시공>과 <마들렌>의 건강한 청춘, 죄의식 없는 성숙한 남녀 관계 다뤄” 『한겨레21』 2003년 1월 2일자. 최근에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성적 욕망과 성적 주체성을 주장하는 젊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나 밝힌다! 어쨌래 여성 오르가슴 찾기 3인의 당당한 주장” 『주간동아』 2002년 6월 20일자 “핑크 콤플렉스를 극복하라” 『한겨레21』 2002년 8월 29일자 “나쁜 여자 전성시대!” 『한겨레21』 2003년 1월 30일자. 이런 주장을 펴는 젊은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www.foxylove.net과 www.namrodang.com을 참조할 것.

적 영역에 진입하여 남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사회적인 자원을 획득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 감각과 일상 생활 나아가 미래 계획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자랑스러워하고 적극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의미화하며 연애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신감과 힘을 드러내는 젊은 여성들의 등장은 남녀간의 만남을 규정하는 사회적 장(field)의 변화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연애가 개인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떠오른 현상을 여대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대학이라는 공적 교육 기간에 진입하여 졸업 후 취업을 당연시하는 등 결혼과 가족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사회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전환기를 경험하며 가지게 되는 다차원적인 시간 감각, 정서와 삶의 전략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연애’라는 관계맺음의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입시 중압에서 벗어나 공부 이외에 아무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중, 고교 시절의 욕망을 한꺼번에 분출시킬 수 있는 해방구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역사적으로 억압적인 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가장 큰 사회 운동 세력으로서 학생운동의 문화가 강하게 오랫동안 자리잡아 온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대학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분위기가 사라짐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곳으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⁹⁾ 또한 한국의 대학은 이성간의 교제 및 연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연애’는 1990년대 이후 학생운동 중심의 동아리와 학회 문화가 사라져가면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 보아야 할 경험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¹⁰⁾

여대생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업에서의 성취와 졸업 이후의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의 공식적인 장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선배, 후배, 동기, 동성친구, 이성친구 등 인간관계의 확대를 위해 대학의 비공식적인 장에 참여하면서 대학의 문화에 적응해 간다. 대학은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그 성취를 인정받을 수

9) 특히 1998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이러한 상황은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대책없나” 『한국일보』 2001년 9월 5일자 “대졸실업 근본 대책 아쉽다” 『국민일보』 2001년 12월 5일자

10) 대학 내에서 발행되는 자치 언론들은 집단적인 운동 문화를 다루는 기사들에서 대학인의 일상을 다루는 기사들로 점점 더 많은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 때 대학인의 일상에서 ‘연애’는 빠질 수 없는 단골 소재다. 엄기호(1998), 연세대학교 두입술편집위원회(2000, 2002), 이화여자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2001)를 참조할 것

있는 공간이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본격적인 남녀간 연애가 시작되고 그것이 권장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갖는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 평등이라는 이상 하에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학 공간의 여성들에게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고, 관계의 과정과 관계 자체에 목적을 둔 일종의 프로젝트로서 경험하게 되는 ‘연애’가 어떻게 자신의 성별성을 재구성하는 경험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개인적 자아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연애는 변화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노동을 통해 독립된 개인성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의 조건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이성애 결혼과 핵가족 제도에 대한 모순적인 열망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이 개인성을 실현하고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여기는 연애 관계의 변화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 자원과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여성들간의 차이를 심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드러내는 것은 여성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면서도 정서적인 관계를 상상할 수 있기 위한 페미니즘의 개입 지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가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애와 관련하여 어떤 사회적 장에서 여대생들의 일상이 구성되고 있는가? 이들에게 제공되는 연애 관계의 이미지와 언어는 어떠한 것인가? 이를 제공하는 문화적 기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이미지와 언어를 현실 속에 통합시키고 있는가?

둘째, 프로젝트로서의 연애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애 관계에서 성별성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

셋째, 이러한 연애 경험을 통하여 여대생들은 무엇을 학습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아정체성을 규정하게 되는가?

넷째, 이러한 연애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기반으로서의 결혼의 의미를 수용하는 여대생들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다섯째, 여성들이 주도하는 연애 관계의 변화가 같은 세대, 비슷한 계급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남성과의 차이, 여성들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와 양상은 어떠한가?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남녀 관계에서 여성들이 가질 만한 전략은 어떠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전략이 여성 주체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B. 연구과정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대학의 연애 문화를 여대생들의 경험을 통해 보고, 이러한 연애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여대생 주체의 성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설문 조사 등의 양적 연구 방법보다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또 젊은 세대들의 연애 문화를 재현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주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잡지, 신문, 단행본 등 각종 문헌 자료들과 인터넷 사이트, 영화, TV 드라마, 광고 등 영상 자료들도 중요한 연구 자료들이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연구자가 찾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연구대상자들이 언급한 자료들이었다. 그러한 자료들의 내용은 분석 뿐 아니라 면접에도 수시로 반영되었다.

연구 설계 초기 단계에는 대학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참여관찰법도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 어느 한 대학의 문화에 국한될 것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 중 심층 면접으로 대상자들을 만나되 연구대상자가 재학 중인 대학을 골고루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점을 피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의 대학 후배나 동기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들로부터 또 다른 이들을 소개받는 알음알음(snow-bowling) 방식으로 연구대상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서울 소재 7개 남녀공학 대학에 다니는 9명의 여대생, 서울 소재 1개 여자대학의 재학생 4명, 서울 근교 지방 소재 2개 남녀공학 대학에 다니는 4명의 여대생들과 면접을 진행하였다. 과의 경우 인문대나 사회대에 재학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의학계열과 음악대에 재학 중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대학 시절 경험을 되돌아보고 심층 면접시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민하고 연구대상자들과 나눔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전반적인 대학 문화 경험과 학업과 취업, 결혼 등 미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지점들을 보기 위해 면접 당시 고학년인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연구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이 때 나이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대학의 문화 경험은 나이보다 학번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집안 배경과 사회적 조건이 비교적 균일하다고 생각되는 4년제 종합대학의 여대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정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연애가 당사자들의 관계맺음에 그치지 않고 또래 친구

들과의 대화와 부추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애 경험이 없는 여대생들도 주요 연구 대상자들로 포함시켰다. 이 때 사회적으로 부추겨지고 인정되는 것은 이성과의 연애이므로 이성애 연애에 한정시켜 면접과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본 연구가 이성애 연애에 국한됨을 문제 제기하거나 동성과의 연애에 대한 허용과 욕망을 표현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러한 내용을 다른 사례들과의 면접에서도 질문에 포함시키고 분석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성애와 동성애의 본격적인 개념화를 시도하거나 차이를 보기보다 연애가 중요한 인간관계로 부각되면서 동성과의 연애가 허용 가능한 것으로 들어오는 맥락과 이들에게 이러한 허용과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였다.¹¹⁾

이들에게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자 대학원생이라는 연구자의 위치는 연애 경험을 수다 떨듯 이야기하고, 경험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상담하기에 좋은 위치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면접 초기에는 ‘페미니스트’라는 연구자의 정체성이 내밀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으나 이 부분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자를 편한 언니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으며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성 문제 등을 솔직하게 상담해 오기도 했다. 대학을 다니는 여자대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를 적극적인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면접 과정은 남녀간 형식적인 평등이 보장된다고 생각되는 대학이라는 공간과 젊은 여성들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페미니즘이 어떤 것일 수 있을지를 내내 고민해야 했던 과정이었다.

여대생들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비교하기 위해 3명의 남자대학생을 보조 사례로 면접하였는데 이들의 경우도 나이가 아니라 학년을 동일하게 변수로 취했다. 이들은 모두 각각 다른 서울 소재 남녀공학 대학에 재학중이며 군제대 후 복학한 경우다. 또한 연애 문화의 변화라는 측면을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1980년대 학번 여성 2명을 보조 사례로 면접하였다. 사례의 수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선행연구나 당시를 재현하는 문헌들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면접은 한 사례 당 짧으면 1시간 30분, 길게는 5시간까지 연구대상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주로

11) 본 연구의 이러한 시각이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불평등한 상황과 정치학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성애와 동성애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용어로 재창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논의한다.

조용한 커피점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접은 녹음기로 녹음한 뒤 재생하여 자료
 화하였다 면접 초기에는 연구 설계가 충분하지 않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
 기 힘들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2차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상의 이러한 어려움은
 후반으로 갈수록 나아졌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재학 중인 대학	학년/나이	연애 경험	연애 상대	성경험	거주 형태	기타
A	서울 소재 남녀공학	3학년/21세	있음	과 선배	있음	자취	고교 때 이성친구 사귀 경험 있음
B	서울 소재 남녀공학	4학년/25세	있음	동아리 선배	있음	부모와 거주	
C	서울 소재 남녀공학	4학년/23세	있음	학교 선배	있음	부모와 거주	
D	서울 소재 남녀공학	3학년/23세	있음	노조 간부	있음	부모와 거주	연애 관계에서 낙태 경험 있음
E	서울 소재 남녀공학	3학년/23세	있음	다른 학교 동기	있음	자취	중학교 때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사귀고 있음
F	서울 소재 남녀공학	3학년/22세	있음	인터넷 동호회 회원 2인	있음	부모와 거주	
G	서울 소재 남녀공학	3학년/23세	있음	과 후배, 같은 학교 선배	있음	자취	중, 고교 때 이성친 구 사귀 경험 있음
H	서울 소재 여자대학	3학년/23세	있음		없음	자취	
I	서울 소재 여자대학	3학년/21세	있음	다른 학교 동기	없음	자취	소개팅 상대와 사귀고 있음

J	서울 근교 지방소재 남녀공학	4학년/23세	있음	동아리 동기, 동아리 선배, 한국계 외국인	있음	부모와 거주	
K	서울 근교 지방 소재 남녀공학	3학년/21세	있음	과 동기	있음	자취	남자친구와 동거중
L	서울 근교 지방 소재 남녀공학	3학년/21세	있음	과 동기	있음	자취	남자친구와 동거중
M	서울 소재 남녀공학	4학년/24세	없음		없음	자취	
N	서울 소재 남녀공학	4학년/23세	없음		없음	부모와 거주	
O	서울 소재 여자대학	4학년/23세	없음		없음	하숙	
P	서울 소재 여자대학	3학년/23세	없음		없음	부모와 거주	고교 때 이성친구 사귄 경험 있음
Q	서울 근교 지방 소재 남녀공학	3학년/22세	없음		없음	기숙사	

<표-2> 보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자대학생)

사례	재학 중인 대학	학년/나이	연애 경험	연애 상대	성경험	거주 형태	기타
(가)	서울 소재 남녀공학	4학년/27세	있음	동아리 동기, 학생회 후배, 소개팅 상대, 학생회 후배	있음	자취	
(나)	서울 소재 남녀공학	3학년/26세	있음	또래 집단의 동기, 어학 연수 중 만난 다른 대학 친구	있음	부모와 거주	중, 고교 때 이성친구 사귄 경험 있음
(다)	서울 소재 남녀공학	3학년/23세	있음	또래 집단의 동기 친구 7명	있음	부모와 거주	중, 고교 때 이성친구 사귄 경험 있음

<표-3> 보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80년대 여자대학생)

사례	졸업한 대학	학번/나이	대학 재학 중 연애경험	결혼 여부
1	서울 소재 여자대학	86학번, 36세	소개팅 상대, 동아리 선배	기혼
2	서울 소재 남녀공학	87학번, 35세	동아리 선배	미혼

II. 이론적 배경

A. 근대 사적 영역의 제도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

1.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와 ‘성의 각본’

이성간의 사권이 당사자들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 인식은 근대 이후 공/사 영역의 분리와 성별화(gendering)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미혼 남녀의 사권은 흔히 ‘낭만적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과 역사가들은 미혼 남녀의 사랑을 근대의 사적 영역 즉 결혼과 이성애 핵가족 제도의 확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도화된 구혼(courtship)이 연애 결혼(love marriage)과 결합하는 ‘낭만적 사랑’은 그저 ‘사랑에 빠지는 경험’과는 구분되는 역사적인 현상(살스비 1985, 11-34)이라는 것이다.

서구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공/사 영역의 재편은 ‘가족의 승리’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19세기에는 보수주의자들에서부터 자유주의자, 심지어 무정부주의자인 절대 자유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가족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질서를 이루는 것으로 찬양하였다. 과거의 친족 체계로부터 벗어나고 있던 핵가족은 성을 포함하여 모든 기능을 흡수하고 규범과 기준을 정하는 제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궁정풍의 낭만적 사랑은 극히 소박한 사람에게까지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남녀간의 낭만적 사랑이 핵가족의 이상을 실현할 결혼으로 통합되었으며 결혼 내의 성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성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페로 2002, 153-171; 코르벵 2002, 714-771).

이 당시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공/사 영역의 재편에서 ‘여성’의 영역과 그에 대한 가치 부여를 통해 남성과 동등한 ‘시민’이 되고자 했다. 이것이 전제될 때 자유롭고 평등한 남녀 파트너들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Wollstonecraft 1975). 남녀의 정서적 관계는 페미니즘이 태동할 당시부터 주요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새로운 권한인 모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를 출산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권리로 만들고자 하였다(슬레지예프스키 1998, 79-88). 즉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공/사 영역의 경계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 공/사 영역의 재편 속에서 결혼과 이성애 핵가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제도화되기 시작한 ‘낭만적 사랑’을 정치적인 것으로 문제삼지는

못 했다

여성의 경험을 통해 남녀의 사귀를 규정하는 ‘사랑’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는 보부아르의 『제 2의 성』이다 그녀는 남녀의 사랑이 독립된 개인들의 평등한 만남이 되기보다 여성에게 치명적인 것이 되는 이유를 사적인 존재로 길러져 온 여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찾는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은 주체이며 초월의 희망을 갖는 개인으로 길러지는 데 반해 여성은 자기의 주체성 속에서 절대를 발견할 수 없는 타자로 길러져왔다 따라서 남녀는 사랑에 관한 의식과 행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과의 사랑 속에서 완전한 자기 희생과 소멸을 꿈꾸는 방식을 추구한다 여성이 사랑에 목매는 존재가 되는 것은 여성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서만 의미 있는 자기 존재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보부아르 1993, 410-460)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약함 속에서가 아니라 그 굴레에서, 자기를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날이 오면,(p448)

남녀 모두에게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사랑’(authentic love)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보부아르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보다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확립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되어야 한다(p.509-530)고 주장했다 보부아르를 통해 남녀의 사랑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제 2 물결은 남녀간의 사랑을 보다 명시적인 성별 권력 관계로 문제화한다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the personal is the political)이라는 페미니즘의 새로운 통찰은 사랑, 결혼, 성, 가족과 같은 소위 ‘사적 경험’을 정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인 파이어스톤(1983)은 ‘사랑’이 출산보다도 더한 여성억압의 주축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지 않는 급진적 여성해방론에 관한 책은 정치적으로 실패라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억압만으로 여성을 묶어둘 수 없게 되자 만들어진 복잡한 문화적 기제가 바로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이다 이처럼 파이어스톤이 간파한 남성권력의 문화적 장치로서의 로맨스는 여성들의 관심을 성에만 집중시키고 여성의 외모에 오직 한 가지의 기준만을 제시하여 여성들의 개성의 발현을 억압하는 역할(p 131-159)을 한다 또 다른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인

Atkinson은 사랑이 남성 지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정치적 제도라고 보았다. 사랑은 여성 억압의 조건 중 일부이기 때문에 구출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그녀는 완전한 해방이 실현되고 여성의 자율성이 획득되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Douglas 1990, 118-120에서 재인용)

이처럼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성간의 사랑을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이데올로기로 설명했다. 결혼과 가족이 여성의 유일한 영역이 되면서 노동을 통해 사회적 자원과 자아정체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획득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남는’ 능력만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내면화와 자발적 통제의 과정을 거쳐 여성은 불평등한 결혼과 가족 구조를 ‘사랑’으로 정당화하면서 수용하게 된다

이들의 통찰은 가장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남녀의 사랑이 가부장적 이성애 결혼과 핵가족이라는 근대의 사적 영역의 제도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여성문제의 해결은 제도적인 평등의 추구만으로 달성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즉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사적인 존재로 규정당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억압과 고통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구성 원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사랑을 수용할 때 내면화와 자발적 통제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단지 억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를 규정하는 성별 질서의 원리 안에서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로서 분석될 필요 또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구 근대에 확립된 사적 인간관계 제도와 낭만적 사랑의 관계를 다룬 역사적 작업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랑과 결혼, 성, 가족의 현재를 분석하려는 페미니즘의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상의 경험을 담론화함으로써 여성 운동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던 일련의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랑, 결혼, 성, 가족을 성별 권력 관계의 문제임을 제기하며 연구 주제로 부상시켰다

그 중에서 조혜정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랑과 성의 세대 정치학을 분석해왔다. 그녀는 우리 사회가 서구 문명의 압력에 의해 산업화를 추진해 왔고 아직도 그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뒤떨린 상황이라고 본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때문에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인 1970년대 낭만적 사랑과 연애 결혼, 단란한 핵가족의 꿈이 자리를 잡게 되지만 서구 각본의 표피적이고 상투적인 흥내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서구의 연애 결혼이 개인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도덕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되고 상호 책임을 지는 인간 관계와 적극성을 기르는 훈련의 기회로서 기능적인 측면을 갖는데 반해 제3세계에서 이러한 연애 각본은 일상적 삶의 토대와 서로 어긋나 있다. 그녀는 경제적 자립이라는 기본적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낭만적 사랑’은 급격히 붕괴되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나온 대응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조혜정 1994, 46-55).

박혜경(1993)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결혼의 요소로 사랑이 중요해지는 현상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통념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제적 복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는 문화적 풍토, 행복함에 대한 막연한 환상 등으로 여성들은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조절한다. 그렇다면 사랑 그 자체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준다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삶과 남녀관계를 조직하는 특정한 맥락에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남녀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우리 사회의 성별 질서의 맥락에서 미혼 남녀의 사귀고 결혼이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우리 사회’는 지리적인 경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구 사회의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나 남녀간의 사귀고의 특정한 방식은 점차 글로벌화(globalization)¹²⁾되어가는 시기에 문화적인 형태로 전 세계에 전파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남녀간의 사귀고 문제를 문제화하는 틀은 서구 사회의 역사적 맥락 뿐 아니라 지역적(local) 차원의 해석과 수용, 경합의 과정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낭만적 사랑’은 이성애 결혼의 이상과 결합되기 때문에 성적 실천에 있어서 결혼 내의 성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랑과 결혼, 성이 연결되는 근대의 사적 영역은 1960년대 본격적인 소비 자본주의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 전세계적인 청년 저항 운동과 페미니즘의 제 2 물결을 통과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페미니즘은 이 시기에 낭만적 사랑에 대한 정치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면서 사

12) 개념으로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세계의 압축과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의 강화를 의미한다(Robertson 1992). 이는 자본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글로벌 매체의 발달과 잦아지는 대규모의 인력 이동은 ‘글로벌화’를 보다 포괄적이고 문화적인 과정으로 문제화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글로벌화와 관련된 문화적 과정, 시대 인식, 여러 가지 이론들에 관해서는 Robertson(1992)을 참조할 것

랑과 결혼, 성을 일치시키도록 구성되는 여성의 성의 억압적 성격을 드러낸다. Laws and Schwartz(1977)는 Gagnon and Simon(1975)의 ‘성의 각본’(sexual scripts) 개념을 발전시켜 근대에 확립된 남녀관계와 변화를 다양한 각본의 출현으로 설명한다. ‘각본’은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 기대, 제재와 함께 수용되는 일련의 행위들의 양상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각본’은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성적 행위를 지배하여 성행위의 동기 및 행동지침이 된다. 개인은 각본 안에서 배우처럼 행동하며 특정 각본에 맞추어 살고자 한다(Laws and Schwartz 1977, 5-7)

이들은 사랑과 결혼, 성, 가족 형성의 고리가 느슨해지는 현상을 ‘데이트 각본’(date script)으로 설명한다. 20세기 초 등장한 ‘구애 각본’(courtship script)은 배우자 선택을 위한 장치로서 결혼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강조되었다. ‘낭만적 사랑’은 바로 구애 각본의 바탕을 이룬다. 그러나 미혼의 시기가 길어지는 20세기 중반부터 데이트라는 형태의 이성간 만남이 일반화된다. 미혼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비교적 가볍게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인 데이트는 결혼이라는 목표가 선포하지 않다. 결혼에서의 성이 여전히 이상적이고 합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에서의 성적 행위는 자신의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또래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Laws and Schwartz 1977, 103-115)

‘성의 각본’ 개념은 한 사회의 성문화와 성을 포함한 친밀 관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각본은 그 안에서 행위하는 주체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성별 권력 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1990년대 한국 사회에 쏟아져 나온 페미니스트들의 성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성의 각본’의 성별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장(윤)필화(1999, 112-129)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게는 결혼/결혼 밖의 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이중 각본이, 여성에게는 사랑과 성, 결혼을 연결시켜야 하는 공식적인 하나의 각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에서 여성들이 결혼 전의 성적 실천을 추구하고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숙경(1993)은 한국 사회의 공식적인 성의 각본이 여성의 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미혼 여성의 낙태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성관계가 결혼을 향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에 대한 능동적 표현이나 요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 사랑, 결혼의 연속성은 여성의 성을 통제하

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가 피임의 실천을 저해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이어지며 여성들은 혼전 성관계와 임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낙태를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성과 사랑, 결혼이 하나로 결합되는 각본에서 여성의 자원이 되는 혼전 순결은 ‘순결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었다. 이경미(1994)는 20대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순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을 통해 수용하는 혼전의 성경험을 연구하였고 조윤정(1996)은 1990년대 이후 성개방적인 문화로의 변화 과정 속에서 모습을 바꾸어 지속되는 순결 이데올로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기반하고 있는 분석틀인 ‘성의 각본’은 여성의 성이 한 사회의 문화에서 구성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단일하고 고정적인 사회와 일정한 여성 삶의 경로라는 맥락에서 일종의 제도로 기능하는 ‘성의 각본’을 통해 여성의 성이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의 대상인 여성들을 하나의 단일한 성별 범주로 묶으면서 이들의 성(sexuality)을 비대칭적인 성별 구조가 낳은 여성의 성적 문제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가 이루어진 시대의 문화적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과 결혼과 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가 대세인 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성적 실천은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성경험은 강제적이거나 억압적으로 성별화된 여성의 성(gendered female sexuality)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이상 하나의 단일하고 고정적인 사회적 유기체의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일상에는 더 이상 근대의 전통적인 사회화 제도이며 ‘성의 사회화’(sexualization)를 가능하게 했던 가족, 학교, 국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들은 그가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 관계에 따라 그 관계를 위치짓는 담론 속에서 다른 방식의 성적 주체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방식의 성적 주체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여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가 그들이 맺는 여러 인간관계와 그 속에서 경험하는 성이 규정되는 장의 변화와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2. 제도로서의 이성애 비판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사랑이라는 가장 개인적이고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감정을 통해 가부장적 이성애 결혼과 가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과 이를 통해 통제되는 여성의 성을 정치화하게 되면서 남녀의 결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사회적인 권력과 제도에 눈을 돌리게 된다. 1970년대 서구에서는 페미니즘 외에도 성을 역사적 문화적 구성물로 접근하는 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논의되기 시작¹³⁾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강제하는 사회적 권력 및 제도를 ‘이성애주의’(heterosexism)로 명명하면서 성별(gender)과 성(sexuality)의 관계를 문제화하기 시작했다.

이성애(heterosexuality)는 남녀의 결합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결혼과 핵가족, 이를 통한 생식 중심의 성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성애의 가능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위계화하는 사회적 제도이다(Richardson 1996). 페미니즘은 문화적 산물로서의 성별을 논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성은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을 사회적 구성물로 파악하는 이러한 시각과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성이 자율적이며 쾌락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Koedt 1972)되고 레즈비어니즘과 여성 성애에 관한 담론이 페미니즘 내로 들어오면서 성을 둘러싼 페미니즘 진영 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즉 성별 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페미니즘의 성 연구가 욕망의 이성애적 위계를 인정하면서 남성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성의 위험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끊임없이 피해자로 만들고, 모든 여성을 이성애 구도 내에서 동질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작된 것이다(김은실, 2001b).

성을 둘러싼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분열과 긴장은 성별과 성에 작용하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 인종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고민하는 이론적 정치적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 문제가 된 것은 스스로를 이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남성과 맺는 관계의 경험이었다 남성과의 결합 없이 자율적이고 쾌락적인 여성의 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많은 페미니스트들로 하여금 남성과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친밀성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Segal 1994, 214). 한동안 많은 이성애자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의 관계가 무가치했음을 방어적으로 진술하였고 제도로서의 이성애에 대한 분석이 진

13) 1970년대 서구의 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페미니즘 성 연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은실(2001b)을 참조할 것

행된 것과 대조적으로 개인 여성의 이성애 경험은 해결될 수 없는 딜레마로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 Segal은 다양한 이성애가 존재하며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p 253-266)고 보았고 Jackson(1996, 21-22)은 제도로서의 이성애와 개인 경험으로서의 이성애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성애적인 관계 자체를 비판하거나 방어함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억압적이지 않고 다양한 이성애 경험이나 이성애 제도와 구분되는 개인의 이성애 경험에 대한 주장은 현재의 이성애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남녀 관계를 조직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애를 열등하며 비정상적으로 것으로 위계질서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성찰을 동반하지 않으면 자칫 비정치적으로 차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동시에 개인의 이성애 경험에 대한 문화적 검열은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욕망하는 이성애 관계에 대한 보다 정치한 문제화를 어렵게 한다 이 지점에서 근대의 사적 영역의 제도화를 이성애의 성립으로 분석하는 역사적 시각은 개인의 경험과 제도로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성애의 현재적 위치를 페미니즘적으로 문제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동성애가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을 구성하는 주요한 축이 되면서 성애의 행위가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존재로 인격화하는 현상이 근대의 성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역사적 시각(푸코 1990)은 이성애 또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통찰을 가능하게 했다 Katz(1995)는 근대 이전 재생산을 통해 공동체의 노동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던 남녀의 성애적 행위가 근대에 들어와 공/사 영역의 발명과 함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위치지워졌으며 이를 이성애의 발명과 제도화 과정으로 분석했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분석한 근대의 사적 영역의 성립 과정은 남녀의 결합만을 정상화하는 제도로서의 이성애의 성립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Adams(1997)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에서 10대를 타겟으로 한 성애 관한 담론과 다양한 실천들이 이들을 어떻게 올바른 이성애자로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적하면서 이성애가 성적 정상성(sexual normality)을 의미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Ehrenreich, Hess, and Jacobs(1986)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페미니즘의 제 2 물결을 전후로 일어난 성 해방이 이성애를 재정의하는 과정이었음을 분석¹⁴⁾한다 이들은 1960년대 초 미국의 공식적인 담론은 여성이 성적으로 무지해야 하며 결

14) 서구 성 해방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책의 논의를 분석하고 있는 글로는 조은·조주현·김은실(2002)을 참조할 것

혼 내의 성만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동시에 본격적인 소비 사회로 진입하면서 성적인 담론이 넘쳐나기 시작한 문화적 장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성과 관련한 자아 감각과 관계맺음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이성애는 결혼과 재생산의 틀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relationship)와 쾌락의 틀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은 이 과정에서 성을 여성의 능력과 독립을 보장하는 여성 권력의 한 형태로 설명하면서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역사적 시각들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 개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은 역사적 현상이다 즉 성이 개인 존재의 삶의 욕망이 된 것은 근대의 인식론/존재론과 연관을 가지는 역사적인 변화인 것이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소비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성담론의 폭발적 증가와 고조되는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관심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성별 권력 관계에 입각한 여성의 성을 연구하고 여성의 성적 피해를 강조한 페미니즘의 성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성애의 쾌락의 위계를 문제삼는 성 정치론자들은 한국 여성학의 성 연구가 이성애를 일반적인 의미의 성으로 해석함으로써 ‘모든 여성은 이성애자’라는 전제와 ‘모든 성적 주체는 이성애자’라는 전제를 해체하지 못 했다고 본다(김지혜 1998). 또한 남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분배에만 관심이 있는 ‘권리의 성정치학’은 이성애의 보편성에는 의문을 던지지 않은 채 그 밖의 다원적 성들에 관한 인식의 기회를 배제한다고 본다(서동진 1996)

문제는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 사회이고 한국의 페미니즘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애와 동성애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무엇을/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은 역사적 구성물일 뿐 아니라 지리적 구성물이기도 하다 1990년대 들어와 도입된 서구 성 정치학의 맥락과 한국이라는 지역의 해석을 고려한 창조적 재번역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동성애가 서구적인 것이며 한국 사회에는 맞지 않다는 일부의 본질주의적 시각과는 다르다. 한국 사회는 분명한 지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한 정적이고 단일한 유기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날로 글로벌화되어가는 후기 근대에 끊임없이 국가적 경계를 재설정하고 구성원을 재호명하는 일련의 재현의 정치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집단 각각의 동성 사회성(homosociality)¹⁵⁾과 이성과의 연애, 결혼, 가족의 배타적인 강조가 공존하고 있다

는 논의(김소영 2002)는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성애적 사회와 동성애적 사회라는 구분이 지어지고 동성 사이의 연대나 친밀함의 자연스러움이 심문당하는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동성애 혐오증 또한 공공연하게 발화되게 되었다고 본다 16)

보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소비 자본주의 시대 공/사 영역과 성별화의 논리가 무화되는 듯 하면서 재경계화되는 변화의 시기(조형 2002)에 사적인 것을 정치화하고자 했던 페미니즘의 명제가 다시 어떻게 문제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사적 존재로 규정되었던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공/사 영역의 구분 논리 자체를 문제화할 수 있었던 페미니즘은 모든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후기 근대의 소비 자본주의 사회(Cronin 2000)에서 무엇이 개인적인 것이며 무엇인 개인적인 공간을 규정하는지, 무엇이 공적인 공간인지를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여성의 성, 인간관계, 경험은 다시금 역사적인 것으로 문제화될 수 있을 것이다

B. 후기 근대17) 사회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오늘날 자본의 글로벌화 속에서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의 변증법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은 분석 대상에 따라 강조점은 달라지지만 현재가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시기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오늘날은 개방적이고 팽창하는 자신의 경계 안에 지구적 영역 전체를 통합하는, 탈중심화되고 탈영토화된 지배 장치인 제국으로의 이행(네그리와 하트 2001)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며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놀러지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수많은 행위자들을 목도하고 있는 시기(레비 2000)이다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전문화된 지식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부터 영향받을 확률이 커진 ‘위험사회’ 속에서

15) 남성 동성사회성에 대한 논의로는 Sedgwick(1985)과 정승화(2002)를 참조할 것

16) 이러한 논의는 성이 출산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이성 뿐 아니라 동성간의 감정적/성애적 끌림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따라서 자신의 임금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개인이 역사적으로 출현한 후에 오늘날 성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하는 동성애자가 탄생할 수 있었다(D'Emilio 1983, 104)는 서구의 역사적 맥락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17) 현 시기를 변화의 시기로 보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시기가 근대를 극복하거나 벗어난 단절의 시기라기보다 근대와의 관련 속에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후기 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백 1997) 미래와 자아 인식에 대한 경험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기든스 1997)

페미니즘 또한 이러한 변화의 한 요소로서 한 개인으로서 여성들의 자의식을 증진시켜 개인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적, 공적 경험을 바꾸어 놓고 있다(백과 백-게른샤임 1999) 그러나 이것이 어떤 변화이며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그러한 변화의 주체는 누구이며 대상은 무엇인지는 이제 질문되기 시작했다(Ahmed et al 2000). 즉 변화의 시기를 페미니즘으로 다시 들여다보며 이 변화를 어떻게 재현하고 새로운 의제를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근대의 공/사 영역을 구성하는 원리를 여성의 경험을 통해 드러낸 페미니즘은 변화의 시기에 새롭게 조직되고 있는 정서적인 관계와 성의 경험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

Douglas(1990)는 이런 의미에서 성별 역할이 아니라 개인 주체로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랑과 성, 자유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부터이며 따라서 사랑과 성은 여전히 문제라고 본다. 그녀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역할이 아닌 평등한 개인들이 정서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개인성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위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예를 소개하면서, 관계성의 문제를 성 정체성 의제와 연결시키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Raymond(1986)는 남녀의 결합만을 성애적인 사랑으로 보고 우정을 비성애적이고 열등한 감정으로 보았던 근대의 정서적 관계를 새롭게 언어화하고자 한다. 그녀는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강조점을 두어왔던 것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무엇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 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여성들 간의 관계는 성애적인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이성애 중심적 재현이 아닌, 다른 차원의 감정과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기든스(1995, 1997)와 백과 백-게른샤임(1999)은 시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 속에서 페미니즘과 성 정치의 영향으로 남녀관계를 조직하는 논리가 달라지고 있음을 분석한다 기든스는 후기 근대의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자아정체성의 새로운 기제들에 주목하면서 정서적인 관계가 그 중의 하나로 부상했음을 살펴보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는 감정 및 행동은 더 이상 이성애 결혼과 가족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는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전념(commitment)하는 수준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의 형태를 띠게 된다(1995, 99-119). 그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서/감정은 개인적인 느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며 사회를 변

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백과 백-계론샤임 또한 사랑은 더 이상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모든 잠재적 노동자가 철저히 개인일 조건을 요구하는 자본주의화와 여성의 개인됨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상호작용은 남녀의 역할 구분을 의미했던 사랑과 결혼, 가족의 모습을 바꾸어놓았다 사랑에서부터 동거나 결혼의 선택, 가족을 꾸리면서 아이를 가지는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외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기 어려워진다. 사랑은 끊임없는 문제의 발생과 그에 대한 해답 찾기로 이루어지는 숙제와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랑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추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무 것도 확실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위험사회에서 사랑은 일상성에 새로운 아우라를 줄 수 있는 종교의 위치로 승격된다(p.300-311) 후기 근대에 역할이 아니라 관계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 정서적 관계는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이들의 분석은 후기 근대의 정서적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지되는 성별 권력 관계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 의미하는 정서적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들의 연구는 때로 관계를 유지하는 성별적인 태도를 맥락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본질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기든스는 합류적 사랑과 순수한 관계가 부상한다고 보면서 이 때 친밀성의 전문가로서의 기질을 훈련해 온 여성들이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보다 익숙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타브리스(1999)에 의하면 이러한 해석은 사적 존재로 규정되어온 여성을 다시 사랑이라는 정서적 영역의 전문가로 만들면서 성별 권력의 맥락을 무시하게 된다 그녀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발전시켜온 친밀함의 표현 방식은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맥락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랑의 여성화'(feminization of love)는 자율적인 인간 사이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신화를 조장한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의 재능과 열망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보다 오로지 괜찮은 남자를 찾고 사귀는 데로만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상받게 된다(p.267-316)

또한 Duncombe and Marsdon(1996)은 남편과 아내라는 가족 내 역할보다 관계의 내용을 중시하는 순수한 관계로의 변화는 사람들이 정서적 관계와 상대방과의 성행위에 대해 거는 기대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여전히 성별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애 커플 사례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 여성들이 상대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은 감정 노동(emotion work)¹⁸⁾과 성 노동(sexual

work)¹⁹⁾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다. 제도로서의 사적 영역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성별화된 이성애 관계의 경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조(한)혜정(1998b)은 한국 청소년의 성문화를 분석하면서 성애적 주체로서의 인식은 근대적 자아가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연애와 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 또한 근대적 삶의 조건과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과 관계 형성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제 성 담론은 가정과 학교라는 제도권의 성교육을 통해서 뿐 아니라 성 산업 공간과 또래 집단을 통해 활발히 생산된다. 성과 관계맺음을 규정하는 문화적인 기제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이 경험하는 남녀관계와 성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하나로 묶이지 않는 차별적인 경험들을 통해 여러 집단으로 분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노를 중심으로 한 남성의 성문화와 로맨스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성문화라는 성별화된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성과 사랑, 결혼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결혼 전의 연애 관계에서 성적인 실천이 일반화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이성 교제에 관심을 가지고(엄연수 1997) 순결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혼전의 연애 관계에서 성경험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장수정 1998, 최원영 2003)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와 성의 변화를 분석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문화적 장의 변화는 설명하지 않는다. 문화적 장의 변화와 여성 경험의 관련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행위성(agency)은 개인 여성의 행위 이상을 의미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행위성은 전적으로 자율적인 주체의 인식과 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 여성을 규정하는 문화적 장과 담론,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²⁰⁾ 그러나 행위성이 규정되는 장의 변화를 다루지 못하는 이 연구들에서

18) Hochschild(1983)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는 이성애 대비되는 감정을 여성의 영역으로 본질화하면서 여성을 사적 존재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노동의 본질적인 요건으로 구성하여 가치를 생산한다고 분석한다. 그녀는 사적 영역에서 강조되는 여성의 감정적 자질을 emotion work로 공적 영역의 여성 노동의 본질적 요건이 되는 감정적 자질을 emotion labor로 개념화한다.

19) 성 노동(sexual work)은 원래 성매매(prostitution)를 재개념화한 용어이나 Duncombe and Marsdon은 일반적인 이성애 관계에서 기대되는 성행위의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이해와 압박감,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p.221-223). 연구자는 이성애 연애 관계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이성애 관계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별화된 성적 실천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성애의 변화를 분석할 때에도 여전히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행위성은 이들을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역사적인 행위자(women)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기보다 결국 성별화된 이성애적 성의 구조에서 똑같은 피해를 경험하는 본질적인 성별 주체(the woman)가 되는 요인이 된다

물론 성별적인 여성의 성의 피해와 억압 경험은 지속되고 있다 서구 사회의 연구들에서도 보여지듯이 후기 근대 사회에서의 사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그 자체로 좋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보다 변화하는 구조적 권력관계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화된 여성의 성의 위험과 피해 또한 여성의 성이 지닌 본질적인 위험이기보다 여성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담론적 맥락을 고려한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와 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문화적 장의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이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성별 조건 외에도 어떤 다양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위치지워지는 구체적인 개인들인지, 이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위하는 역사적 주체인지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C. 분석틀

1. 연애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개인이 맺는 정서적 관계를 ‘연애’²¹⁾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한국 사회 최근의 변화에 주목한다 두 명의 남녀가 맺는 정서적 인간관계를 관계를 규정하는 문화, 결혼으로의 기대, 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일상과 인간관계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후기 근대적 삶의 조건과 사랑, 결혼, 성의 연결의

20) 행위성은 개인들의 개별적인 자유 의지가 아니라 그들의 이해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들이 교차하면서 드러내는 권력의 효과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한다(김은실 2001c)

21) 본래 ‘연애’는 일본어에서 영어 ‘love’를 번역한 戀愛를 한국식의 한자 발음으로 읽은 것이다 일본어에서 戀은 남녀간의 상열지사를 가리키고 愛는 부모의 자식 사랑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다 일본어에서 戀은 마음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취급한 용어이지만 이 당시 영어 ‘love’는 낭만적 사랑에 가까운, ‘혼’으로부터의 사랑으로 번역되면서 일본에 없었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다(야나부 2003, 94-107) 즉 원래 ‘연애’는 서구 근대의 ‘낭만적 사랑’에 가까운 번역어였던 것이다 이를 한국어로 또 다시 번역하여 사용한 맥락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이 번역어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번역어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식민지 근대화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남녀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었는가를 밝혀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연애’가 감정의 상태보다 특정한 형태의 사권의 양식을 뜻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탐구해 보려고 한다

변화, 남녀의 사귀를 규정하는 소비 문화의 상품과 이미지는 남녀관계의 양식과 경험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다

연애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용어로 ‘사랑’이 있다 그러나 현재 ‘연애’라는 용어가 표현하는 현실은 ‘사랑’이 표현하는 현실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사랑’이 감정의 상태에 초점을 두는 용어라면 ‘연애’는 특정한 방식의 관계맺음의 양상에 초점을 두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연애는 사랑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사귀를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보다 ‘사귀다’ ‘연애한다’는 말로 보다 광범위하게 표현하기 시작한 변화에 주목하여 여대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애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와 감정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애 각본

본 연구에서는 연애라는 관계맺음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의 양식을 가리켜 연애 각본 혹은 각본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이 때 각본은 사랑과 성, 결혼이 연결되었던 근대의 사적 영역을 ‘성의 각본’으로 개념화했던 맥락보다는 특정한 패턴으로 양식화된 연애 관계를 가리키는 기술적인(descriptive) 개념으로 사용한다

3. 프로젝트(project)로서의 연애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위성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장의 논리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다. 개인이 연애라는 관계맺음을 자신의 행위성이 발휘되고 개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일상과 인간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일상과 인간관계를 다르게 조직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연애라는 관계맺음 또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프로젝트란 관계의 당사자들이 그 관계를 다른 관계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획가능성’과 ‘목적지향성’, 다른 과정을 위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 그 관계의 과정에 의미를 두는 ‘과정중심성’의 성격을 띠는 사건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누군가와 ‘연애한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맺음의 양식이 연애를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로 경험하는 것과 어떻게 구분되며 그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집안 배경과 학력을 소유한, 특정 맥락에 놓여있는 젊은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이들의 위치, 경험과 정서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를 통하여 특정한 조건 하의 여성들이 이러한 조건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변화하는 행위자인가를 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스스로 통제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I. 여대생의 일상과 연애

여대생들이 결혼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연애가 아니라 삶의 프로젝트로서의 연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젊은 여성들의 삶을 둘러싼 변화에서 가능하다 즉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애, 결혼, 가족의 구성이 여성의 삶의 목표였던 여성의 성의 사회화 과정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관계맺음의 방식을 다르게 조직하도록 만든다

본 장에서는 대학이라는 공적 교육 기관에 진입해 있는 젊은 여성들의 삶과 미래 계획, 인간 관계를 조직하는 문화적 장의 양상 속에서 연애 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A. 변화하는 한국 대학 사회와 개인의 등장

1. 집합적 주체에서 다중적 정체성으로

대학은 사회와 분리된 공간이기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있는 하나의 장이다. 특히 소비 대중 문화와 대중 매체가 이미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학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²²⁾이 되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대학생 주체들이 ‘민중’과 연관된 ‘대학생’이라는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집단 정체성을 호명받았다면 본격적인 소비 사회로의 진입이 시작되는 1990년대 이후 대학은 내부의 구성원들을 집단적으로 호명할 수 있는 주체 형성 공간으로의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²³⁾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생’이라는 기표는 엘리트집단 혹은 저항 문화의 선도자라는 분명한 기의와 결합

22) 엄기호(2002)는 1980년대의 해계모니적 대학 문화의 쇠퇴와 함께 대학 문화와 대중 문화와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이 경계가 모호하면 할수록 대학생이라는 엘리트주의적 구별짓기 감수성은 사라지고 대중 문화적인 세대적 감수성이 더 크게 자리잡는다고 지적한다

23) 이런 상황은 1990년대 중반 대학가를 풍미한 ‘신세대 담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미메시스의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와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예감케 한 대중적 아이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무대 자체가 대중 문화 공간이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대학생들은 엘리트나 운동권이라는 집합적 주체에서 소비 대중 문화적 주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다. 당시의 신세대 담론에 관해서는 미메시스(1996)을 참조할 것. 신세대 담론의 등장을 소비 자본주의 시대로의 진입과 관련지어 논한 글로는 주은우(1994)를 참조할 것

되지 않는다 그보다 최근에 ‘대학생’이라는 기표와 결합하는 것은 소비 잠재력이 큰 젊은 세대이면서 고실업 사회의 실업예비군이라는 이미지다 다음은 청년 실업에 관한 한 포털 사이트의 특집 기획에 관한 설명²⁴⁾이다

[2002 네티즌 생각] 당신도 청년실업자?

청년층의 구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 졸업자들의 웬만한 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100 : 1을 넘는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거리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IMF를 지나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취업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취업난은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삶의 방식들과 맞물리면서 직업 개념과 노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평생 직장, 정시 출퇴근, 고정직이라는 기존의 노동 방식 대신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문화 생활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을 통해서만 ‘자기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구하기 쉬운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정정당당한 백수의 삶을 살아간다 (강조 연구자)

젊은 세대의 취업에 관한 대중적인 담론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당도했음을 강조한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정규직장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신 그 때 그 때 문화적인 생활과 소비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야 한다 발전, 미래, 안정과 같은 근대적 삶에서 불안, 위험, 모험의 후기 근대적 삶으로의 이행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보다 시대적 요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대학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자본이 주도하는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은 더 이상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세계화 담론과 IMF 이후 가속화된 대학 체제의 여러 변화들은 바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학의 위상도 어떤 방식으로든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은 승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불안한 미래와 맞닥뜨려야 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힘들게 공부하다가 그래도 대학가면 이것저것 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 고등학교 때 대학은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꼭 가야

24) “당신도 청년실업자?” www.issue2.daum.net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환상들이 많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환상들이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막 좋다 그런 건 없었고, 실망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환상이 너무 컸죠 그제 1학년 때는 어울리는 게 좋아서 다닌 거고 2학년 때는 연애하느라고 (웃음) 그거에 의해서 다닌 거고 그런데 3학년 올라와서 되게 별로, 내가 왜 다니나 진짜. 비싼 등록금 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솔직히 수업도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영문과 수업이래봤자 정말 독해하고, 영문학 배우는 거 솔직히 도움도 안 되는 거고 차라리 나 혼자 해도 이만큼은 할 거 같다 이런 생각 드니까 지금은 많이 그냥 그래요, 별루 그만 두라 그래도 별 미련 없을 거 같아요 (사례 L)

대학 이후의 삶은 점점 불안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과 연관지어 대학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기 힘든 입시 문화의 폐해는 여전하다. 사례 L은 ‘수능 점수에 맞춰’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과 과를 선택하고 입학 이후 그래도 전망이 있다는 과로 전과를 했다. 학부제와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가 일반화된 현재의 대학 제도에서 이런 식의 선택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택이 그녀에게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또한 사회 자체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별 다른 없는 수업 방식은 지적 자극을 주지 못한다.

직업적 전망을 포함한 인생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불안 상태는 비교적 직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사례25)를 포함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서 발견되었다 대학이 사회와 격리된 공간이기보다 변화 속에서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을 배출해내야 하는 공간으로서의 책임은 커져가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실험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입시 전쟁 이후 숨들릴 겨를도 없이 느끼게 되는 것은 현재의 일상 속에 이미 불안한 미래가 당도해있다는 감각이다

며칠 전에는 연극부 모임에 갔는데, 대학 때 연극부 졸업하고 나서도 연극을 하는 졸업생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다 막 할아버지들이 다 와 가지고. 근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아마추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과의사를 하는 한에는 아무리 뭐 치과 의사가 시간이 많다고 그런다고 해도 요새는 경쟁도 심하고 해서 젊을 때는 딴 걸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는데, 너무 그게 당연

25) 사례 A와 F가 이에 해당한다 사례 A는 한의대에, 사례 F는 치의대에 재학 중이다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아, 그런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서 해외로 나가지 않는 한에는, 아니면 해외로 안 나가더라도 아주 뛰어나지 않는 한에는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다고 하고 (사례 F)

사례 F의 진술 속에는 비교적 안정된 직업으로 여겨졌던 의사라는 직업이 현재의 사회적 변화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상황 파악과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신,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는 근대의 미래에 대한 시간 감각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근대나 후기 근대와 같은 역사적 시기를 가리키는 개념은 그 시대의 실제적인 사회역사적 현상 예컨대 자본주의, 관료주의, 기술 발전 등으로만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이러한 시대 구분의 논리는 펠스키의 지적대로 “개인의 삶의 경험을 광범위한 역사적 양식 및 혁신과 쇠퇴라는 지배적 서사와의 관련 속에 위치지우려는 시도에 의해 형성”(펠스키 1998, 33)된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간성(temporality)의 특정한 감각은 단지 개개인의 감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인식 조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전환기의 시기에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특정 시간 개념만이 아니라 다의적이고 모호하면서 다차원적인 시간 감각을 동시에 경험한다(김은실 2002, 194) 변화하는 한국 대학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가지는 ‘불안한 미래의 현재적 현존’이라는 시간 감각은 전환기라는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자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의 불안정함은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쁜 미래 모두를 의미하는 일대일의 확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확률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불안정함의 안정적 지속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문화계의 화두가 된 ‘일상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일상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린 위험과 비일상성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귀환할지 모르는 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를 산다는 것은 미래의 장미빛 안정을 그리며 참고 희생하는 것이기보다 현재의 순간 순간에 이미 당도한 미래를 ‘살아내는’ 것이 된다

요새 들어서네요, 그냥 별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유쾌한 거 있잖아요 하면 신나고

그런 거. 음악도 요새는 진지하달까 실험적인 락 음악 말고 춤출 수 있고 이렇게 짜집기한 음악들 있잖아요.. (자기 취향이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가 아니구 모이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그대로거든요 그 옛날에 락 하던 거 좋아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죠. 최신 조류라서 그렇기도 한데 요새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좋아서 그러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나, 막 그렇게 될 정도까지, 예 그런 거 좋아요 나는 진지하고 사색적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요새는 삶의 진실 같은 거를 막 추구하는 그런 마음보다 연애도 그렇고, 삶의 사는 태도가 그냥, 진짜 순간을 즐기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순간을 즐기려면 또 아주 순간적인 사람이어서도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 같아요. (사례 F)

백(1997)은 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가족 등의 작은 공동체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전문화, 세분화, 복잡화된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후기 근대 사회를 ‘위험사회’로 명명한다 이는 현대 사회가 그 이전 시대보다 살아가기에 훨씬 더 위험한 사회가 되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 개념은 고도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가족이나 친족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해진 사회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식이나 사건으로부터 영향받을 확률이 훨씬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한 개인의 일생에서 확실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미래는 거의 아무 것도 없다. 즉 한 개인의 과거는 현재에 대한 규정력을 상실하며 그 자리는 미래가 차지한다 “존재하지 않으며 고안된 가공의 무엇 즉 미래가 현재의 경험과 행동의 ‘원인’으로서 등장”(p 74)하게 되는 것이다.

정해진 삶의 경로가 불확실해질 때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자신을 지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전적인 선택의 자유나 그 반대의 상황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불확실성은 정해진 것이 없음을 뜻하므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늘어났음으로 해석된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늘어난 만큼 개개인은 스스로의 선택과 인생에 대해 더 많은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순간 순간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한정된 자원을 새로이 전유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례 F가 말하는 ‘순간을 즐기려면 아주 순간적인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위험사회의 개인이 일상을 살아내는 이러한 전략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음악에 몰두하고 즐길 수 있으려면 음악에 대한 지식, 이 지

식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인간 관계망, 지식을 얻기 위한 돈과 시간 등 기본적인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원을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자신의 스타일로 전유할 수 있는, ‘순간적일 수만은 없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순간을 즐긴다’는 것이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일상상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특정한 방식의 의미로 재전유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배치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자의 자기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대학생의 삶을 단일한 표상으로 떠올리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1980년대 대학생의 삶이 학생운동 활동과 개인적인 공부로 양분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 대학생들의 삶은 그 때 그 때의 자기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안 했어요?) 요즘에 점점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다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이랑 다르게 동아리 활동을 안 해도 훨씬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동아리를 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동아리를 안 들어도 동아리 외에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여행도 동아리에서 가고 활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동아리 활동을 안 해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요즘엔 차도 많고,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차 갖고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또 동아리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다면 의견이 갈리잖아요. 요즘 애들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 의견대로 갔으면 하고, 웬만큼 자기 의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잖아요. 동아리는, 사람 많으니까 타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들어갈 때도 별로 활성화된 동아리가 없었어요. (사례 (다))

물론 안정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도서관파’ 학생들이나 대학에서의 동아리나 모임 활동을 열심히 하며 대학생으로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례 (다)의 진솔처럼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 많은 공간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생들조차도 그들이 경험하는 공간과 인간관계는 매우 다차원적이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대표적인 ‘도서관파’ 학생이었던 사례 O를 보면 그녀는 대학 풍물 동아리에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활동해왔고 현재는 공무원 시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면접에서 그녀가 얘기해 준 일상상은 온라

인 상의 여러 동호회와 과와 동아리, 고등학교 동창들 등 여러 또래 집단과의 느슨하고 다차원적인 만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대학이라는 공간만이 줄 수 있다고 여겨졌던 자유나 해방, 새로운 경험은 이제 대학 외의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이 같은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일상은 예외가 아닌 보편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생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또래 친구들이나 그들과의 놀이, 대중문화, 연애 등이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여대생 주체 형성 과정의 변화

불안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일상과 인간관계가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 현대 사회는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주로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자대학생은 그렇게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나가면 발에 채이는 게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 교육이 일반화되고 있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여성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²⁶⁾다 또한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졸업 이후 직장을 가져 경제적 능력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대학 오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와야 되니까 온 거야?) 그렇지 맞아. 난 그게 되게, 탄탄대로를 밟아온 사람 중의 하나라고 하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뜻없이 그렇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고 싶었던 거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 나 그 생각만 계속 하면서 살았어 (어떤 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야?) 커리어 우먼이 되는 거. (그래?)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좀 멋진

26) 여성 고등교육 진학률 (단위 명, %)

연도	진학자수	졸업자수	진학률
1965	12,526	43,377	28.9
1970	14,748	51,585	28.6
1975	25,396	102,058	24.9
1980	43,505	193,077	22.5
1985	98,694	289,372	34.1
1990	114,839	354,836	32.4
1995	156,272	311,538	49.8
2000	242,157	370,076	65.4

여성 대학원 진학률 (단위 명, %)

연도	진학자수	졸업자수	진학률
1970	384	6,073	6.3
1975	1,072	9,717	11.0
1980	3,152	15,812	19.9
1985	5,635	42,771	13.2
1990	8,718	61,289	14.2
1995	13,857	74,811	18.5
2000	35,586	100,925	35.3

자료 김재인 외 2000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280

여기자가 되고 싶었거든 (사례 D)

여대생들에게 현재 속에 당도한 불안한 미래는 그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하지만 결혼과 가족 구성만을 전부로 생각해야 했던 여성 삶의 행로를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하고 개척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과 기회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은 전적으로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나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 ‘요새는 남자들도 일 안 하는 여자 싫어한다’(사례 P)의 말처럼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미 당도한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라는 미래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미래를 당연히 받아들인다. 별 생각 없이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례 D의 말은 구체적인 자신의 적성과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입시 문화의 폐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부를 잘 한다면 ‘여자’라도 당연히 대학을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커리어우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의 삶에서 대학 교육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시기적으로 취업을 결혼보다 먼저 할 것으로 기대하고 당연시하고 있었다 이는 여대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당연시되지는 않았던 문화와는 현저히 대조적인 것이다 다음은 1986년에 대학에 입학한 보조 사례와의 면접 내용이다

우리 때 처음 생겨난 말이 뭐였냐면 ‘취직’이라는 말이었어 그 때는 졸업하면 여자는 결혼 그냥 하는 거다, 이게 대세였어 대세였는데 그게 뭐 80년대에 여연 생기고, 뭐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막 생겨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얘기 막 나오고 하면서 내가 89년도에 이제 4학년이었잖아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제일 잘 풀리는 게 뭔지 아니? 하고 애들이 물어보면 뭘데 이러면 ‘취직’이야, 그랬어 ‘취직’이 뭘데, 취직도 하고 시집도 가고 그게 최고, 졸업한 다음에 인생에서 최고로 잘 풀리는 게 ‘취직’이라고 졸업한 다음에 자신의 어떤 명확한 자기 진로를 갖고 취직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할 그게 없었어 워낙에 그 때는 입사해서부터 성차별이, 너무 심해났구 아예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거는 들어갈 엄두도 아예 못내고 (사례 1)

물론 이러한 변화가 여성들의 취업과 사회활동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있음

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게른샤임(2000)의 말대로 “교육 분야에서는 소녀들에게 문이 열려 있지만, 고용 및 노동 시장에서는 다시 문이 닫히는”(142)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여대생들은 일단 결혼보다 취업을 우선시하고 이에 대비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기자는 좀 생명이 짧고 나중에 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사나 영화 제작사 쪽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정말 꿈인 건 좋은 시나리오 하나 쓰는 거예요 (뭐 미래 계획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결혼 계획은 어때요?) 어렸을 땐 장난 삼아 그냥 서른 셋에 할 거야, 삼팔 광 땡이잖아요 (웃음) 농담으로 그랬는데 정말 서른 넘어서 하고 싶어요 일에 안정이 잡힌 뒤에, 내가 일에 경력이 쌓여서 결혼으로 인해서 약간 일에 소홀히 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캐리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사례 P)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는 대학 졸업 후 만족할 만한 직장에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 안정된 후 괜찮은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결혼 계획이 빠지지 않고 결혼으로 인해 일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한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사례의 직업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사례 P는 삼수 끝에 대학을 들어왔는데 그 기간이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또한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생 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며 글쓰기를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비를 꾸준히 해 왔다. 취업 대비 또한 연구대상자들에 따라 개인차이가 있었지만 취업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례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원하는 직업 직종과 이에 대한 준비 상황²⁷⁾을 정리한 것이다.

27) 조정아(1993)의 연구에서 대졸 사무직 여성들의 취업 동기와 준비 과정은 진로 모색과 구체적 정보습득을 통해 가능한 직업들의 실제 업무내용과 성장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단지 ‘취직’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여대생의 취업이 진보적 여성상에 대한 관념적 동조와 가사 노동에 대한 경시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는 실제 취업을 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연애’라는 주제로 만났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물음에서는 거의 무작위로 선정된 사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학중인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종을 비교적 분명하게 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여대생들에게 취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 연구대상자들의 희망 직종과 준비 상황

사례	희망 직종	준비 상황
A	한의사	한의대 재학 중
B	영화제작사 혹은 홍보사	취업 관련 강좌 수강
C	호텔 관련 직종	외국어 등 취업 준비 중
D	대학원 혹은 언론사	학내 언론사 편집장 활동, 외부 대학 언론사 편집장 활동 중
E	동시통역사	통역대학원 입시 학원 강좌 수강
F	치과 의사/대중 음악 평론가	치위대 재학중, 대중 음악 동호회 활동
G	경찰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경찰 간부 시험 응시 후 떨어짐, 교환학생에 선발됨
H	작곡가	음대 재학 중
I	동시통역사	통역대학원 입시 학원 강좌 수강
J	외국계 기업 혹은 대사관	영어 캠프 활동, 교환학생 경험
K	번역가	일어과 복수 전공
L	7급 혹은 9급 공무원	공무원 시험 대비 중
M	대중 음악 관련 일	대중 음악 동호회 활동
N	음악 치료사	음악 치료 대학원 진학 준비 중
O	7급 공무원	공무원 시험 대비 중
P	영화제작사 혹은 홍보사/시나리오 작가	외부 대학 언론사에서 영화 관련 기자로 활동 경험
Q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복수 전공

결혼보다는 우선 취업을 하겠다는 여대생들의 미래 계획은 사적 영역에 묶인 존재로서 길러지는 여성의 사회화 과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을 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노동이 단지 거쳐가는 경험이 아니라 스스로의 독립과 자신감에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²⁸⁾은 여성들이 자아와 세계

28) 김현미(2000a)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 주도하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미혼 여성의 노동을 초남성적 발전주의 국가에 헌신하는 딸의 이미지로 구축했다고 분석한다. 이 때 여성의 일은 ‘뛰어나지 않으면서 근면함’이 요구되며 여성은 ‘나태와 부주의로 가족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은 스스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발휘와 가족 이외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입증하는 것으로서 취업을 열망하는 변화를 보인다. “여성취업전쟁-학점·영어 성적 전부 좋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녀차별 취업문 어찌하오리까” 『우먼타임스』 2002년 11월 15일자 “여성취업전쟁-철새 여성직장인의 비애” 『우먼타임스』 2002년 11월 22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개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사회적 노동이 아니라 여전히 결혼인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과 이러한 현실에

의 관련에 대해 갖는 인식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공부 잘 하는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집안 배경을 활용하거나(사례 B, C, F) 스스로의 노력으로(사례 G, J, M) 어학 연수, 해외 여행 등 다른 문화를 직접 접하는 경험²⁹⁾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주로 성혁명을 겪고 새로운 남녀관계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서구권에 집중되는 까닭에 여대생들은 단지 외국어 지식에 한정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거기 사고방식이 좀 그렇잖아요 성에 대한 얘기 스스로없이 터놓고 하는 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90센치 침대 얘기를? 남자친구 제일 친한 친구를 제가 벨기에 도착한 그 다음 일요일날 브런치 먹으러 같이 만났었어요 남자친구랑 이제 하룻밤을 같이 잔 거잖아 같이 봤는데 그랬더니 뭐라더라? 아, 인사하고 한다는 말이 들어 침대에서 안 떨어지고 잘 잤네요 (웃음) 속으로 놀래고 내심 안 놀랜 척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남자친구 집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너네 침대가 자기네 거보다 작지 않냐고 90센치밖에 안 돼지 않냐고 폭이 90센치예요 거기서 같이 잔 거야 그 아래 보조침대가 있는데 뭐 거기서 따로 잤겠어요 근데 너네 그 작은 침대에 대단하다고 그게 첫 인사였어요 아, 역시 여기는 다르구나 재밌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긴 하는데 독립된 거 같은 생활. 층도 다르고 서로 침해 안 해요 (그럼 편했겠다) 되게 잘 해 주셨어요 나중에 와서 같이 살라고 (사례 J)

사례 J는 학교 대표로 외국에 갔다가 그 곳에서 한국계 외국인 남성을 사귀게 된 경우인데 그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한국 사회와 대조적인 개방적인 성문화, 부모 자식 관계 등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직업을 가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현실적인 이유와 이전의 연애에서 경험했던 상대 남성의 독점욕, 성경험 등을 상대화시켜 보게 된다. 어학 연수나 해외 여행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례들은 집으로부터의 해방감과 개방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충격을 진술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서의 대학 공간 경험과 또 다른 매우 새

서 여대생들이 직업과 결혼에 대해 갖는 전략에 대해서는 V장에서 논의한다

29) 어학 연수와 해외 여행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연구대상자들의 계급적 배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4년제 대학생이라는 위치는 설사 지원해 줄 수 없는 집안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외국 대학과의 교환 학생 제도, 대학생을 상대로 한 기업의 외국 연수 공모, 워킹 홀리데이 등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례 G, J, M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였다

롭고 낮은 경험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공적 교육 기관인 대학에 진입하여 취업을 통한 사회적 노동을 당연히 하고, 가능하면 한국 사회를 벗어나 보는 경험도 할 수 있는 여대생들은 당장의 연애에서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남성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이성애 관계를 자주 맺을 수 있고 성적인 유혹의 기회가 제공되는 여러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있다.³⁰⁾ 이러한 일상에서 여대생들이 경험하는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는 구애의 형태가 아니라 가볍고 일상적인 데이트(date)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부하는 것도 어차피 경험이고, 연애도 경험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안 좋아져서 헤어지고, 좋은 감정 유지하고 그게 다 경험이고, 그게 세상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아, 이 경험은 없었으면 좋았어 라는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1학년 때는 너무 잘 놀았고, 2학년 때는 학생회 하면서 내가 좀 부족했던 리더십이나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이끌어야 되고 그런 거 배울 수 있었고, 3학년 때는 내가 하기 싫은 거 꼭 참으면서 아르바이트 꼭 참으면서 하면은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겁만 먹었구나. 그러구 내가 맘만 먹고 공부하면은 나도 성적 잘 나오고 (웃음) 나도 나름대로 그런 데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년에는 나와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아마 또 OO[남자친구 이름]랑 같이 살게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하고 내가 여태까지 주고 싶어도 못 줬던 사랑하고 OO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한테 내가 신경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K)

남녀를 모두 포함한 연구대상자들의 진술에서 연애는 사적인 만남이라기보다 일상의 여러 공적이고 사적인 기획들 속에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진술된다 사례 K 또한 남자친구와의 연애와 동거³¹⁾ 계획을 자신을 성장

30) Ehrenreich, Hess and Jacobs(1986, 54-62)는 도시에 집중된 독신 여성 집단이 여성 성 혁명이 시작되는 최초의 장을 제공했다고 보는데 도시 독신 여성 집단은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이 있었기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교외의 고립된 핵가족 내의 여성들과는 달리 많은 남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공공 장소에 노출되어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여대생들이 경험하는 남성과의 연애관계와 성경험의 변화도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놓여있는 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생 시절에 경제적 자립을 경험하는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경제적인 목적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V장에서 논의한다

31) 젊은 세대에게도 아직 동거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례 K의 경우 서울 근교 지방에 위치한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자연스레 동거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을 다른 지방으로 갈 경우 연애를 하게 되면 동거로 이어지는 것은 흔

시킨 대학에서의 여러 경험 중 하나로 진술한다 대학이라는 공적 공간으로 진입한 여성들의 이성애적 욕망과 실험은 공/사 영역의 엄격한 구분 속에서 결혼과 가족 구성으로 이어지는 남녀간의 만남만이 승인되던 문화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애 경험은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체험들과 동등하게 놓이는 일련의 사건으로 경험되고 있다

B. 준거틀로서의 소비 대중 문화

1. 글로벌 소비 대중 매체를 통한 연애의 지식화

소비 대중 문화는 세계와 접촉하는 매체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감각과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제 내 몸이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하는 것만이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보고 접촉하는 매체의 경험이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등장하게 된다. 글로벌한 소비 대중 문화의 장에서 대학생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그들은 자신을 대학이라는 공간에 매여있는 학생으로 인식하기보다 글로벌 대중 매체와 소비 문화가 제공하는 이미지들에 자신의 욕망을 접속시키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언어를 발견/창조해 나간다.

연애라는 관계맺음의 방식 또한 글로벌 대중 매체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통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전혀 낯선 현상이 아니다. 물론 글로벌 대중 매체가 대중화되기 이전에도 한국 사회에서 제작되는 드라마, 영화 등의 재현물들은 연애를 포함하여 남녀관계에 관한 서사와 이미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한국 사회에서 연애가 남성성의 과시나 위기의 문제 혹은 그들의 사회적 자아의 재확인을 넘어서 남녀 노소 모두가 열망하는 개인적 자아의 발견, 정체화의 장으로 등장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에 글로벌 대중 매체의 혁명적 변화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김은실 2001a, 37)

우선 여대생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연애에 관한 글로벌 소비 대중 문화는 서구의 시트콤과 영화를 들 수 있다 특히 매일 저녁 케이블 텔레비전³²⁾이나 인터

히 볼 수 있다 동거는 부모에게는 비밀이지만 친구들에게는 알려지고 용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V장에서 분석한다

32) “케이블 TV 출범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자신을 아줌마로 규정하는 주부 대상 홈쇼핑,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 및 해외관광 소개,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렌즈>(Friends), <섹스 앤 시티>(Sex and the City), <엘리의 사랑 만들기>(Ally Mcbeal) 등의 서구 시트콤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동호회가 몇 개씩 만들어질 정도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시트콤들은 남녀관계와 성을 주요 테마로 다루는데 성 혁명 이후 서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³³⁾된다. 다음은 잡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시트콤들의 내용 일부다.

섹스&시티

애정과 섹스를 동시에 신봉하느라 가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섹스 칼럼니스트 캐리는 부유한 사업가 빅과 가구 디자이너 에이단 사이에서 방황한다. 바지 입은 남자라면 가리지 않고 폭식하는 홍보회사 대표 사만다의 남자(심지어 여자드)는 여전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완벽한 남자와 순진한 결혼을 꿈꾸는 화랑 딜러 살롯은 남편에게 실망하고 시어머니에게 시달린다. 잘 나가는 변호사 미란다는 스티브처럼 어딘가 모자라는 남자에게만 끌리는 통에 자주 사고를 친다. ³⁴⁾

위의 내용과 같이 대도시에서 전망할 만한 전문 직업을 가진 남녀들이 벌이는 연애와 섹스 경험을 남녀관계에 대한 고민 속에서 드러내는 서구의 시트콤은 단지 ‘서구의 것’에 머물지 않고 바로 여기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언어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연애, 결혼, 섹스, 가족 구성은 여전히 그것이 일직선상에 놓인 과정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서 육체적인 성숙과는 상관없이 결혼 전의 여대생들은 ‘비성애적인 존재’로 규정당한다. 그러나 남녀관계에 관해 이미 다른 식의 모델이나 상상력을 가지기 시작한 이들에게 결혼 전에 연애를 할 수는 있되 몸은 지켜야 한다는, ‘옆에 있는’ 부모의 얘기보다 이러한 글로벌 미디어의 연애 이미지가 훨씬 더 나의 욕망을 잘

이 속속 등장했다. 이 가운데 세 번째-대낮에도 TV를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층을 겨냥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성공한 것은 케이블 TV 초기의 도시 남녀를 다루는 시트콤이었다. HBS의 <내 사랑 캐롤라인>, GTV의 <엘렌>, 동아TV <프렌즈>의 인기는 젊은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에 굶주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여성이 느끼는 <섹스 앤 시티>, 그들처럼 유쾌하게!” 『한겨레21』 2002년 9월 12일자

33) “당당하게 살자 미혼모들 쿠데타-美 TV에 나타난 뉴라이프 스타일, 드라마·시트콤등 싱글마더 변화된 시각 반영, 원해서 아이갖고 직업전선에 새 가치관 ‘눈길 팍’” 『우먼타임즈』 2003년 1월 10일자

34) “영화보다 재미있는 TV 외화 시리즈-집 밖에 왜 나가? 애들이 있는데!” 『Film 20』 2002년 10월 22일자

설명하는 언어로 채택된다.

개네는 TV 같은 것도 주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막 보면은, ER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엘리 맥빌, 섹스 인 더 시티 이런 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막 그거 보면서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게 몇 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언니 그거 봐요? (가끔 봐요) 왜 캐리랑 빅이랑 다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아, 나는 내가 사랑받길 바라는 방식으로 날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뭐 그런 대사가. 좀 이렇게, 개네가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저런 관계이기도 하고 이런 게,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엘리 맥빌 보면서는 내가 오빠하고의 관계에서 되게 미성숙한 게 그런 게 많았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사례 C)

연애 관계의 여러 현실적인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드라마³⁵⁾와는 다른 점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시트콤들을 즐겨보는 사례 C는 이를 연애관계와 사랑이라는 감정, 성관계라는 행위가 어긋나는 현실의 경험들을 고민하는 언어로 가져온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례 C가 경험하고 있는 자신과 주위 친구들의 이 같은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언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글로벌 소비 대중 문화가 제공하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이미지는 여대생들이 자신의 연애 경험과 욕망을 승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텍스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C는 재현물들의 내용을 비교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과 경험에 비추어 이를 재해석하기도 한다 이제 연애는 그것을 재현하는 여러 텍스트들을 해석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와 관련한 감정 처리와 관계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 지식의 일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화가 필요한 작업이 되는 연애에서 선택하고 고려해야 할 것은 더 이상 결혼과의 연관에서만 파악되지 않는다 전술하였듯 글로벌 대중 매체에서 연애는 대도시의 선망할 만한 전문 직업을 가진 남녀들의 생활양식(lifestyle)의 하나로 제시³⁶⁾된다 기든스(1997)에 의하면 생활양식은 “다수의 가능한 선택지들 가운데

35) 글로벌 대중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서구 시트콤이 인기를 얻는 등 젊은 세대의 연애와 성에 관한 욕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간파한 대중 문화 제작자들에 의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서사와 이미지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미국 시트콤 <프렌드>의 모방 논란이 일었던 시트콤 <세 남자, 세 여자>, 대도시 남녀들의 연애에 대한 관심사와 성에 관한 농담을 다뤘던 시트콤 <세 친구>, <연인들>, 최근에는 미혼의 사회 초년생 여성과 고시 준비생 남성의 동거에 관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인기를 모았다

36) 시트콤이나 영화 등 대중 매체 외에도 1-2년 전부터 급속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젊

에서의 선택을 내포하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택되는’ 것이므로” 전통적 문화에는 적용 가능성이 많지 않으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아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결정”(p.151-153)을 의미한다. 생활양식은 무한정한 선택지 중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고를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관행화된 습관, 의상, 식사, 행동양식, 타인과의 만남에서 선호되는 환경 등 일상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 하나 하나에 부여된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자신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물이 가진 의미와의 유희’다 이는 자신이 가진 여러 자원들을 재배치하고 전유하며 협상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된다

생활양식으로서의 연애를 욕망하게 되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연애뿐만 아니라 연애를 포함한 인생 계획 자체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보다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인 사례 N에게 연애와 결혼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뒤 하고 싶은 일이다. 음악과 글쓰기의 감수성이 맞는 사람이라야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서른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집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그 나이가 넘어서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생활양식으로의 연애를 욕망하게 되는 것은 연구대상자들

은 여성들을 겨냥한 라이선스 잡지들은 소비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결합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중점을 둔 기사로 여대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이선스 잡지들은 서구 여성 잡지 판형과 기사를 거의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서 글로벌 소비 대중 문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라이선스 잡지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겨냥하여 girl이라는 키워드로 창간된 이 잡지들은 소비 타겟 여성 연령층을 더욱 세분화하여 당당하고 멋지게 살고 싶은 젊은 여성들의 욕망을 구체적인 소비 욕망으로 전환시킨다 다음은 라이선스 잡지의 기사 내용이다

“최고 엘리트들의 도시, 옥스퍼드를 누비는 열아홉 살 쾌활한 아일랜드 대학생, 비키 스케일즈 브룩스 대학에서 책에 파묻혀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는 그녀의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바쁘지만 즐거운 일상 ”(“global girl-my so-cool life” 『Elle girl』 2003년 3월)

기사의 요약 아래에는 사귀지 다섯 달 되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선물집에서의 아르바이트, 대학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춤추는 오락 기계 펌프, 춤추는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여자 가수의 노래까지 그야말로 ‘글로벌’ 소비 대중 문화가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젊은 여성상이 소개된다 여기에서 연애는 운명이나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소비와 강력하게 결합하여 일상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다. 어학 연수나 해외 여행 경험 여부와 서구의 대중 문화를 즐기는 정도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지점으로 보인다. 홀(1996)은 담론적 ‘지식’은 언어 속에 ‘현실’이 투명하게 재현된 결과물이 아니라, 언어가 현실적 관계와 조건에 접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담론을 이해하려면 의미의 규칙이 작동해야 한다. 이 때 의미의 규칙은 항상 지배적 위치에서만 작동되지 않는다. 바로 수용자의 사회적 위치와 정치 경제적 맥락이 의미 작용의 정치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즉 글로벌화된 서구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와 이를 자신의 현실에 통합시킬 수 있는 자원에 따라 여대생들이 연애를 지식화하는 정도와 자신의 인생에서 위치 짓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대학생 시기에 주로 군대를 다녀 온 후 취업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대생들에 비해 문화적 경험을 하기 어려운 남대생들은 이러한 대중 문화 자원³⁷⁾의 습득에서 여대생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저 군대가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쁜 여자 찾고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예 좀 그러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오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말 통하고 성격 좋은 여자가 좋더라구요. 얼굴 예쁘고 성격 나쁜 여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요, 저는 얼굴 좀 아니고 성격 좋은 여자 고르겠어요. 현실을 아는 거죠, 이제 (사례 (나))

군대를 다녀온 본 연구의 남대생 연구대상자들은 좋아하는 여성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모두 군대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진술했다. 그 기준은 외모와 성격이다. 즉 군대를 가기 전에는 즐기기 좋은 여성스러운 외모의 여성이,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아내감으로서의 여성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군대를 기점으로 한 취업과 결혼, 가장으로서의 역할 준비라는 한국 사회 남성의 일정한 인생 패턴을 받아들이고 있는 남대생들에게 연애는 생활양식의 선택이기보다 남성과 여성 역할의 준수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소비 대중 매체가 일반화되고 이것이 실제의 연애 관계에 대한

37) 피스크(Fiske 1989, 23-47)에 의하면 문화 경제(cultural economy)에서 순환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와 쾌락이다. 관객은 제작자가 되어 의미와 쾌락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며 이를 다시 소비하는 소비자가 된다. 이 때 문화 상품은 대중 문화의 주요한 자원을 구성하는 잠재적인 의미와 쾌락의 텍스트 즉 담론적 구성물이 된다. 즉 대중 문화 자원은 문화와 관련된 기호학적, 문화적, 물질적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한다. 일상의 권력 관계는 대중 문화 자원의 의미와 쾌락을 생산하는 데 중요하게 개입한다. 이런 지점에서 대중 문화 자원의 습득과 해석, 의미와 쾌락의 생산은 정치적이다.

욕망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텍스트가 되는 현상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이를 현실에 통합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 문화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 다른 언어와 욕망을 가지게 하는 차이화의 기제가 되고 있다

2. 성적 주체성과 자아 의식

글로벌 소비 대중 문화를 통해 젊은 여성들이 바꾸어내고 있는 현실의 연애편계와 자아 인식에는 결혼과 상관없이 자신을 ‘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스스로의 몸에 대한 지식과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금기에 속한다³⁸⁾ 행여 이를 조금이라도 드러낼라치면 남성중심적인 관음증적 시선에 의해 ‘밝히는 여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 속에서³⁹⁾ 미혼여성의 성은 순수함과 무력함, 피해자적인 언어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그러나 결혼 전 성관계를 복잡해지는 인간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문제로 다루는 서구의 시트콤이나 영화, 대중음악 등을 자신의 욕망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텍스트로 가져오면서 이들의 인식은 변화를 겪는다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데서는 성이나 이런 게 솔직하게 나오질 않잖아요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관계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섹스 앤 시티 같은 거 보면 좀 너무하지 않냐, 아니 너무 이해된다 그런 거 남자가 맨날 바뀌고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사례 C)

38)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성적 욕망과 성적 주체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언은 여전히 익명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젊은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www.foxylove.net와 판지일보가 운영하는 www.namrodang.com의 여성필자들은 모두 익명으로만 글을 게시한다. 페미니스트 저널을 표방하는 <이프>지에서도 성경험을 드러내는 Love & Sex라는 코너의 필자들은 모두 익명으로 글을 쓴다 이는 동일 잡지에서 남성들의 성경험을 고백하는 수기는 실명과 때로 사진까지 실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39) 1999년 텔런트 오현정 비디오 사건과 2000년 가수 백지영 비디오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성에 관한 이중 잣대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들은 상대 남성들이 치밀한 계획 아래 비디오를 누출한 범죄였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점은 부각되지 않고 미혼의 젊은 여성 연예인이 성행위를 한다는 점에만 관심이 쏠렸다 이 사건들을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와 미디어 이미지에 대한 욕망으로 분석한 글로는 김창남(1999)을 참조할 것

저희 부모님은 아예 그런 말을 안 하고 제가 그렇다는 걸[성경험이 있으리라는 걸] 아예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니까 아빠는 화장품을 시집가서 쓰라는 등 그런 말을 하고 엄마는 그냥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쑥택이려니 해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생각 해서 부모님한테 성에 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고 저는 외국 노래나 아니면 영국에 여행 갔을 때나 클럽이나 그런 데서 알았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게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노래들도 그렇고 영화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저는 안 된다는 것보다 된다는 걸 먼저 알았으니까 동호회에서 클럽 같은 데 가서도 그런 노래를 많이 들어요 (사례 F)

연애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성경험은 성관계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중 택일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은 무엇인지,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등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의 문제가 함께 부각된다 그러나 이들의 성경험을 틀짓는 관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성찰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훈련을 하기보다 ‘그래도 순결을 지켜야 한다’ 혹은 ‘콘돔을 사용하면 된다’는 기계적인 설명만으로 이루어지는 중, 고등학교의 성교육⁴⁰⁾은 실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⁴¹⁾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대중 매체가 보여주는 연애와 성이 ‘실질적인’ 해결책과 자신의 욕망을 긍정할 수 있는 언어로 여대생들에게 절실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조기 성애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글로벌 대중 매체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는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소비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 상품화’(commercialization of sexuality)와 ‘상품의 성화’(sexualization of commodities)는 일상적 현실이 되고 있다 일상적인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광

40)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중, 고등학교 시절의 성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지방 소도시 출신 사례들과 일부 지방 대도시 출신 사례들은 절대적으로 순결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또 다른 일부 지방 대도시 출신과 서울 출신 사례들은 콘돔을 직접 보여주고 끼워보는 피임 위주의 성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 성경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41) 한국 여성학의 지식생산구조와 향방을 『한국여성학』 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한 조주현(2000)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정책과 노동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 문화, 이론, 성에 대한 관심이 이를 앞지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김은실(2001b)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을 다룰 수 없는 존재로 이미 간주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성을 다루려고 할 때 강한 문화적 검열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학문적 차원에서 남성중심의 성 체제에서 여성의 성이 갖는 위험성은 지적하지만 여성의 성적 쾌락과 욕망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에 페미니스트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이 성교육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시론적인 논의는 김현미(1997)를 참조할 것

고, 영화 등에서 넘쳐나는 성적 이미지들은 여대생들로 하여금 그 이전까지 받은 순결 교육을 대체하는 강력한 욕망의 언어를 제공한다

(근데 자기는 결혼 전에 같이 잘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엄격한 순결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대학 와서 많이 바뀌었죠 (대학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영화나 인터넷도 많이 보고 그게 되게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스킨십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결혼 전에 그런 것도 다 해 봐야 되지 않나 (해 본다구요?) 정말 재미를 위해서 하기에는 감수할 게 되게 많으니까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 이 남자랑 정말 결혼할 생각있으면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될 테스트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웃음) 테스트 해 봐야 되요 궁합이 맞는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맞으면 헤어져야죠, 당연히 (진짜?) 그럼요 사람이 좋아도, 사람도 좋고 그거도 맞는 사람으로 다시 찾아봐야죠 (사례 O)

고등학교 시절 운동장 조희 시간에 ‘남자는 늑대다’를 세 번씩 외치게 할 정도로 보수적인 성교육을 받았던 사례 O는 아직 연애 경험은 없지만 연애 경험과 성경험이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와 영화, 인터넷을 통해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 사례는 연애를 하고 싶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스킨십을 꼽았는데 연애 관계에서의 성적 욕망의 실천에 관한 분명한 기대는 대부분의 사례들(사례 B, C, D, E, F, G, H, J, K, M, N, P)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대만 10대 소녀들이 자아를 성적으로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대중 매체의 역할에 주목한 호(2001)는 대중 매체가 재현하는 십대의 청순하면서도 뒹고뒹고(sophisticated) 성적 욕망의 완벽한 혼합이 남성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10대 소녀들에게 자기 표현방식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고 해석한다 즉 남성중심적인 성녀/창녀의 이분법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창녀로 낙인찍혔던 데 반해 이러한 이미지는 10대 소녀들이 순수함과 섹슈얼리티를 분리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상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는 것이다(p.65-67)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미혼’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여대생들에게 글로벌 대중 매체를 포함한 소비 대중 문화의 성적 이미지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젊은 여성들의 이러한 인식이 전적으로 성적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⁴²⁾ 사례 O의 진술에서 결혼을 위한 성스러운 성과 재미를 위한 성의 이분법이 유지되면서 전자를 위해 혼전의 성을 정당화하는 태도는 여전히 이성애 핵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성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성을 위한 ‘테스트’로 혼전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대안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의 각본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윤)필화(1999)에 따르면 남성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 사랑, 결혼이 통합되어야 이상적이라고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함과 접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적 쾌감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사회화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미혼 여성에게 성관계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다. 이는 결혼과 가족이 여성에게 궁극적인 목표로 상정되어 있을 때 관찰되는 성의 각본 양상이다 그런데 지금 대학을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양한 문화적 기제와 경험이 개입해 옴에 따라 성, 사랑, 결혼의 통합의 과정이 달라지면서 성의 의미도 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부모님이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왜 순결을 지켜야 되냐면 나중에 결혼할 사람한테 미안해질 거고, 여자가 일생 한 남자하고만 성관계를 갖는 게 바람직하고, 이 사람랑 관계 맺었는데 헤어지면 큰일나는 거고 그러니까 막 굴러먹은 여자 되는 거

42) 가부장적 문화가 지속되는 한 여성의 성은 어떤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해방적인 것으로 경험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성폭력과 성희롱 등 성별화된 여성의 성(female gendered sexuality)이 갖는 위험과 폭력은 성별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계속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여성의 성적 욕망과 주체화와 분리된 것으로 이해되기보다 성에 관한 여성의 선택과 자기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은 성에 관해 무지하고 무력해서 성폭력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기 결정과 선택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페미니즘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로 이론화하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스스로의 욕망과 결정에 의한 성을 상상하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효과적으로 해체하지 못할 때 ‘성녀/창녀’의 이분법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성폭력당한 여성/성적으로 주체적인 여성’의 이분법이 여성의 성을 설명하는 강력한 논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00년 성폭력 사례를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사건 중 몇몇 사례들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주의적인 틀이 아니라 페미니즘적인 상호 인정의 권리 형식으로 재개념화하고자 하는 시론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신상숙(2001)을 참조할 것 이 사건을 여성의 시민권 개념으로 분석한 글로는 박정미(2002)를 참조할 것

고, 그런 애기시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관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있는 거고 일단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깊이 좋아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계속 애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엄마 말대로 순결지켜서 나중에 남편한테 자랑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전 그런 게 싫었거든요?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끝까지 처녀 지켜가지구, 만약에 결혼한 남자가 내가 처녀인 거 알면 어쨌든 남자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전 그 좋아할 거 상상해드 좀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처녀 지켜봤자 총각이랑 결혼할 거 아닌 거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고 생각해봐도 지금 안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성경험이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부모님과 관계에서 좀 어떤 정신적인 독립? 이런 의미도 약간 있었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니까 그 즈음에 부모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반항심도 생기고 부모님은 뭐 생각도 너무 고리타분한 거 같고, 정말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나름대로 머리로 꺾었는데 너무 통제하시려는 거 같고 이거는 그니까 성적인 문제? 남자친구랑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나를 너무 억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도 생겼었고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살아야 돼나 좀 반항심이 약간 생겨가지구 내 생각대로 하겠어, 막 이런 거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렇지만 뭐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례 E)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젊은 여성들에게 성은 ‘단지 성이 아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물적인 기반을 갖춘 부모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 하는 딸에게 경제적인 투자와 심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러한 경험은 딸들에게 세상과 자아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똘똘한 집안에 얽매어 시집도 잘 가 주길 바란다. 이러한 부모의 이중적인 욕망과 지속되는 성적 구속은 그녀들은 그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 행위를 해 버림으로써 상상적인 독립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성이 ‘부모 말을 들어야 하는 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개인’으로 자신을 의미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미혼 여성의 성을 금기시하고 낙인찍는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은 소비 대중 문화가 제공하는 넘쳐나는 성적 이미지와 글로벌 대중 매체를 통해 일상일 수 있는 성을 동시적으로 경험하면서 성의 의미를 무력하고 피해자적인 여성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개별성을 승인받는 권력의 원천으로 바꾸어내고 싶어한다.⁴³⁾ 이런 점에서 이들의 성적인

주체로서의 자아 인식은 그것 자체가 완전히 해방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연애와 결혼, 성경험 등 여성을 ‘여자’이게 하는 삶의 과정을 그저 자신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숙명적인 경로로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험 및 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읽어야 할 것이다

C. 연애 공동 기획자인 또래 친구들

1. 또래 집단을 통해 유지되는 연애 관계

글로벌해지는 소비 대중 문화가 젊은 세대의 정체성과 감수성을 특징한 방식으로 묶어내면 낼 수록 가족이나 특정 사회적 공동체가 이들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적어진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구 사회 젊은이들의 연애 문화를 연구한 카스타-로자(2000)는 서구의 젊은 세대들이 1950년대부터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획득했으며 음악과 춤 등의 대중 문화를 통해 자신들만의 언어와 의상 코드, 나아가 사랑의 코드를 만들면서 어른들의 세계와 선을 그었다고 분석한다 당시의 전세계적인 학생 저항 문화는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서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 비교적 안정된 사회 체제를 구가하고 있던 서구에서 학생 저항 문화는 부모세대의 ‘중간계급’적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한 거부인 ‘문화혁명’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나 국내 무장투쟁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제 3세계에서 학생 운동은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권력에 저항하는 게릴라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홉스봄 1994, 594-631). 1980년대 한국 사회 학생 운동의 열기는 이러한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또한 본격적인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소비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의 감수성에 일대 변화

- 43) 세계적인 팝가수 마돈나는 성적 매력과 강한 자아를 동시에 소유하고 싶어하는 현대 여성들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뮤직 비디오의 이미지와 노래를 통해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에번스(1998)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제 3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이미지와 외적 인격에 대한 놀라운 조작, 음악 재능과 사업가적 통찰력을 가진 마돈나를 ‘진정한 페미니스트’로 여긴다고 한다 마돈나의 삶 전반에 관해서는 모튼(2002)을 참조할 것 한국에서도 성적인 매력을 이미지화했던 가수 엄정화가 최근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 결혼과 외도를 동시에 감쪽같이 해 내는 여성 역할을 소화함으로써 성적 매력과 성공적인 삶을 동시에 성취하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의 욕망을 대변했다 “또 사랑이 온다, 어찌란 말이나 . 불륜은 없다, 다른 색깔의 사랑일 뿐, 최근 영화·드라마 등에서 욕망에 당당한 여성들” 『한겨레21』 2002년 5월 2일자

가 오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한국 사회 젊은 세대들은 부모로 대표되는 전 세대에 대해 강한 구별짓기적 감수성을 만들어가면서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인류’가 되어가고 있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같은 구체적인 얘기는, 가족들한테는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은] 진짜 경제적 단위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느끼는 요즘에 뭐 주위에서 좀 요즘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는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유행어 같은 것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우리 하는 얘기도 잘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노는 물이 그냥 그렇게 아저씨들 노는 데니까 세대 차이 얘기하면 아빠랑 세대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엄마랑은 좀 덜 난다고 해야 하나. 아빠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아빠는 그런 거 이렇게 자기계발 같은 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변해 가는 세상에 루저⁴⁴⁾같은 그런. (사례 B)

급속하게 변해 가는 세상의 속도에 뒤쳐진 듯한 아빠와는 한 집에 살지만 통할 대화거리가 없고 그래서 직접적인 말 한 마디도 제대로 걸지 않는 사례 B가 특별히 가정 불화를 겪고 있거나 비정상적인 경우인 것은 아니다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어내면서 세대간의 큰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세대 차이를 가장 실감나게 경험하는 현장(조(한)혜정 1998c)이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가족에게서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받는 느낌이나 통하는 대화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사례 B의 말처럼 ‘진짜 경제적 단위’인 것 같다고 느끼는 젊은 세대의 가족에 관한 느낌은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담론이 그토록 주장하는 ‘화목한 가족’이 현실이라기보다 현실의 갈등을 봉합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래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은 바로 이들이 자신들만의 세대적 문화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일상과 고민을 그 누구보다도 또래 친구들과 함께 우선 나눈다 여대생들은 대학에서의 일상을 수업이나 교수와의 관계 등 공식적인 장 뿐 아니라 또래 친구들이라는 비공식적인 장에서 더 중요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때 여대생들의 또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44) 패배자(loser)를 뜻하는 이 영어 단어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익숙하지 못 한 전세대의 ‘어른들’을 가리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이며 대화거리 중 하나가 바로 연애에 관한 것이다.

(여자친구들이랑 무슨 얘길 많이 해요?) 요즘에는 거의 취직 아니면은 그런 애긴데, 그런 애긴데 (웃음) 아, 정말 왜 이래졌지? 그런 애긴데 취직, 딱 불안하면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9.99퍼센트가 그런 연애나 성 애기고 나머지 0.0001프로가 뭐 미래, 그 미래 계획 있잖아요. 그런 얘기 어휴, 진짜 되게 척박하다, 우리 (웃음) 연애 안 하는 사람도 만나면은 맨날 연애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비율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때의 내용은 맨날 아, 연애하고 싶다, 소개팅 해 달라 이런 얘기였다면 지금은 남자, 구체적인 그런 과정, 구체적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로 바뀐 거 같아요 (사례 B)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또래 문화를 지배해 온 로맨스 문화⁴⁵⁾에 익숙하다. 대학에 들어와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애를 계획하고 경험하는 데에도 또래 친구들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만큼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미팅 주선에서부터 좀 묵직한 연애 관계까지 ‘실전’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또래 친구들과의 공유를 통해 기획되고 학습된다 특히 여러 가지 기념일 챙기기나 이벤트 만들기 등이 연애 기획의 주요 부분으로 부상하면서 또래 친구들의 비교와 조언은 중요한 정보가 된다. 연애가 두 당사자들간의 만남이라기보다 친구들과의 공동 기획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 연애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나 부모와 상의해야 하는 결혼으로의 과정으로 정의되기보다 또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놀이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에 의외로 군대 간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되게 유행처럼 번지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어떻게 알아요?) 주위에도 많고 우선 지금 우

45) 엄연수(1997)는 여고생들이 학교 문화가 제시하는 성적이라는 기준과 로맨스 문화가 제시하는 연애라는 기준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틀 속에서 자신을 위치지운다고 분석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범생이, 딱 중간, 날라리라는 범주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그러나 여고생들의 이러한 자기 정체화는 입시 중심의 학교 문화와 가속화되어가는 소비 문화의 충돌 사이에서 일정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예 입시 공부에서 이탈한 여고생들은 학교 성적과 관련있는 ‘날라리’ 범주로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공간의 정체성으로 이동하며(민가영 2000), 로맨스 소설 읽기 등을 통해 상상만 할 뿐 연애라는 실전을 염두도 내지 못 했던 ‘범생이’와 ‘딱 중간’도 점점 어린 나이에 당면시되는 연애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자기 정체성으로 범주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 중 상당수(사례 A, C, E, L, P, Q)는 4년제 대학을 들어올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던 ‘범생이’들이었지만 중, 고교 시절부터 이성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사귀는 경험을 해 왔다고 말했다

리 선배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다 같이 그런 데 가입해서 얘기하고 진짜 유행같다 그럴 정도로 되게 늘어난 거 같아요 의외로 그렇게 기다려보고 싶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내 친구도 군대 갈 사람 소개시켜 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뭐 기념일 되면 뭐해 줘라, 생일 때 되면 뭐해 줘라, 소포는 이렇게 보내야 되고 고침한테 이쁨 받는 법, 뭐 이런 거 장난 아니예요 (사례 L)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기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서 서로 선물 주기를 조언해 준다는 사례 L의 이야기는 이들에게서 연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나 지속적인 사귀를 의미하기보다 한 번 해 보고 싶은 ‘유행’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남자친구에게 줄 여러 가지 선물과 이벤트는 또래 친구들의 조언과 비교를 통해 계획된다. 지루한 일상엔 연이은 이벤트로 가득 찬 특별한 날들이 되고 연애는 일상 속의 비밀상을 구현하는 유일한 장이 된다. 어떤 사례는 상대방과 사귀는 상태가 좋아서라기보다 또래 친구들을 묶는 연애 기획에 참여하기 위해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연애하구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렇게 막 더 이상 그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애들이랑 더 친해질 수도 있었고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면서 오히려 나는 애들하고 훨씬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교 때 같이 놀던 애들하고 친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때는 그냥 뭐 같이 놀거나 했지 그렇게 애들이랑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고민 얘기하고 줌 그럴 정도로 친한다 라는 , 그러니까 친하긴 원래 친했는데 그런 감정은 나 혼자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전부터 느끼는 게, 나는 정말 그 때만 해도 사랑에 대한 생각 같은 거는 정말, 그 사람한테 느끼는 거는 되게 특별한 거구 다르고 막 이렇게 정말 연애를 하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막 연애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얘기해 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하고 더 친해졌죠 (사례 C)

사례 C가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상대방 남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보다 연애하는 친구들에게 느낀 부러움과 그들의 부추김에서 찾아진다 그렇게 싫지 않은 정도면 그냥 사귀 수 있다. 다들 연애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공통의 화제를 찾아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사귀는가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실에 근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또래 문화에서 연애를 안 하는 것은 보여주

고 공유할 ‘비밀’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밀을 공유한 또래 친구들은 만남에서부터 부딪힘, 헤어짐의 전과정에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우정을 과시한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절대적인 경우에 여성들은 개개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인 위치를 얻을 수 있음을 간파하고 서로 경쟁하거나 남성을 얻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부차적인 집단으로서의 또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된다 (Holland and Eisenhart 1990, 85) 그러나 여성 또래 집단의 이 같은 특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여성들에게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연애 상대인 개인 남성에게서 얻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연애 상대는 때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 유지되는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 하기도 한다. 사례 C의 경우 남자친구와 단둘이 노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밤 9시만 되면 집에 가지만 여자친구들과 놀 때는 자정이 되어서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두 사람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한다. 또래 친구들 모두가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연애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 관계에 실제적인 의미를 두기보다 친구들과 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는 연애에 관한 일차적 해석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이 연애 ‘관계 자체’보다 연애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은 상대방 남성과의 관계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연애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관계에서의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다. 연애는 점점 더 ‘자신에 대한 앎의 욕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또래 친구들과의 애깃거리를 위한 대상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몇몇 사례들(사례 C, H, M)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폭적으로 나눌 수 있는 여자친구들을 ‘소울메이트’(영혼의 친구)라고 불렀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적인 매력을 기반으로 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비해 보다 전인격적이며 끝나지 않을 관계로서 여자친구들과의 관계를 진술한다. 이처럼 또래 집단 내 놀이 문화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연애 관계는 여자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되면서 여자친구 관계 또한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애를 중심으로 한 놀이 문화는 연애 경험이 없거나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적은 사람들로 만드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다. 연애 경험이 없는 사례들은 모두 하나같이 연애 중심의 놀이 문화에 대

한 불편함을 토로한다

막 몇 번 진실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남자친구 몇 번 사겨 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난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쳐다봐요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나, 무슨 성격적인 결함이 있나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도 아, 내가 진짜 이상한 애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뭘 모르나 그런 생각도 들구요 막 옆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첫 키스의 평균 연령이 19.6센가 그렇다면서 나한테 너 어쩔 거냐고 첫 키스는커녕 연애도 못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구 그래서 내가 이런 애기 안 듣기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연애를 한 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례 Q)

사례 Q는 주위 여자친구들이 모두 연애를 하게 되면서 연애 경험이 없는 자신은 같이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들이 비밀로 여기는 남자친구와의 정서적, 성적 경험을 귀동냥하듯 듣고 때로는 사귄 것을 종용하는 압력을 느끼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연애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연애 경험 여부가 연애를 중심으로 한 또래 집단에 속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애 경험 여부는 자기 자신을 남들과 차별화하는 기제가 될 뿐 아니라 집단적인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2. 집단적인 성 지식의 획득

전술하였듯 글로벌화되는 소비 대중 문화의 넘쳐나는 성적 이미지는 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되는 조건들을 벗어나고 싶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수용된다 그런데 이 때 이러한 해석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맥락에서 의미화하는 또래 집단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보다 일상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고히 가지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미혼 여성의 성적 실천에 일탈이외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언어가 부재하고 부모의 혼전 순결에 대한 강조는 여전하기에 이들이 연애 관계에서 성적 실천을 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 이 때 알음알음으로 전해들은 친구들의 경험담은 성경험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는데 큰 역할⁴⁶⁾을 한다 주위 친구

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연애하기 전에 주위에서 연애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음 근데 연애를 하면서 애들 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못 하는 거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만나는 거랑 대학교 때 만나는 거 스킨십 이런 거, 다르잖아요 또 이것을 남자친구 없는 애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성에 대해서는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딱 세 명이 있었는데 나랑 셋이 친한데 들은 항상 남자친구가 있어요 1, 2학년 때부터 남자친구 있고 이랬었는데 몇 번 바뀌기도 했고 이랬는데 개네가 나중에 나 남자친구 사귀고 그런[성에 관한] 얘기할 때 진짜 그 얘기 너랑 너무 하고 싶었다고. 그 전에는 나 빼고 들이 그런 얘기,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했었다 .나는 사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라고 생각은 많이 해 왔는데 막상 또 닥치니까 그렇게 좀 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땀에 막 애들한테 얘기하고 그럴 때 상담을 하고 그러다가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웃음) (친구들한테 얘기 듣는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도 웬지 현실엔 그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변 애들 나랑 비슷한 애들 다 이렇구나 이런 동질감 같은 거 느끼고 여자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속된 말로 재네 잤나? 막 그런 식으로 그거를 선뜻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먼저 말하기 전에는 내가 그걸 하기 전에는, 오빠랑 만날 때 그렇게 하면은 다른 애들이 막 이렇게 순결을 지키고 나만 혼자 그랬으면 나만 혼자 이

46) 성에 관한 여대생 또래 집단의 변화를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례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우리 과에 내가, 어떤 언니가 있었냐면은 85학번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수석으로 들어왔어 굉장히 똑똑한 언닌데 그 언니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남자친구랑 술 먹고 여관 들어가는 거를 우리과 그 같은 85학번 언니들이 본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과에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언니가 나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 언니들이 막 그런 식인 거야 너 개가 어떤 앤지 아냐, 왜요 그러면은 개 굉장히 사생활이 드러운 애다, 문란한 애다 왜요 그랬더니 개 남자랑 자고 다니는 애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사람들 그러니까 언니들끼리 막 이렇게 놀다가 나오는데 남자랑 뭐 그런 거를 잤대 애가 사생활이 안 좋다, 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남자랑 그런다는 얘길 들은 거는 그게 딱 한 번이었어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 언니를 이렇게 안 끼워줬어요 따돌리고 항상 시험 대 되면 언니가 막 장소를 몰라갔고 내가 도와주고 해 갔고 그 언니가 되게 고마워하고 이랬거든 ” (사례 1)

1980년대의 성문화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성에 관한 여대생 또래 집단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현실로 보인다 위의 진술에서는 여성들 스스로의 성적 통제가 또래 집단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1에 의하면 당시에는 키스 정도가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였고 그 이상은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사례 2 또한 운동권의 동거 문화가 존재했으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고 진술했다

상한 애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애들 얘기 듣고 그러면 아니었어요
(사례 C)

사례 C는 지금은 주위 친구들로부터 ‘프리섹스주의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성에 관한 많은 이미지와 얘기들을 접하고 자신은 개방적인 사람일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연애에서 직접 경험한 첫 성경험은 스스로에게 내면화된 순결 의식과 상대 남성의 요구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것이었다 이는 여성들이 성적 경험의 유무로 구분되어지는 현실이 여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은 여전히 여성 범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자신만 순결하지 않은 ‘튀는 애’가 아니고 모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 그녀가 경험하게 된 연애 관계에서의 성적 실천과 이후의 여러 경험들은 자신이 몸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자유로움이 되기도 하고, 사랑 없는 성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사례는 말이 통하는 또래 집단을 만나면서 성이 인간관계를 새롭게 조직하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힘으로 경험한다 동시에 그녀는 여성의 성이 의미하는 공식과 비공식의 간극을 잘 알게 된다

연애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은 우리 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성이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적으로는 결혼과 이성애 핵가족 내에서 통제되는 재생산의 성 담론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젊은 세대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성은 다양한 인간관계(relationship)⁴⁷⁾와 친밀성, 쾌락이라는 담론에 더 가깝다. 그러나 미혼 여성의 성적 실천에 대해 여전히 결혼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도덕적 시선에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는 대중매체와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 중에서도 또래 친구들의 경험담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과정을 거친 경험담이라는 점에서 유용한 실전 지침서가 된다.

47) 관계(relationship)라는 용어는 1960년대 미국에서 도시에 집중된 독신인구들이 나름의 생활방식을 형성하면서 일상적 언어가 되었다 이는 결혼과 연애 둘 다를 언급하는 말로서 소비를 통한 독신문화와 정체성의 창출과 맞물려 형성되었다 조은·조주현·김은실(2002, 36-37) 한국 사회에서 여대생들이 경험하는 연애를 포함한 새로운 인간관계와 성적 체험은 전술하였듯 소비 대중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활양식 및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관계, 인간관계, 관계맺음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변화를 함의하는 뜻으로 쓰인다

저희들은 거의 성인클럽이라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 그니까, 모든 것 (경험을 자세하게 서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 창피해요. (웃음) 뭐가 좋대더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은 콘돔 쓰는 거 말지 이런 것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젠 성교육이다 (그렇구나 그러면 별로 결혼 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전혀 없죠. (보통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얼마 전에 설문조사 이메일이 와서 봤는데 뭐 대학생 여학생 성경험 열 명 중에 네 명 이랬는데 저 그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제 주변에는, 연애를 하면은 99.9999퍼센트거든요 (근데 어째서 열 명 중에 네 명 밖에 안 된단 말인가?) 예예 이거는 설문조사할 때 거짓말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주위에 이상한 애들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거의 다) 예 한 명은 안 사귀니까 빼고 아, 그리고 지금 후배 하나 99학번 후배 하나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는데 지금 휴가 나왔거든요 근데 막 인제 생리를 오늘, 내일 시작할 거 같은 거예요 앤 아직 안 했거든요 천일이 넘었는데 안 했다고 우리가 맨날 구박하고 이래요 근데 애들이 가서 콘돔을 꼭(!) 쥐어주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나오면 바로 가라. (웃음) 딱 좋다구 (어, 그런 정도예요?) 민망해요 (그 경험들을 얘기할 때 대체로 서로 좋았던 경험들이 있나봐요.) 뭐 좋았던 경험도 얘기하고 싫었던 얘기도 하고, 그럼 그런 얘기 해 주면 그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해 주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되게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네요.) 네 근데 이거를 각자의 남자친구들이 알면 싫어하겠죠 (사례 B)

연애 관계에서의 피임 문제나 쾌락에 대한 협상은 ‘콘돔을 쓰면 된다’는 기계적인 성교육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점점 다양해지는 관계들과 성적 실천은 이 문제에 대한 만능의 해결책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또래 친구들의 구체적인 경험담과 조언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종의 성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래 집단에서의 자세한 성 이야기는 성교육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래 친구들과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성 지식과 연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는 이들이 연애와 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을 또래 집단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즉 이러한 또래 문화에서 여성들은 남성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언어를 집단적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B의 진술에서 선배 언니들에게 구체적인 성경험에 대한 이야기와 콘돔까지 건네 받은 후배 여성이 이러한 지식을 모르는 여성보다 훨씬 구체적인 각본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과 피임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례 B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성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남성들을 위협하는 지식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남자친구들이 알면 싫어할 것'이라는 얘기는 남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상대 여성이 자신이 짐작할 수 없는 공간에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경험 유무로 여성 범주를 구성하는 우리 사회의 공식적 성담론과 또래 문화에서 만들어가는 비공식적 성담론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여성들과 없는 여성들의 차이도 심화된다

우리가 들으면 좀 웃기죠. 무슨 어, 저게 연애라고 저것도 연애라고, 저 재미없는 연애를 (뭐 어떻게 하길래 그래요?) 그 맨날 그런 거 있죠 영적인 얘기만 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손 한 번 잡은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들으면 하품나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저러나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저할 짓 다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너무 순진한 애들 (사례 H)

사례 H의 이야기에서 성적인 욕망에 대한 추구를 당연시한다고 해서 '앞선' 사람이 아닌 시대에 아직도 손 한 번 잡는 걸 큰 일로 여기는 친구들은 '뒤쳐진' 사람이 된다⁴⁸⁾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성적으로 '순진한' 친구들은 덜 성숙한 인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성에 관한 다양한 취향과 생각, 실천들이 존중받기보다 성경험 여부와 횟수의 여부로 위계적인 질서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애와 성담론의 대중화 속에서 여성들이 욕망하게 되는 연애와 성은 일정한 형태로 표준화된다는 또한 이를 집단의 이야깃거리로 만드는 또래 문화 속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의 여대생들이 집단적으로 성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서로 비교하며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규정되는 여성의 성을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힘으로 의미화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48) 사례 H 자신은 두 번의 연애를 경험했지만 아직 삽입성교 경험은 없었다 그 이유는 두 번 다 사귀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지 절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삽입성교 외의 접촉은 자연스럽게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례는 결혼 전 연애 관계에서 성경험 자체를 터부시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며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IV. 연애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일상과 인간관계를 스스로의 의지로 기획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삶의 변화 속에서 연애라는 정서적 관계는 소비 대중 문화와 또래 집단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하는 지식의 일종이 된다. 이러한 연애 관계에 대한 여대생들의 욕망은 연애를 산업화하는 소비 문화와 만나면서 보다 본격적인 프로젝트적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된다.

새로운 욕망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 문화의 논리는 연애 관계 또한 세분화된 단계를 밟아 가는 새로운 이벤트의 연속으로 만든다. 연애 관계는 로맨스를 매뉴얼로 하여 기획되고 연출되는 연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애에서 요구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변화가 관찰된다. 또한 이러한 연애 관계에서 여성들이 획득하는 통제권과 지식의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주체성을 가능하게 한다.

본 장에서는 연애 산업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분화된 과정으로서의 연애와 성관계, 이들이 연애 관계에서 욕망하게 되는 성별성의 변화의 의미와 이를 통해 이들이 획득하게 되는 새로운 자아정체성의 의미를 살펴본다.

A. 산업화/이벤트화되는 연애 과정

1. 연애 매뉴얼로서의 로맨스

연인들의 선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관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소비 문화는 연인 사이의 선물 교환의 장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다른 인간관계와 비교되는 특별한 관계로 의미화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로 떠오르면서 ‘커플 문화’⁴⁹⁾를 만

49)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커플’이라는 용어는 신혼 부부나 결혼을 앞둔 연인을 뜻했다 (“비용 적게 들고 편하다, 알뜰커플에 인기/신혼열차” 『세계일보』 1992년 3월 29일자) 1990년대 초반 커플링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전형적인 결혼 반지의 디자인 대신 똑같은 모양의 반지를 결혼반지로 맞추는 것을 의미했다 (“예물반지, 우리는 영원, 남녀 커플링 인기” 『경향신문』 1994년 3월 14일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은 연인들의 기념일 챙기기는 국적 불명의 날의 사랑의 기념일로 챙기며 소비를 하는 젊은이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백화점 밸런타인 데이 상혼 극성” “밸런타인 소동 왜 이러나.” 『국민일보』 1992년 2월 10일자, “밸런타인 데이가 무엇이길래” 『대한매일신문』 1993년 2월 13일자.)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매체들은 이미 밸런타인 데이를 위시한 연인들의 기념일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명절’로 자리잡았음을 인정(“초콜릿보다

들어 내고 있다. 연애는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의 만남이나 결혼을 위한 자원 교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소비 문화의 틀 속에서 프로젝트적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연애는 민주화되고 대중화⁵⁰⁾된다

TV에서 커플들 설문조사하고, 남자친구가 요럴 때 싫다. 여자친구가 요럴 때 싫다 이런 거 물어 보고, 둘이서 어디서 데이트하세요 이러면서 커플들을 되게 많이 잡잖아요 뭐 맨날 둘이서 데이트하는 거 딱 잡아놓고 남자친구가 어디가 좋아요 여자친구가 어디가 싫어요 그런 거 보지 솔로한테 뭐 하세요 이런 거 질 안 묻고, 지나가다 보면 커플 반지, 커플 티, 커플 뭐, 뭐 커플링 맞추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이래서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밖에서 되게 그런 거 조장하는 거 같아요 (웃음) (스스로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 거 같아요?) 그게 되게 주라고 생각되는 거죠. 내가 좀 열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애들이 되게 커플링 같은 거 맞추고 싶어하잖아요 제 친구도 연애 안 하는데, 저랑 같이 가서 귀고리 딱 이런 거 사러 가면 커플링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다 이런 거 저번에는 막 가는데 막 뭐 커플끼리 오시면 5%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커플 없는 것도 서러운데 왜 누구는 할인해 주고 왜 나는 할인 안 해 주는 거야 (웃음) (아무하고나 가서 그냥 커플이라고 속이면 되잖아.) 뭐, 거기 뭐 뽀뽀 할 수 있는 남녀여야 된다던데 (사례 O)

연애 경험이 없는 사례 O는 연애를 하고 싶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연애에 관한 소비 상품들과 이벤트의 영향을 든다 기념일에 서로 무슨 선물을 했고 어디 가서 놀았는지를 자랑하는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는 연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연애가 여성들에게 인간적인 의지와 또래 친구들과의

더 달콤한 고백” 『한국일보』 2000년 2월 10일자., “놀이공원, 호텔 밸런타인 데이 행사 풍성” 『세계일보』 2000년 2월 10일자)하면서 결혼과의 연관이 아닌 연애 관계의 두 당사자를 커플이라고 명명하고 소비와 결합된 각종 이벤트를 ‘커플 문화’로 소개하기 시작한다

- 50) 이제 연애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성 뿐 아니라 동성간에도 특정한 규칙에 합의하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그것은 ‘연애’라고 불리워진다 실제로 연구자는 몇몇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연애를 연구하면서 왜 동성간의 연애는 포함하지 않는가’라는 질문과 ‘이성과만 연애를 해 보았지만 동성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주위에 동성친구들이 연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 계획과 관련된 진술에서 동성과의 연애 가능성에 관한 진술은 부정되거나 축소되었다. 이런 지점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연애는 결혼과 별개의 기획이 되고 있는 상황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점점 확산되는 듯한 동성애에 대한 관용은 이성애 결혼과 가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수준까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관계 유지, 여성성의 인정 등을 의미하는 중요한 관계임을 부인하고 오로지 소비만이 관계를 유지하는 틀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상적 소비 문화의 틀 속에서 연애 관계가 규정된다는 것은 이러한 정서들이 소비 상품이 위치하는 사회 관계의 질서를 통해서 표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연애 관계에서 소비와 정서는 분리되지 않는다.⁵¹⁾

이러한 연애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관계의 과정과 내용을 의미하는 소비적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이 중요해진다. 연애는 일상이라기보다 팬터지(fantasy)를 기반으로 한 계획과 이를 채워줄 특정 상품들로 구성되는 ‘일상 속의 사건’이 된다. 그런데 이 때 연애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로맨스 팬터지는 여성들이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배운 ‘백마 탄 왕자’와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연애, 결혼의 순탄한 과정 그 자체가 아니다. 여기서 팬터지는 관계의 각 과정과 발전단계, 단계마다의 적절한 행동과 감정 상태를 지시하는 게임의 규칙과 같은 것이 되고 있다. 따라서 로맨스 소설을 읽고 로맨스적 공상을 한다는 것과 연애 관계를 운용하는 하나의 규칙으로서 로맨스를 활용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연애를 하는 여대생들에게 로맨스는 연애를 중심으로 한 일상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지시하며 기획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이 된다.

기본적으로 주위에서 확, 여자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사겨야 된다 그런 애기도 있고, 제가 애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어보는 거니까 고백 이런 것도 처음 듣고 (웃음) 사겨보자, 사겼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음, 왜?) 사귀는데 마음은 애한테 안 가요 이성적으로 마음이 안 가요, 좋은 친구긴 한데 그래서 애가 밥을 먹자구 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같이 먹으면 없힐 것 같고, 할 말도 없을 것 같구 그래갖구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걸 한 삼 개월 정도 피했어요 진짜루 (사귀자고 딱 해 놓고서도?) 음, 사귀자고 하면서도 사귀는 거 같지 않게 사겼어요 정말로 그니까 제가 워낙 스킨십을 좋아하고 손 잡고 같이 다니고 그런 거는 하는데, 따로 만나자고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지 않으면 전 싫다 그랬어요 (단들이 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 예 너무 싫었어요, 그 때는.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기

51) 보드리야르(1991)는 후기 자본주의의 소비는 물질적 풍요의 향유나 재화의 사용가치에 따른 합목적적 소비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소비 문화에서 소비하고 싶다는 욕구와 실천은 생산력의 조직적인 확대가 개인의 사적 영역(감정, 충동, 욕구 등)을 생산력으로 남김없이 통합하는 것에 의해 가능한 현상이다. 이제 소비 욕구는 개인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남들과 차별화하라는 소비 사회의 사회적인 논리에 의해 생산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사물을 자신을 타인과 구별짓는 기호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한다. 한국 사회에서 ‘킥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연애의 산업화 또한 연애 관계에서의 정서적인 욕구와 소비를 통합시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선배 오빠가 전화를 해서 지금 자냐구 창문 쪽으로 나와 보라 그래서 갔더니, 어 이렇게 하트로 불을 만들어 놓구서, 아 동기들하고 오빠들하고 서 있는데, 노래 불러주고 막. (진짜?) 예 노래 불러주고, OO야 사랑해 막 이러구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움직이더라구요 나도 재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례 K)

연애가 가벼운 데이트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의 놀이 문화를 의미하게 되면서 사귀어보는 것 자체는 심각한 관계나 계획을 의미하지 않아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때 로맨스 팬터지를 기반으로 한 각종 기념일의 이벤트 및 선물 교환은 관계의 발전 단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사례 K의 경우 자신을 좋아한다는 과 동기와 사귀어보는 마음은 쉽게 먹을 수 있었고 연애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도록 기대되는 ‘손 잡고 다니는 정도의 스킨쉽’은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밥도 같이 못 먹을 정도로 별 마음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후 과 사람들을 동원한 낭만적인 사랑 고백 이벤트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으로 진술한다. 이러한 이벤트가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례 C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스타일이 들지 않아 사귀는 게 억울할 정도였지만 친구들이 모두 연애를 하는데 자신만 경험이 없다는 생각에서 관계를 깨지 않는다 이 때 남자친구의 정성스러운 기념일 선물은 그의 애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감동과 관계 유지의 확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관계 초반의 남성의 소비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열정적 애정을 의미화하는 하나의 기호로 인정된다. 물론 부가 남성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의 소유 그 자체라기보다 얼마나 특정한 연애 매뉴얼에 맞추어 스타일 있게 소비할 수 있는가 이다 그러자면 남성들이 그저 돈을 많이 가지고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남성들 또한 로맨스 팬터지를 기반으로 한 연애 관계의 매뉴얼을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매뉴얼은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긴 해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도덕률은 아니다. 매뉴얼은 사용자의 규칙 변용 가능성을 허용하면서 한 가지 매뉴얼을 가진 게임을 할 때마다 새롭고 다른 것으로 만든다. 여성들은 로맨스 매뉴얼의 이 같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계맺음의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냥 미팅 같은 거는 정말, 저는 미팅이 정말 해 보고 싶었어요 (왜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대학가면 필수관문 같잖아요. 친구 소개받는 생각으로 나왔죠. 그니까 꼭 사귄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우리 과 애들 말고 딴 과 애들 만나기가, 전 동아리를 안 하니까 없잖아요. 딴 과 애들도 아니까 오, 이래서 좋은 점도 있구나.. 미팅 나가서는 여자 남자 비슷하게 내고 소개팅 나가면 남자가 다 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전 소개팅 나가서도 제가 꼬박꼬박 돈 내고 남자가 다 내게 하면 아무래도 소개팅이라는 게 사귄 걸 전제로 하고 보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들어보면은 아, 니가 개 관심없어 했대매 이런 얘기 들려요 (사례 Q)

물론 남녀가 사귀는 관계가 되기 위한 첫 관문에서 남성이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로맨스에 기반한 규칙은 여성의 의존을 보여주는 이성애 연애의 불평등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이 규칙이 남성과 친구라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규칙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구를 소개받는다는 생각으로 미팅과 소개팅에 나가는 사례 Q는 남녀로 사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돈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이 사례에게 미팅과 소개팅은 남성을 만나면서 가벼운 성적 긴장을 맛보고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는 실리적인 이유로 선호되며 이 때 로맨스의 규칙은 재해석되어 적용된다. 이 사례는 소개팅에 나온 남성들의 감정을 이미 알고 있고 이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규칙을 변형시키고 있다.

통화도 되게 많이 하고 저번에 전화비 43만원 (어? 진짜?) 그래갔구 지금 25만원은 일단 채워놨는데 일단 내구서 나중에 미납금액하고 이번 달 핸드폰 요금은 카드 결제 할려고 (대단한 정열이네요.) 그니까 제가 생각해도 인제 남자한테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루 우리 엄마가 알면 아마 날 죽일려고 그럴 거예요. (연애하면 정말 돈 많이 쓰지 않아요?) 진짜루(!) 그니까 만약에 애랑 사귀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돈 백은 모았을 거 같아요. 돈을 버는 족족 다 쓰니까 말렌타인 데이에는 5만원어 친구를 다 초콜렛만 샀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거 가입해 갔구 그런 선물 포장하는 방법 다 알아가지고 초코파이 한약 처럼 다 싸고 그렇게 꽤 크게 보냈어요 (사례 K)

관계의 초반에는 남성이 주로 돈을 쓴다면 관계가 진행되어갈수록 여성들의 소비가 늘어난다. 남성의 열정적인 애정과 적극적인 구애에 대한 여성의 답례라는

성별화된 패턴의 로맨스 각본은 여기에서도 규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례 K와 같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기념일 챙기기는 상대방을 위한 애정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사업이기도 하다. 즉 연애 관계에서의 이 같은 소비적 프로젝트는 여성들의 자기 표현과 성취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벤트와 선물 준비 후 ‘뿌듯함’을 느낀다는 연구대상자들의 진술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연애 관계가 유동적이면서도 세분화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소비 프로젝트에 통합되어갈수록 알아야 할 규칙들과 협상해야 할 상황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순수함이라는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연애 경험 없는 사람보다는 많이 해 본 사람이 잘 알고, 잘 하고 그런데요. 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노래에서도 나오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진짜 딱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례 B)

전 안 그래봤는데 연애 안 해 본 제 친구는 어떤 남자 소개팅에서 만나두, 옛날에 연애 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자존심 상해서 했는데 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해 보지 않았지만) 예. 안 해 봤는데 헤어졌죠. 딱 요렇게 얘기한대요. (소개팅 자리에서 연애를 안 해 봤다고 얘기하는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당연하다는 높은 톤으로] (은근히 연애 안 해 본 여자 좋아하고 이러지 않나보네?) 그러면 애들이 아, 애가 뭐가 모자라서 연애를 못 해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애가 성격적 결함이 있거나. (사례 O)

연애가 기술과 협상의 연속인 유동적인 과정이 되면서 연애 경험 없음은 ‘순진함’이 아니라 ‘무지함’을 표상하게 된다. 미혼의 여대생이 ‘남자와 관련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한 장점으로 여겨지기보다 ‘경험이 없었으니 관계에 관한 지식이 없고 따라서 무지하며 사귀기에 부담스럽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연애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순진한 척’ 하는 연기가 아니라 ‘경험이 있는 척’ 하는 연기를 해야 한다. 이런 문화에서 연애 관계는 이제 자연스러운 로맨스의 발생으로 시작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배우고 습득해야 할 관계의 기술이며 처리해야 할 작업⁵²⁾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런데 이런 소비적인 연애 각본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해도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연애 경험이 없는 사례들은 연애하는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소비적인 놀이로서의 연애의 성격을 파악하게 된다

서로 좋아하는 건 정말 좋은데, 서로 좋아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연애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정말 연애를 위해서 연애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지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이랑 사귀고 이러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가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개를 보고 있으면 뭐 연애라는 게 그런 식의 또 다른 취미생활일 순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저의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 때 연애를 하고 싶거든요 서로 그렇게 열정이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다 보면은 만나면 뭐 해야 되나를 고민하잖아요 영화는 어제 봤고, 어디 가자니 돈이 없고, 연애라는 게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건데 만나면 돈 걱정을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은 돈을 안 쓰면 되는 거지, 같이 그냥 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영화를 꼭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그렇게 확실적으로 애들이 연애를 하는 거 같아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안 좋거든요 (사례 M)

소비적인 놀이로서의 연애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례 M 뿐만이 아니다 연애 경험이 없는 사례들은 대부분 사례 M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그러한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차별화의 의지를 내비친다 반면 연애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들 중에서는 의식적으로 연애와 소비 문화와의 관련성을 물어보지 않는 한 이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저항하는 사례를 찾기가 드물었다.

그러나 점점 산업화되는 연애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연애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M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상대’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정서적 일체감을 누릴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례 M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연애를 못 하는 것 같다는 자기 분석을 하고 있었다 즉 로맨스가 일종의 게임의 규칙이고 이 규칙을 얼마나 잘 지식화하여 운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는 문화에서 실제의 연애 관계는 정서적 관계에 대한 바람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들은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52) 실제로 젊은 세대는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 상대방을 알아가고 자신을 알리는 일을 ‘작업 들어갔다’라고 표현한다

2. 연애 과정의 이벤트로서의 성(性)

남녀관계에서 성은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혼 전의 남녀관계에서 성적 실천이 일반화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최근의 현상이다 즉 성이 결혼과 가족 구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재생산의 맥락에서 관계맺음의 한 방식이며 욕망과 쾌락의 맥락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다 전술하였듯 소비 대중 문화의 연애와 성 관련 이미지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를 전 세대와의 구별짓기로 언어화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관심을 가지는 또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이제 성을 연애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자기는 그런 면에서 어때요? 처음에 뭐 연애를 하고 싶다고 했던 기대 중에 성관계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거예요?) 예 (웃음) (어떤 기대였어요?) 음, 흔히 뭐 애들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 전에?) 예 왜 첫 키스나 이런 것 그리고 항상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나 혼전순결주의자도 아닌데 왜 아직도 처녀나 이런 것도 화나고 막 이랬었어요 (웃음) (그랬었어요?) 그랬죠. 그래도 좀 처음인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 좋았어요?) 처음엔 별로, 고기맛도 맛을 본 놈이 안다고 (웃음) 그리고 나서 점점 좋아지더라구요 (아, 점점 좋아졌어요?) 아아, 그리고 지금도 막 완전히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아직 그 이렇게 무궁무진한 발전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점점 좋아진 걸 보니까 (사례 B)

(자기는 그 사람하고 성관계 갖고 이런 게 어떤 의미였어?) 음, 처음에는 별 의미 없었는데 그냥 좋아했던 거지 그런데 나중에는 되게 친밀감, 그리고 되게 좋았어, 나두. 섹스하는 게 되게 즐거웠던 거야 신났었고 재밌었고 좋았고 음, 그랬던 거 같아 섹스를 하는 게 싫지 않았거든? 그 사람하고 섹스를 하는 게 즐거웠어 그리고 충분히 이 사람한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계속 요구했던 거 같거든?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즐겁고, 니가 나한테 해 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같애 충분히 나도 즐거웠고, 이 사람도 즐거웠고 (사례 D)

본 연구에서 연애 관계에서의 성경험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진술은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에게서 발견되었다 물론 공식적인 성담론은 여전히 미혼 여성

의 성적 실천에 대해 일탈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적인 이미지들에 둘러싸여 그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통해 성적인 욕망에 대해 긍정성을 부여하면서 자라난 젊은 여성들에게 연애에서의 성적 실천은 사랑과 결혼의 의미이기보다 쾌락과 자아 표현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은 이제 선물 교환과 더불어 현재의 관계가 두 당사자에게 의미하는 정도를 지시하는 일종의 이벤트가 되는 방식으로 연애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성경험은 아예 거부되거나 전적으로 수용되는 것이기보다 단계마다 관계의 친밀 정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처음에는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몸 서로 만지고,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엄마한테 들었던 금기는 아니잖아요 너 남자 사겨도 키스하지 마 이런 건 아니고 서로 몸 가까이 하고 만지만 안 돼 이런 말 한 거는 아니고, 자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 그런 얘기 직접 하셨어요?) 지금도 하세요, 순결지상주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엄마가 맨날 감시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거의 스킨십을 하면서 절정을, 진행될 만큼 진행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된 상태에서 이제 성관계가 된 거예요 (사례 E)

연애 관계에서의 성경험이 남성의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와 여성의 의사 표현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는 여성의 의사 표현 방식이다. 연애 관계에서 키스와 애무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하는 변화 속에서 여성들은 ‘안 돼’가 아니라 ‘조금만 덜’ 혹은 ‘조금만 더’라는 의사 표현 방식으로 성경험의 과정을 밟아나간다 임신의 위험과 처녀성의 상실을 뜻하는 삽입 성교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의미화되며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완전한 금기는 아니다.⁵³⁾ 성경험이 있는 사례들은 모두 삽입 성교를 경험하였다. 여기에서도 변화는 두드러지는데 이들 중 아무도 삽입 성교 경험 때문에 연애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이후 다른 연애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처럼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실천은 필수적인 유희의 과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경험을 하는 이유도 달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53) 연애 경험이 있는 12사례 중 2사례가 삽입 성교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들은 키스와 포옹 정도의 성경험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귄 기간이 짧아서(사례 H), 임신이 걱정되어서(사례 I) 등의 이유로 삽입 성교는 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또한 결혼 전 삽입 성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첫 번째 남자친구랑은 그렇게 별로 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고개를 저음) (그 때도 연애해서 잘 수 있지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도 그래요?) 예 좀 이렇게 생긴 것도 별로구요 (웃음) 애가 좋긴 좋은데 근데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개랑은, 손 잡고 다니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진짜 되게 착한 애였어요, 개는, 언성을 높일 줄 모르고 남한테 나쁜 짓 못 하는 애 있죠 자기가 손해 보면 손해 봤지 남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사례 J)

면접 당시 세 번째 연애를 하고 있었던 사례 J는 첫 번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남자친구의 외모와 스타일에서 찾는다. 고등학교 시절 호주에 1년 교환학생을 갔다오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외국어 공부를 위해 방학 때마다 외국 현지에서 자원 봉사를 했던 사례 J에게 성은 그렇게 특이한 것도 억압된 것도 아니었다. 연애를 하면서 당연히 성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첫 번째 남자와 자지 않은 이유는 그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자신을 쫓아다니는 남자와 가벼운 연애 정도는 가능하지만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잘 이유까지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 말은 그의 스타일이 괜찮았으면 같이 잘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애기와 통한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미혼의 여성이 성경험을 가지는 마지노선으로 용인되는 ‘사랑’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연애 자체가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관계이기보다 외모와 스타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며 그 때부터 서로에 대해 알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험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기준으로 일어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사랑과 성과 결혼을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다.

(연애하는 데 있어서 둘이 성관계를 갖고 그런 거는 좀 어떤 의미인 거 같아요?) 뭐, 워낙 저는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이렇게 마음 맞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 맞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로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되게 많이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고) 음 (뭔가 더 이해하는 것 같고 그런 거요?) 이해보다는, 더 기쁨을 (웃음) (기쁨을?)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례 C)

물론 많은 여성들은 ‘사랑’을 성경험의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여

기서 여성들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낙태를 중심으로 미혼 여성의 성적 실천을 연구한 이숙경(1993)은 미혼 여성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혼전의 성관계를 수용하는데 이 때 성관계가 ‘보다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서 결혼을 바라는 마음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사랑’은 선택가능한 성행위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았던 혼전 성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후의 교제를 결혼으로 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혼전의 성적 실천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 사랑, 성, 결혼이 연결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각본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 C의 진술에서 사랑은 혼전 성관계와 그로 인한 결혼의 정당화로 이어지는 감정의 기준이 아니다 여기서 사랑은 오히려 성관계의 기쁨, 즉 쾌락적인 측면의 다른 표현이다 이 사례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맞기가 어렵다는 것, 즉 연애 관계는 끊임없이 규칙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성관계는 서로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면서 이러한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부상한다 즉 이 사례는 사랑으로 성관계를 수용한다기보다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사랑으로 의미화⁵⁴⁾한다 이런 방식으로 성과 사랑을 연결시켜 표현하는 진술은 본 연구의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발견되었다.

애랑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던 차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둘이 키스를 하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이후 사이가 급속도로 막 발전을 했다고, 처음에는 밥도 같이 못 먹었는데. 그니까 그게 좋은, 강제적이거나 서로의 그런 합의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지만 그런 필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면은 서로한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는 거는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거 같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 경험에서는 합의를 하고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진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아마 서로 이렇게 차차 좋아지는 과정에서, 과정인데 뭔가가 어색했겠죠 자기 마음을 못 알아차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인제 하고 나서 그게 무너졌다고 해야 하나 서로 사이에 쌓였던 답이라 그래야 되나, 벽이라 그래야 되

54) 최원영(200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이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 미혼의 여대생들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성이 필요한 것인지, 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것인지 혼돈될 정도로 성이 연애를 결정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p 44)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녀는 이 때의 여성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나, 그런 게 무너졌다 확실히 그것도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전에는 저도 손만 잡았지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단 자면은 서로 허리 감고, 어깨동무하고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쉽더라고요 (사례 K)

성경험 이후에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서’ 연애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례 K의 친구(사례 L)의 예는 오늘날 여대생들이 연애 관계에서 경험하는 성이 ‘사랑해서 수용하는’ 것이기보다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사회 관계로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녀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저 가볍게 만난 만남에서 성을 경험하면서 이 만남을 지속적인 연애 관계로 재구성한다 진술의 방식과 이후 연애 관계를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볼 때 이는 성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귄 수 밖에 없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의도한 것은 성적인 쾌락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연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적인 호기심과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천해 보기는 어려운 미혼의 여대생들에게 연애 관계가 비교적 안전하고 협상이 가능한 성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지 결혼 전에 성을 경험한다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성이 쾌락의 맥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성을 쾌락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의무로서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 재생산을 위해 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과 상대방과의 협상에 의해 가지는 성경험은 이들의 자아 인식을 다른 맥락으로 이동시킨다.

(성에 대한 경험 같은 거는 어땠어요?) 아, 근데 너무 실망이라고 (아, 실망했어요?) 예 (왜요?) 음, 저는 그게[성경험이] 원래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꿔 놓은 만큼 그렇게 잘 하는, 잘 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던 데다가, 그게 막 물리적으로 좋지도 않았고 하는 분위기도 싫었고 하여간 되게 할 일이 없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연애에 대한 기대나 호기심 중에 성경험에 대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예 아주 기대 만뽕이었는데 (같이 웃음) (그랬구나) 근데 저는 그걸, 그 사람한테 전혀 감동받지 못 했고 어느 날은 기분이 좋으면 좋고 애도 좋고 막 그럴 때는 좋은데 아닌 경우는 근데 저의 느낌이 그렇게 또 싫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건 참, 그걸 생각하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던 거거나) 그건 아닌데, 그 개가 좀 뭔가 어 연출하는 거 같은 느낌은 있었고, 별

로 예뻐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그게 막 뭐 사무치게 막 너무 후회스럽거나 그렇게
떨진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구요. (사례 F)

사례 F가 좋지 않았던 성경험을 진술하는 데 순결이나 결혼, 이후 다른 연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나타나지 않는다. 좋지 않았던 성경험은 상대방
남성의 연출에 대한 불만과 당시에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는 실망에서 비롯된다 이제 성관계의 맥락은 미혼
여성으로서 금기를 깬다는 죄의식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하도록
자신을 방치해 둔 데 대한 수치심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금기를 깬다는 죄의식
은 자신을 초월한 외부의 도덕을 어긴 것에 대한 심리이다. 반면에 수치심은 절대
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기보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기
대 수준 즉 일관성 있는 자아정체성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기든스 1997, 125-134)
이다 즉 좋지 않은 성경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미혼의 여성인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과 방식으로 경험을 할 수 없
었음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연애 프로젝트에서의 이벤트가 되는 성을 경험함으로써
여성들은 육체적 쾌락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성이 쾌락일
수 있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끊임
없이 되묻게 된다는 것을 의미⁵⁵⁾한다 즉 성을 통해 자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아를 규정하고, 훈련하는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성경험 여부로 존재를 규정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이 자아 인식과의 관련에서 중요성을 가지게 된 여성들의 변화
는 남성들에게 동일한 것으로 체험되지 않는다. 남성들에게 여성들의 이 같은 변
화는 여성들 자신에게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요즘은 점점 대학생들, 여자애들이 남자랑 자 본 경험이 없다는 거는 정말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도 그러고 내 주변에도 그러고, 사귀는 여자들이랑
다 같이 자는데 같이 안 자본 여자애들 있겠냐 (그런 애기들은 누구랑 해요?) 남자애
들끼리는 서로 다 말하는데 여자애들은 말 안 하잖아요 (서로 어떤 애기들 하는데?)

55) 본 연구의 여대생들이 결혼과 관련하여 성을 고민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러나 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죄의식의 감정보다 우리 사회 여성의 성이 의미하
는 공식/비공식의 간극을 잘 알게 되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에 따라 간극을 넘나들어야 하는 전략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에 가깝다 이에
대해서는 V장에서 논의한다

그게 좀 치사하죠 (어, 얘기 좀 해 줘 봐요) 뭐, 심각하지 않아요 나 그냥 만난 지 얼마만에, 며칠 만에 잤다 그런 거 말하고, 서로 물어보고 (그러면 며칠 만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상 심각하게 얘기 안 해요 같이 잤다는 그런 사실이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해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잤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마침내 잤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됐는데, 어쩌다 성공했다 그런 거 (그럼 잘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런 경우도 있고 착한 애한테 왜 그런 짓을 했냐, 개는 안 그럴 거 같은데 니가 그렇게 만들어 놓 거 아니냐 .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쉽죠 남자들이 되게 이기적인 게 자기는 딴 여자애들하고 잤는데 나중에 자기가 결혼할 와이프는 다른 남자랑 하면 안 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사례 (다))

Holland, Ramazonoglu and Thomson(1996)은 영국 사회 소년 소녀들의 첫 성경험 양상 연구에서 성이 점점 순결과 최악이라는 도덕적 담론과 분리되고 있긴 하지만 처녀성과 그것의 ‘상실’에 의미에 대한 반응,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성별화되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체화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첫 이성에 삽입성교가 남성성의 완성으로 제도화된 성문화에서 찾는다 이러한 문화가 유지되는 한 더 어린 나이에 더 많은 성경험을 할 수 있다는 변화가 여성에게 해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례 (다)의 진술에서도 결혼 전 연애에서 여성들이 ‘잘 수 있게’ 된 것이 여성 스스로의 욕망과 주체화의 표현으로 여겨지고 존중되기보다 남성들이 시도해서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⁵⁶⁾을 알 수 있다 연애 관계에서의 남녀 갈등은 연애 관계를 의미화하는 문화적 자원 습득의 차이에서부터 성을 대하는 이 같은 태도의 차이에서 이미 예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56)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성에 관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담론 외에도 성적 자유주의 담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게시판 담론을 분석한 박정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성적 자유주의 담론은 첫째, 사회를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의 산물로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공유하고 둘째, 개인의 자유 중에서도 특히 성적인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성적 욕망과 자유는 삽입성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 남성중심성을 드러낸다

B. 연애 연행을 위해 연출되는 성별성

1. 스타일로 재구성되는 남성성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공부의 과중한 부담과 미성년이라는 나이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제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서 대학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수와의 공식적인 인간관계 외에도 선, 후배, 동기들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학에서 여대생들은 연애를 위한 관계만을 바라지는 않는다. 여성이 사적 존재로만 규정될 때는 남성과의 관계가 결혼을 위한 하나의 관계면 충분했고 많은 남성들과의 관계가 성적인 문란함의 이미지로 바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공적인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며 취업을 당연시하는 지금의 여대생들에게 연애만이 아닌 남성들과의 다양한 관계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남녀공학 간다고 그러면 좋은 남자친구 사귀는 거, 그러니까 애인이 아니라 친구, 되게 좋은 남자친구 그게 되게 욕심 나잖아요, 여대 다니면 왜 나는 여자랑만 친구고, 성별을 초월해서 되게 친한 남자친구도 갖고 싶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녀공학 다니는 애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친구가 되는 거는 남녀공학 다니든 여대든 그래서 그냥, 그래 뭐 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있는 친구 하나라도 잘 챙기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O)

여자대학을 다니는 사례 O는 입학 초기 많은 남자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대학에서 기대되는 남성들과의 인간관계에는 연애 뿐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선, 후배 관계도 포함되는데 여자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적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여성으로’ 인식되는 성적 긴장 관계 이외에 ‘성별을 초월하여’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공적 영역에 진입하게 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남성들과의 관계도 애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내기를 희망하게 된다. ‘여성’이라는 귀속적인 성적 특성으로만 취급받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의 친구, 동료, 선배, 후배 등 사회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교환이 가능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다.

이는 남성들과의 개별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관계망을 만들 수 있었던 삶의 조건에서 가능했던 이성애의 교환 구조가 변화를 맞이할 것임을 의미한다. 가장 이상적인 연애 상대자의 매력이 여성의 외모와 성적 매력,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었던 것은 이성애의 성별적 교환 구조를 보여준다 여성들은 ‘그의 여자’가 되어야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애와 결혼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또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특정한 조건 하의 여성들에게 연애 상대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결혼 가능성만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소비적인 놀이가 되어가고 있는 연애는 남성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욕망과 맞물려 ‘연애할 만한’ 남성성의 조건을 변화⁵⁷⁾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개나리 노래제 하는데 제가 동아리 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저희 순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OO오빠가 그 때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제비 같은 걸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데, 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는데 얼굴도 잘 생겼더라구요 (사례 B)

그 때는 사실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영어도 잘 하고 그래서요 왜냐면은 나는 영어권에 처음 나가고 이런 거였는데 오빠는 어렸을 때 살다왔대요 고등학교 때 3년인가 4년 살다 와 가지고 영어도 너무 잘 하고 이래서 (웃음) 근데 딱 돌아오니깐 이렇게 웬지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웃도 세련되게 못 입는 거 같고 그래서요 사실 그래서 깨고는 싫은데 다시 또 남자친구 없는 거는 싫고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때 되게 되게 억울했어요 (사례 C)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개는 (잘 생겼어요?) 딱 봤을 때 인제 처음 보는 자리가 사람들 한 스물 명 모여있는 자리였는데 개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구요. 뭔가 튀는 분위기 있잖아요 어디 갔다봐도 이렇게 분위기 상으로 좀 튀는 애예요 머리가 튼다든지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닌데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굉장히, 굉장히 쿨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멋도 부릴 줄 알고 (사례 H)

57) 이러한 해석이 지금의 연애 관계가 과거의 미혼 남녀의 사قم보다 반드시 더 평등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의 평등 정도라기보다 미혼 남녀의 사قم을 규정하는 문화적인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녀의 사قم에서 여성의 행위성이 규정되는 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여간 좀 얼마간 텅기다가 제가 한 한 달 있다가 그 때 이제 사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웃음) 스타일도 되게 제가 싫어하는, 이렇게 머리 길르고 막 머리 염색하고 머리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그래가지고 한 한 달 정도는 되게 싫었어요 (사례 L)

외모와 스타일이 좋아서 사귀고 싶어졌다는 진술이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귀는 게 억울할 정도였다는 진술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던 통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의 외모와 스타일이 ‘연애할 만한’ 남성성의 요소로서 중요성을 획득해 가고 있는 것이다.⁵⁸⁾

내재적 자아인 ‘성격’이 아니라 형성 가능한 외재적 자아인 ‘개성’을 중시하는 것은 소비 문화적인 도시의 삶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전략이다. 유웬(1996)에 의하면 산업사회는 사람들을 ‘유동적 개인들’(mobile individuals)로 변화시키고 낡은 위계와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는 익숙하고 내면화된 생존전략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내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자율성과 자유라는 유혹적인 가능성에 안착시킨다. 다양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스타일은 극적인 필수품이 된다. 즉 명백히 ‘적대적인’ 환경에 직면하여 스타일은 사람들에게 겉을 치장함으로써 내적 자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p 100-103).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거대한 사회적 시장 속에서 자신의 상품적 지위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마페줄리 1997, 49-50). 연애 관계가 이러한 문화에서 규정될 때 남성의 외모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반된 해석을 낳고 있다. 대중 문화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선호가 근육질의 마초 스타일 남성 연예인에서 어린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의 꽃미남 스타일 남성 연예인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일찌감치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연애하고 싶은 남자의 스타일도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은 여성 권력의 확대

58) 내 맘을 주고 싶은 남자 BEST 1

- 1 말 잘하고 유머 있는 남자-예전의 과묵함은 더 이상 멋이 아니다
- 2 잘생긴 남자(키 175 이상)-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꽃미남의 전성시대
- 3 옷 잘 입는 남자-깔끔하며 세련되게 옷을 입은 남자, 첫 만남의 기본이 되어있다고
- 4 편안하게 해 주는 남자-분위기를 잘 이끌며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면 당신은 짬!
- 5 매너 좋은 남자-예의와 매너는 별개라고, 기본매너가 살아야 미팅이 산다
- 6 돈 잘 쓰는 남자-가난한 고학번들이여 미리 미리 저축합시다
- 7 웃는데 예쁜 남자-자, 거울 보고 김치~

“봄은 ‘만남’의 계절-남녀 파트너 BEST & WORST.” 『대학 내일』 2003년 4월 20일자

와 남녀 모두의 해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남승희 2001)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외모가 중요한 정도의 성별적 차이를 무화시킬 정도는 되지 않으며(한설아 1998 89-98) 외모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외모주의를 여성들 또한 똑같이 답습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는 시각⁵⁹⁾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연애할 만한’ 남성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남성 외모와 스타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 고교 시절 꽃미남 남성 스타에 열광하며 성적인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 왔고 일상적으로 이성을 만나온 이들은 개별적인 연애 관계에서의 상대 남성들에게 외모와 성적 매력을 욕망하고 이를 욕망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 지점에서 이들의 욕망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이성애 유형을 재정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여성의 의존과 남성의 보호를 공식화하면서 여성의 외모와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교환하는 이성애 교환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차적으로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 의식의 확산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복적인 측면이 있는 것⁶⁰⁾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애 상대 남성의 외모만이 남성적 매력을 구성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상대 남성의 나이나 경제적인 자원은 여전히 남성적 매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의 남성을 사귀고 있는 경우는 한 사례(사례 G)밖에 없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나 적어도 동갑인 남성이 연하의 남성보다는 아직까지 연애 상대로 선호된다. 나보다

59)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남성들이 독점하던 재력이나 직업, 학벌 같은 자원들을 여자들도 갖게 되면서 엄격하던 성별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남자들이 여성 취향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남자들의 외모주의를 비판해왔던 여자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라는 것이다 “스타일 있는 남자가 좋아요, 긴급 설문으로 알아본 ‘달라진 결혼의 조건’, 남자는 ‘능력있는 여자’에 반한다” 『한겨레21』 2003년 6월 12일자

60)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1960년대 미국 10대 소녀들의 비틀매니아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비틀스에 대한 집단적인 열광은 소비 문화를 통한 차별적인 세대 정체성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는 또한 당시의 이성애 유형을 전복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긴 머리의 비틀스는 성적으로 모호한 측면을 가지면서 짧은 머리와 남자, 긴 머리와 여자라는 미국의 이성애 관습에 도전적인 의미를 가졌는데 이에 대한 10대 여성들의 환호는 임신이나 처녀성의 상실 혹은 명성의 저하와 상관없는 자유롭고 해방적인 성에 대한 바람이었다는 것이다 Ehrenreich, Hess and Jacobs(1986, 10-38) 또한 김현미(2002)는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남성 축구 선수들에 대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열광이 다양한 남성 이미지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 확대와 성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분석한다

나이 많은 ‘오빠’에게 기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듯 느끼는 ‘든든함’은 남성의 외모에 대한 적극적인 욕망만큼이나 연애를 하고 싶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만 본다면 남성의 외모와 스타일에 대한 욕망은 그저 추가되는 요소일 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남성의 보호를 뜻하는 나이, 학벌, 경제적 자원 등에 부여되는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이나 학벌, 경제적 자원은 이제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 한다 그것은 남성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로서 재배치⁶¹⁾되어야 한다 남성들의 자원이 ‘기댈 수 있음’, ‘보호받을 수 있음’으로 설명하기보다 ‘멋져 보임’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처음에 형성된 관계가 선배랑 후배의 관계였으니까, 막 싸우고 따지고 이런 게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멋있잖아요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말도 잘 하고 (사례 B)

그러므로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좋은 학벌의 적당한 나이 차이 나는 좋은 오빠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스타일 있게’ 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연애 상대로는 부적합하다

(그 사람하고는 연애를 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니까, 어, 하고 싶었죠 좋은 관계로 잘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맞았던 거 같아요 과묵하고 난 좀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너무 싫었던 게 그 사람 나이가 76인가, 75가 그랬었는데, 나이는 많아가지고 명품 브랜드 밝히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은 면이 이렇게 하나 보이니까 다 싫어지구 근데 그 오빠도 되게 잘 해 주고, 좋아해주고 그래서 만날까 하다가 마음이 그렇게 되진 않더라구요 (사례 C)

사례 C는 명품 브랜드를 밝힐 수 있을 만큼 돈도 많고, 나이도 많으면서 자신에게 잘 해 주는 좋은 학벌의 오빠와 몇 번의 데이트와 성관계를 경험하지만 연

61) “내가 왜 남자의 스타일을 밝히냐고? 스타일 있는 남자들은 달라 문화적 감성지수가 높고 관습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지 여자에겐 켄틀하고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 한 마디로 삶을 즐길 줄 알거든 그리고 난 차라리 남자의 스타일을 따지는 게 학벌이나 경제력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덜 속물적으로 느껴져 .” “스타일 있는 남자가 좋아요, 긴급 설문으로 알아본 ‘달라진 결혼의 조건’, 남자는 ‘능력있는 여자’에 반한다” 『한겨레21』 2003년 6월 12일자

애 관계로까지는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를 자신과 스타일이 맞지 않았음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스타일에는 사회적 자원 그 자체 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습관, 지성과 인간성, 개성, 문화적 기호와 예술적 취향, 대화의 내용, 표정, 몸짓의 방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성들이 남성의 ‘스타일’을 바라는 것은 연애 관계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기보다 자신과 함께 특정한 코드의 각본을 유희(play)할 수 있는 남성의 조건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애는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가운데 ‘폼나게’ 익힌 로맨스 매뉴얼을 연행하는 일종의 연출이 된다.

연애라는 관계가 소비 문화적 틀에서 연행의 일종으로 추구될수록 연인들은 서로에게 공적 ‘전시’를 위한 일시적 파트너의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런 관계에서 원하는 조건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외모와 스타일, 그의 자원들을 로맨스 매뉴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여성들이 남성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들의 권력 확대로만 전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상대 남성에게 대한 욕망을 언어화하고 이를 현실에까지 적용시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복적인 위치를 경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젊은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느끼는 자신감과 힘의 표현은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사랑에서 힘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는 관계의 통제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 자본주의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남성들에게도 외모와 스타일 가꾸기는 더 이상 ‘남자답지 못 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다. 남대생 연구대상자들에게서 ‘여자친구가 파마와 염색을 마음에 들어한다’(사례 (나))라든가 ‘옷차림과 스타일에 신경을 써야 여자친구를 사귄다’(사례 (다))는 식의 진술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입대 전 후를 기점으로 즐기는 연애와 결혼을 위한 연애를 구분하는 남성들은 연애를 위해 스타일화되어야 하는 남성성의 조건을 군 입대 전까지로 한정지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대생들의 진술에서 군 제대 후 아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연애 상대로 원하게 되는 진술과 스스로가 생계부양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자 노력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겹쳐진다. 이들에게는 외모와 스타일이 추구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연애를 위해 스타일화되는 남성성의 조건은 남성들에게 강제되는 사회적 조건이기보다 변화하는 여성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아연출력으로서의 여성성의 연기

이성에 연애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성별적 매력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관계에서 상대방의 매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관계가 의미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애가 소비 문화적 틀 내에서 성별적인 기호의 차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행(performance)의 성격을 띠는 때 여성적인 매력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연행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세세한 요소들의 집합이 된다 이 때 여성의 매력을 구성하는 압도적인 요소는 외모와 스타일⁶²⁾이다. 이는 연애 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이 대부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언급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제 동생만 해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 (아, 여자동생이 있어요?)
예 저희 딸만 들어요. 그리고 뭐 꾸미는, 이쁘게 꾸미는 것도 이제, 개는 평범하
죠 머리도 길고 이쁜 데다가 그러니까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 워낙에 많았기도 많았
지만 개는 그냥 평범해요 대학교 2학년이면 소개팅 해서 만나가지고 무슨, 무슨 날
다 챙기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넌 왜 그러고 사냐.
안경 좀 벗어라 맨날 이런 거 렌즈 끼면 너무 불편하다고 하니까 넌 미쳤다고 난 그
런 거 낄 수 없다 그러구 (사례 N)

젊은 세대의 연애 관계에서 남성의 매력 또한 외모와 스타일로 집중되지만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자원 의존도도 존재하는 반면 여성의 매력은 압도적으로 외모
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는 재현의 중심에 인간의 ‘몸’을 위치시키는 새로운 소비
문화의 발전 속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킨 이미지와 스타일이 행사하는 정
상화와 자기 검열의 권력이 결코 성별 중립적이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한설아
1998, 57). 남성에게 의해 보여지는 대상이며 또한 그렇게 보여지는 자신을 보도록

62) 내 맘을 주고 싶은 여자 BEST 1

- 1 기대 이상의 예쁜 그녀-섹시, 도도, 귀여움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 2 순수해 보이는 그녀-꾸미지 않는 멋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 3 다정다감한 그녀-착한 심정 들통 보여주세요
- 4 돈 많은 그녀-더치 페이의 깔끔함을 생활화합시다
- 5 옷 잘 입는 그녀-자고로 옷은 여자의 날개
- 6 똑똑한 그녀-대화가 잘 통해야 님을 본다
- 7 고운 피부의 그녀-하얀 백옥처럼 눈부신 당신

“봄은 만남의 계절, 남녀 파트너 BEST & WORST” 『대학내일』 2003년 4월 20일자

교육받아온 여성들의 몸은 남성들의 몸에 비해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이미지가 재현하는 대상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 재현 방식이 여성들에게 정상화되고 자기 검열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정도 또한 절대적이다(p.57-58).

사실 ‘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자발적인 의지의 산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여성성의 문화적 코드는 매우 표준화되어 있고 제한적⁶³⁾이다 예컨대 사례 N의 경우처럼 안경을 쓴 여성이 여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안경이 상징하는 성별적인 문화적 코드 때문이다. 즉 안경은 시력이 나쁨을 의미하기보다 자신의 시각으로 보고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정도로 지적인 여성은 욕망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화적 코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뚱뚱함은 여성성의 표상으로 떠오른 날씬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연애할 만한 여성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세부적이고 폭 좁은 여성성의 문화적 코드를 적절히 배치하고 몸에 익혀 특정한 방식으로 성별화된 인격을 새로이 창출하는 일이 된다

그런 애기 많이 들었죠 남자친구한테 아, 니가 아깝네, 아깝네 그런 애기 많이 했었어요. 제가 되게 많이 뚱뚱했었거든요 (아, 그 친구 사귄 때 쯤어?) 그런 거 (뚱뚱했었다구요?) 예 (자기가?) 예 (그런 데 대한 뭐,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연하라는 것도 그렇고, 잘 생긴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에서는 다 용 됐다 그러죠 (웃음) 군대 갔다온 선배들은 다 놀래요 못 알아 봐요 (아, 어떻게 이렇게 살이 빠졌나) 수술했나. (주위 사람들이 대우가 좀 달라요?) 아(!) 그런 건 있어요 저 1학년 때 같이 있다가 군대 갔던 선배가 제대해서는 날 이성으로 본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되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어때요?) 좀 우습죠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던 사람들이. (사례 G)

뚱뚱했을 때 자신이 먼저 좋아해서 사귀게 된 같은 과의 후배 남성과의 사이

63) 남성 외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상이 외모의 성별 정치학을 회색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다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외모의 관리는 보다 폭넓으며 외부의 시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남성의 다른 자원이 매력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 또한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여성의 외모 관리는 보다 세밀하며 이를 규정하는 남성적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여성의 외모는 남성과의 개인적인 관계 외에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수행의 중요한 자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승희(1999)와 김지영(2000)을 참조할 것 외모 관리의 성별 정치학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설아(1998)를 참조할 것

를 ‘뭔가 기울어지고 안 어울리는 관계’로 정의하는 뒷 수군거림들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이 사례는 ‘독하게 마음 먹고’ 운동과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 이후 달라진 대우를 실감하면서 그녀는 이 관계가 ‘더 이상 불평등한 것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 외모가 달라지니 남자친구가 군대를 간 사이 주위의 많은 남성들로부터 사귀자는 제의까지 받게 되었다. 여기서 관계가능한 여성의 기준에 대한 설정은 외모에 대한 성별적인 기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에게 연애가 순전히 생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연애 경험이 없는 사례들은 ‘연애할 만한’ 여자가 되는 데 들일 시간과 돈 대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한 훈련이 더욱 중요한 일임을 내내 강조하였다. 연애는 ‘여자가 되기 위해’ 하는 일이지 ‘인간으로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일(사례 O)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에 의해 하나의 ‘여자’로 인지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성으로서 안정된 정체감을 가지기가 여전히 어렵다. ‘여성이 되는’ 것과 ‘인간이 되는’ 것은 별개의 일로 여겨지지만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의 인정에 있어 성별 정체성은 핵심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되는’ 일이 언제까지고 지연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때 ‘여자가 되는’ 것은 남성의 시선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성성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남성들의 시선을 파악하는 사례 G의 자신감이다. 남성의 시선을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몸을 변화시킨 뒤 여러 연애 관계의 가능성을 알게 된 사례 G는 이 사실을 ‘우습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알아차리지 못 하거나 고의로 알아차리지 않는 남성들의 욕망의 규칙을 간파했음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물론 사례 G의 자신감은 이러한 변화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며 진정한 자신의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남성적 시선의 기준을 내면화한 여성들이 ‘여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 연애에 성공할 때 이들의 몸에 각인되는 자아 성취감⁶⁴⁾이다. 여성들은 제대로 ‘여자가 되는’ 연기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의미화하면서 자아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64) 가면놀이(masquerade)로서의 여성성을 이론화한 돈(2001, 278-279)에 따르면 여성다움이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는 가면이 되는 것은 즉자적 존재로서의 여성성의 생산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갖는다. 즉 가면놀이는 가면으로서 구축되는 여성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여성 자신과 자신의 이미지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알고 있음을 뜻한다.

외모와 더불어 남성과의 초반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으로 거론되는 것이 ‘내숭’과 ‘애교’다 이는 흔히 여성성의 과장된 표현으로 여겨진다 이는 여성 스스로의 솔직한 모습이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기보다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몸짓, 말투, 표정 등 여성의 몸에 부여된 세세한 성별적 코드를 잘 파악하고 이를 결합시켜 다시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여성성의 연기적 성격을 뜻한다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의 여성성은 욕망의 원인과 자신의 분리를 아는 몸짓이 되 동시에 훌륭한 연기를 통하여 그 간격을 메우고자 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즉 욕망의 대상이 될 만한 여자가 되기를 스스로 잘 해 내고자 하고 그럴 수 있는 자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여기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연애 초반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성을 모르는 척 그러나 틈을 보이면서도 유도하는 내숭 연행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애를 잘 하는 여성이란 바로 상대 남성이 관계에서 기대하는 여성성을 적절히 연행할 수 있는 여성이다.

애 말로는 4월달부터 저 좋아했대요 (웃음) 그러다가 2학기 들어와서 과 앰티를 갖는데 그 때 좀 이상했어요 심상치 않아 가지고, 그러다가 그 주 금요일날 선배들이랑 다 과 사람들인 인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구요. 꽃 사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좀, 얼마간 텅기다가 제가 한, 한 달 있다가 그 때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 처음에는 되게 막, 별로였거든요? (웃음) 한 달 정도는 되게 싫었어요 그냥 막 켈까 말까 막, (아. 그러면 사귀자고 해 놓고도) 애가 되게 끈질기게 과 홈페이지에 막, 써 놓고, 사실 사귀는 것두, 술김에 그러니까 어, 과 언니 생일파티 갔다가 술 되게 많이 마시고 애가 전화를 했는데, 1학년 때 그니까 아무리 친구들이 있어도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1학년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외롭잖아요 그 외로왔던 게 있는데, 인제 술까지 마시고 애가 이제 자꾸 그러니까 술김에 내가 어, 그래, 그랬나 봐요 (웃음) (기억도 안 나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문자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니까 OO[본인 이름]야, 축하해 사귀기로 했대며 이런 거예요 그래졌고 어,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숙사니까 언니가 오더니만 사귀기로 했대며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아니요 몰라요 그랬더니 홈페이지 가 봐 이러는 거예요 홈페이지 게시판 가니까 애가 OO랑 사귀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하루 첫 날이에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써 놓거예요 (웃음)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프로포즈도 되게 공개적으로 한 거구)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프로포즈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가 갔구 오늘 누구한테 고백을 할 거예요, 이 애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친구 한 명만 알

아요 그래왔고 (웃음) 그 때도 막, 그 일이 있을 거니까 다들 기대해 주세요 그렇게 써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엠티 가서 좀 눈치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 알고 있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냐, 누구냐 그랬더니 너라고 조심하고 긴장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사례 L)

연구대상자들의 사귀는 과정에 대한 진술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그가 나에게 어떻게 사귀자고 했는가’에 관한 에피소드다.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과정은 자신의 여성적 매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들 또한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다. 여성들은 틈을 보이며 기다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기’한다. 사례 L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고백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친구로부터 입수하여 ‘조심하고, 긴장하고’ 있고 사귀자고 해 놓고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텅기는’ 과정을 거친다. 남성의 적극성이 관계 초반을 틀짓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여성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성들은 연애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지식에 기반하여 여성들은 적절한 여성 자아를 연출해 봄으로써 관계를 만들고 자기 잠재력을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행되는 여성성은 내적 자아와 대립되어 선을 그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보다 내적 자아의 창조적인 결과물로 여겨진다.

여성성이 성공적으로 연행될 때 여성들은 자신을 새롭게 의미화하면서 자아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많은 연애 경험이 성과 관련된 평판에 휩쓸리지만 않는다면 자랑스러운 것으로 인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연애 경험이 많은 여대생들은 ‘남성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남성이 적당한 남성일 때’ ‘재빨리 반응을 보일 수 있는’(사례 H, J) 스스로의 연출력을 자랑스럽게 진술한다.

(자기는 연애하면서 바뀌었다 이런 거 있어요?) 예, 아우, 난 되게 애교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스스로 닭살, 닭살스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그런 여자들 이해 못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사실 남자친구도 되게 놀랐어요. 야, 너 원래 이랬니? (웃음) 그런 거 있죠 (애교스러워지고?) 애교스러워지고, 여성스러워지는 거 (어떤 거?) 그런 거 있죠.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 그 상황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리광도 있고 혼자 있을 때 못 했던 거 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입에서 절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 했던 말들이 막 나온대거나 그때그때 생각하는 말들이 막 나오는. 굉장히 내 감정에 솔직해졌던 거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애에 빠진 내 모

습이 사랑스러운 게 내가 스스로 사랑스러운 게 그거 있죠 내가 모르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 그게 재밌는 거 같아요. 난 사랑받을 만큼 충분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내가 생각치 못 했던, 별 짓을 다 해 보게 되는 거죠. 가끔은 연기 같기도 하고, 과장을 줄 길 때도 있는 것 같았어요 (사례 H)

연애 관계에서의 ‘나’는 스스로도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복수의 ‘자아’가 된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도 바로 나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례의 진술에서는 전형적인 여성성 뿐 아니라 애교, 용기, 솔직함 등 함께 의미화되지 못 했던 여러 특질이 연애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자아의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들은 이를 연기할 수 있었던 나 자신의 창조물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일부가 된다. 즉 여대생들은 일상을 비일상적인 사건으로 기획하는 연애에 참여하는 나의 자아도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얼마나 여성성을 잘 연행할 수 있으며 이를 자아연출력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여주는 남성과의 연애 경험은 여성들간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여대생들이 결혼과 연관되지 않은 연애 관계에서 상대 남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자신의 미래의 위치 또한 귀속시키지 않는 경향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의 대중화 속에서 개별 남성에게 의해 여성임을 승인받는 것, 그럴 수 있는 기술을 지식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연애는 한 번쯤은 해 봐야 하는 것’(사례 K)이 된다 연애 경험이 없는 사례들이 가장 곤란해 하는 것이 주위 친구들로부터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감정을 ‘모른다’고 평가받는 것이며 이를 ‘알기’ 위해서라도 연애를 해 보아야겠다고 입을 모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C 자아정체성 프로젝트로서의 ‘관계’

1. 사회적 교류와 협상권의 훈련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이 사적 존재로서 규정되는 여성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굳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도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새로운 삶의 모토

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하였듯 이러한 변화는 대중화되는 페미니즘의 영향과 더불어 후기 근대의 위험사회적 조건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지구적인 전문화된 시스템의 영향과 소비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상품과 스타일 속에서 이를 해석하고 취사 선택하여 다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나 자신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끊임없는 물음으로부터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젊은 여성들의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식은 높아지는 데 비해 이들이 실제로 부딪혀야 하는 것은 나이와 성별로 기회가 제한되며 성적으로는 무지할 것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학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학에서의 공식적인 인간관계인 교수와의 관계에서 교수들의 대부분이 남자 교수인 이유로 여대생들은 끊임없이 ‘여’학생임을 의식해야 하거나 학생으로서 별 지원과 기대를 받지 못한다.⁶⁵⁾ 또한 대부분의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망은 예비역 복학생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에서 끊임없이 외모를 중심으로 한 비교와 성적인 뒷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⁶⁶⁾

그런데 여대생들이 의식의 향상과 그에 따라주지 못 하는 현실의 충돌 사이에서 경험하는, 규칙에 대한 협상과 관계의 정도에 따라 헌신을 필요로 하는 연애라는 관계는 단지 사적이고 애정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애 관계는 상대방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관계로 여겨진다.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인간관계망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65) 1994년 조준상·이은정이 펴낸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에서 인터뷰한 여학생들은 과에서 여자 교수가 있었더라면 더 공부할 마음을 먹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p.50-53). 본 연구 연구대상자들 중에서도 대부분 남자교수인 과 교수로부터 학업에 관한 격려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는 사례 G 뿐이었다.

66) 예비역 복학생 남성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곳에서는 여학생 학생회장이 아직도 공공연히 반대되고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거부된다. 사례 G, K, L, M, Q는 이러한 분위기의 과에서 대학생활을 보낸 사례들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복학생 선배들이 여학생 학생회장을 반대하며 술자리에서 짹짹 게임을 강요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폭력적 문화를 주도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다는 것을 들려주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취업보다도 우선 성폭력적 문화를 적극 규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남자친구의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런 일도 있어요?) 예 (동아리 선배들 말고도?) 예 (어떤 사람들이예요?) 오빠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같이 만나요?) 예 (만나면 뭐 해요?)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럴 때 오빠의 친구들이 여자친구들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런 자리는 어때요?) 근데 오빠 친구들이 굉장히 웃겨요 그리고 다들 회사원이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주고 (웃음) 좋더라구요 (사례 B)

많은 경우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의 친구들에게 상대방을 소개시켜주며 어울리게 된다. 연애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남녀 포레 문화에서의 공동 이벤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다 이 때 친구의 연인은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맺어진 인간관계는 맛있는 것을 사 줄 수 있는 다소 사소한 일상 보내기에서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경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의 인간관계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 중 몇몇(사례 A, B, G, H, J)은 연인의 친구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되었음을 진술했다 여성들은 연애를 통해 상대방의 인간관계망에 편입되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보다 넓은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⁶⁷⁾을 하게 된다

들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침에 열 시까지 퍼 자고, 놀러나가서 새벽에 세 시에 들어오고 만약에 한국에 있었어 봐요 집에서 열 한시만 되면 전화오지 지금 이 사람은 약간 리더 스타일이예요 자기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고 가는 스타일 있죠 그리고 남들 되게 잘 챙

67) 상대방의 인간관계망이 남성중심의 동성사회적(homosocial)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 그녀는 그의 여자친구의 위치로서만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취약한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 예컨대 사례 A의 과에서는 동향 사람들이 모이는 ‘향우회’ 모임이 친목 뿐 아니라 정보 교환의 실제적인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공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특성상 이 모임들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직접적인 사회 관계 자본이 된다 사례 A는 이 모임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5살 많은 선배 오빠와 사귀으로써 ‘그냥 후배’의 위치가 아니라 ‘선배의 여자친구’라는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냥 후배’들은 선배에게 말 놓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계적인 모임 문화에서 ‘선배의 여자친구’가 되는 것은 모임을 주도하는 오빠들과 훨씬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이 가진 정보에 더 빨리,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녀는 선배의 여자친구’라는 위치가 아니면 ‘그냥 후배’의 위치마저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봉착한다 이런 문화에서 남성들은 남성을 경유하지 않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여성과 관계 맺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겨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를 이끄는 데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아요. 또 친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파리며 런던이며, 다 공부했던 테니까. 여행하면서 진짜 좋았던 게 파리와 런던 가서 한 잔 하러 나와 이러면 다 나오고 같이 어울려 놀고 같이 나이트 딱 가고 그런 거 진짜 좋았어요 (사례 J)

학교 대표로 외국 연수를 가게 되어 그 곳에서 외국 국적의 한국인을 세 번째 남자친구로 사귀게 된 사례 J의 경우는 연애를 통해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을 접하게 된 흥미로움을 이 연애 관계의 크나큰 매력으로 경험⁶⁸⁾한다. 그녀는 자신의 대학을 면접 내내 ‘핫빠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학교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했다. 이 때 만난 지금의 남자친구는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엔지니어로 자리잡았으며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착한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례 J는 그와 함께 나선 외국 여행길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해방감’을 만끽한다. 그녀에게 이 연애는 답답한 가족과 학벌로 차별하는 사회를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연애는 또한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사람과의 사귀음을 통해 실제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처음에 연애를 해 보지 뭐 라고 생각했던 거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 때는, 그런 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들은 것도 처음이었구요. 개가 착하고 좋아보이기도 했고, 예, 어느 정도 좋았어요, 그 사람이 일단 그 사람을 잘 알지는 못 했는데 누구를 그런 식의 관계로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아, 연애라는 관계를 통해서) 예 그리고 그 사람이 OO과라서 저랑 공부하는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었고, 같이 동호회를 하고 그러니까 악기 다루고 이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구요 (사례 F)

68)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한국인과의 연애를 더 이상 터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인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선호되기도 한다. 사례 C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외국인 교환 학생을 도와주는 동아리에 가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연애할 때 생산적이기가 힘들잖아요. 어찌 보면 둘이 시간 죽이기잖아요. 둘이 만나서 뭘 할지 결정하고 할 일도 되게 없는 거 같고 진짜 뭐 영화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가끔 근교 한 번 나가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외국애를 사귀면 재밌지 않을까? (왜요?) 그래도 언어라도 배우고 그러는 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 C)

사례 F는 음악 동호회에서 결성한 밴드의 리더와 사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비슷한 전공을 공부하는 것과 그가 악기를 잘 다루고 각종 악기를 갖춰놓은 연습실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찾는다 그와 사귀면서 그녀는 연습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악기를 다루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여성은 연애를 통해 남성의 매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연애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지식과 자원은 강화된 자아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고자 계획된다는 점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성별적인 자원 교환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교류를 통한 자원과 지식의 획득은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특정한 규칙과 그에 관한 협상이 관계를 규정하는 연애 관계에서 여성들은 상대 남성의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도 의식적으로 관계의 기술을 익히고 그에 상응하는 자원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즉 여성들은 연애를 통해서 로맨스적 환상에서 막연히 생각하듯 남녀관계가 당연히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규칙과 협상이 지배하는 사회적 관계임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항상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지겨워죽겠어요 (아, 그래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지 않았어요? 싸우는 거) 그쵸 나는 너무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되게 힘든 게 제가 환상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잠시 침묵) 진짜 환상, 제 친구 말로는 여자는 항상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린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니까 딱 맞는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팬날 싸우고 이럴 때마다 아, 이 사람 내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진짜 딱 맞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이 사람이랑 맞춰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 (백마 탄 왕자가 오는 환상은 뭐 어떤 걸 기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런 소리 하면 또 욕 먹는데 (환상인데 뭘) (웃음) 그냥, 진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짜 잘 맞는 사람. (사례 B)

연애하기 전에 그 설레고 이런 거는 정말 재밌는데, 그래서 세상에 연애만큼 재밌는 게 어딴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연애하기 전에?) 연애할 때며 하기 전이며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즐거움은 잠깐이고 계속 그 즐거움을 유지하려면은 쌍방이 너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적게 할려면은 진짜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든지 그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사례 H)

연애 관계에서 많이 싸운다던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 남녀 관계는 ‘보호하고 의지하는’ 전형적인 성별 관계로 그려지기보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고 양보하는’ 즉 ‘주고받는다(give and take)’의 관계로 그려진다 이 때 여대생들은 자신이 얻고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간파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때 제가 연애 초기였었거든요 아, 근데 뭐가 억울한 거예요 학번 차이가 네 개 나고 나이도 세 살 차이 나고 이러니까 지금도 제가 존댓말을 가끔 써 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반말하는데 가끔씩 너 근데 요즘에 존댓말 왜 안 써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오빠는 왜 안 써 이러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도 세 살이 많다고 맨날 이러구 근데, 또 신문사 선배였고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싸움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은 비합리적인데?) 아, 뭐라고 해야 돼지? (그 사람이 한 말이 비합리적이라구요) 예예 그래서, 예 언니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제가 맨날 너무 답답해서 아, 이거 여성학 책을 읽어야 되겠다 답답해서 그 때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구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면 딱, 제가 위축된다 이래야 돼나? 아무래도 선배로 오래 알고 지내서 그런게 있더라고요. (사례 B)

잘 생기고 똑똑한 연상의 동아리 선배를 사귀게 사례 B의 경우 그러한 매력 때문은 관계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 수 없는 제약이 된다는 것을 간파한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성학 책을 읽고 수업도 듣는다 또 ‘남들도 이런 문제를 겪는지 궁금해서’ 연애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업 과제물로 작성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만큼 자신도 똑똑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⁶⁹⁾을 가지게 된다 연애 관계에서 협상의 기술

69) 사례 B외에도 면접 중에 여성학을 공부하는 연구자가 남성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자신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여기고 조언을 청한 연구대상자들이 있었다 조(한)혜정(1998a)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학 수업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수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보다 뒷구석에 앉아 비난 어린 논평을 하며 애인을 교육시키려는 여대생들의 출현을, 경제 성장이 만들어 낸 새로운 신분이 소비자본주의를 만나 만들어 내는 ‘새로운 종족’의 출현으로 보았다 연구자는 페미니즘이 남성과의 개인적 관계를 어떻게 협상해 갈 것인가의 구체적인 기술적 언어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페미니즘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젊은 여성들이 어떤 성격을 가진 주체인가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즉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한도에서는 ‘페미니즘’을 협상의 도구로, 지식의 일

을 배우는 과정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떤 지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된다

많이 만나보고 많이 경험할수록 좋은 거 같아요 (왜요?) 사고의 폭이며 감정의 깊이
며 그런 게 전반적으로 막 커지는 거 같아요 (경험해 볼수록?) 예, 내가 그 남자애들
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 했을 거 같아요
훨씬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거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 보는 눈이며
어떤 일을 당하면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훨씬 지혜롭게 하지 않을까 .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을 오래 만나는 사람이 하(1)나도 안 부러워요 남들은 그런 경우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왜요?) 꼭 오래 사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오래 만나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선 경험이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도 싸워보고 저렇게도 싸워보고
화해도 해 보고 근데 그냥 별로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오래 사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거 같아요 (사례 H)

사례 H는 두 번의 연애 경험을 ‘인생 경험’으로 진술한다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두 남성과의 관계에서 그녀는 인간관계에서의 통제권의 상대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말한다 감정적인 상처를 받았지
만 그것 또한 관계를 지속하거나 끝내거나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밀고 나간 결과
였기에 ‘그러한 감정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성숙할 수 있었던’ 인생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경험이 많다는 것은 나쁘지 않으며 오히려 한 사람
과의 관계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
로 생각한다.

이처럼 나이와 성별 때문에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와 기회가 제한되는 젊은 여
성들에게 연애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와 사회에서의 통제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익히는
장이 되고 있다

중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행위성의 맥락과 향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관계’를 통한 자아 발견

정해진 역할 수행에 근거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매일 맞닥뜨리는 복수의 장에서 다양한 익명의 개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사회에서 자아정체성은 내가 창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역할 수행적 인간관계는 여전히 무엇보다 강하게 한 사람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 또한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미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어있기보다 다양한 장을 넘나들면서 이러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연애라는 관계는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관계를 위한 관계’로 기획된다 이는 연애 관계에 계산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연애 관계를 위한 계산은 존재한다 연애할 만한 대상의 조건, 수많은 규칙은 이 관계가 의식적인 계획과 인위적인 노력, 시간, 돈이 드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연애 관계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내 생활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은 자기 만족이란 생각을 해요. 개를 좋아하는 내 모습이 좋은 거고 그만큼 내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고, 삶의 활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기댈만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거기서 굉장히 힘을 얻는 거고 (사례 H)

연애에서 얻는 정서적인 힘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정서적인 위안은 관계가 규정하는 ‘자기 자신일 수 있음’에서 나온다 사랑은 그래서 사례 H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만족이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된다 연애 관계는 다른 어느 관계보다 상대방과 밀접한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어떤 종류의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는 사람, 관심을 받을 원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물음을 던지게 만든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나는 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식의 질문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고민이다. 연애 관계가 진행되면 진행될 수록 관계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상대방의 매력이나 그에 대한 관심보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맺을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나는 나름대로 솔직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란 지내면서는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

러더라구 그 오빠랑 지내면서 참, 너의 진실된 모습을, 반박에 못 보여 준 거 같다고, 니가 니 성격 그대로를, 첫 번째 남자친구랑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있을 때는 나를 누르고, 나는 말다툼하기가 싫은데 그 사람은 되게 유발을 많이 시키고. (사례 J)

세 번의 연애 경험이 있는 사례 J는 좋아하는 마음의 정도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표현한다. 남자로서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좋아했지만 화를 많이 내는 성격의 두 번째 남자친구에게는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진술된다. 자신이 학교 대표로 뽑혀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때도 좋아해 줄 줄 알고 엄마보다 먼저 전화를 해 알렸지만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남자친구에게 그녀는 많이 실망한다 그리고 가게 된 외국에서 그녀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된다. 첫 성경험을 두 번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했지만 그 사실이 스스로에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연애 감정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 J에게 자신을 억누르고 만나야 하는 관계는 처음에 아무리 사랑을 느꼈다하더라도 유지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랑은 ‘변하고, 움직이는’ 것⁷⁰⁾이다 사랑이나 상대방 자체보다 두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연애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닌가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계속 서로한테 정성을 쏟아야지, 유지라는 거는 한순간에 뭐 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성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귀는데 처음과 똑같은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서로의 생활, 이런 게 더 첨가가 되면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인제 더 친밀감도 들고 유지되고 그런 것도 일종의 정성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서로 잘 해 주다가 좀 소홀해진 거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자기는 그랬던 거 같아요?) 잘 유지를 했냐구요? 그럴려고 노력은 했던 거 같아요 남자친구가 좀 안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웃음) (그럼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생

70) 최근 광고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와 같은 유행어는 젊은 여성을 통해 선언되었기에 신선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남성들에게 사랑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고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자신의 욕망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스스로의 경험일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광고는 연애에 대한 세대적 감수성과 젊은 여성들의 욕망의 변화를 구체적인 소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각하고 얘기 안 하더라도 아, 어, 요즘 변한 거 같다 던지 아니면 예전에 안 그러더니
막 이런 식으로 상기를 시켜줘야 되는 (사례 A)

그래서 연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느낀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이는 정성이다 기든스(1997)는 ‘전념’(commitment)이 친밀성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오늘날의 역사적 현상이라고 본다. 전념은 사랑보다 넓은 범주의 것으로 현대적 형태의 고유한 긴장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관계를 어떻게든 해 볼 용의가 있고 그 유일한 보상이란 관계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168-170). 기든스의 분석은 서구 사회의 인간관계와 정서적 경험의 변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특정 조건의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의 지속성을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두 사람의 감정 상태에 의존하는 연애라는 관계맺음의 양식은 이와 유사한 감정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A가 연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아하는 마음은 처음에 좋아하는 감정이라기보다 지속되어야 할 서로에 대한 정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에 해당된다. 연구대상자들에게 관계에 대한 긴장과 정성의 중요성은 그리 낮은 것이 아니었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연애가 어떤 관계로 인식되는지를 보여준다. 당장 생계를 위해 남성을 만나는 것이 아닌 관계에서 여성들은 ‘여자 역할’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 이런 관계는 두 당사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연애 관계는 법적인 제도나 가족, 친척 등 역할 수행적 인간관계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어느 정도 진행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의 의지와 합의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지금도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감정은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치만 나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잠시 침묵) 그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문제라면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죄책감을 느낀 상태로 그렇게 만났다면 자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는 정말, 나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인격적인 존중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여자였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사례 H)

이제 연애 관계에서는 감정을 처리하고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규칙들이 부상한다. 사랑과 성관계는 연애 관계에서의 친밀성과 전념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거나 관계 유지의 합의를 깨는 것 자체는 비난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다. 사례 H는 자신을 사귀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는다. 캐묻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연락을 끊음으로써 관계를 끝낸 남자친구의 행동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만(‘그냥 여자’) 취급한 비도덕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 번의 연애를 경험할 수 있다는 변화는 감정과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자신을 지킨다’는 은유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연애가 결혼과 강력하게 연결되었을 때는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대부분 남성의 성관계 요구를 어떻게 막아내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보다 정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너무 먼저 앞서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지키는’ 연애는 먼저 많이 사랑하기보다 적절한 수준의 합의에 비슷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에게 비슷한 정도로 애정을 기울이고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한 사람의 의지가 소멸되었을 때 그것까지도 서로에게 개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연애 관계가 사랑보다 기술이나 방법으로 정의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연애 관계에 몰두하고 있는 자아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내적 자아의 힘, 상대방과 적절한 수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의사 소통은 사랑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협상해야 하는 적절한 수준은 점점 찾기 힘들어지고 따라서 의사 소통의 적절한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그래 맞아, 내가 개한테 좀 따졌던 게 그런 거 있죠 나 너 그런 스타일 맘에 안 들어 저런 옷 입어봐 저런 옷이 이쁘지 않아? 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막말로 지가 옷을 사 주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더라구요 난 쪼 고정관념 너무 싫기 때문에 여자는 긴 생머리여야 되고 그런 고정관념 너무 싫거든요 너무 유치해 보이거든요

근데 개는 그런 걸 강제하려 드는 거예요 아,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난 난데 왜 지가 날 바꿀려고 드는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전 남자친구는 아무리 개가 멋을 부리고 다니고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다 어, 옷 잘 입는다 잘 생겼다 얘길 해도 한 번도 나한테 니가 그렇게 옷을 입어서 맘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I) 한 번도 없어요 개는 그냥 그건 내 스타일로 받아들였거든요 머리로 그냥 내가 머리를 풀고 있으면은 밥 먹을 때 머리카락 내려오니까 머리 좀 묶어 이게 다지 뭐 스타일 자체가 어째서 어찌구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런 식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건 나는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지? 수준낮은 연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근데 개는 그런 식으로 매번 스트레스를 주더라구요 (사례 H)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강요하는 남자친구의 얘기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다 그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중하는 방식을 가졌던 그 전의 남자친구와 대조되는 특징으로 진술된다

이 사례의 진술에서 연애 관계에서의 성별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여기서 더 주목하는 것은 여러 남성들과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이 사례가 자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라는 남자친구의 강압적인 말하기 방식은 스타일이 의미하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도를 넘어선 코멘트가 된다 그래서 그녀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한다. 결국 그녀는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비슷한 표현 습관이 문제가 되어 그와 헤어지게 된다. 독립적인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이미 가지게 된 여대생들에게 연애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는지, 동시에 정서적인 의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실험하고 훈련하는 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은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때로는 여성들 자신에게도 이런 욕망은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결정을 나한테 말기는 게 좀 짜증나는 건 있었어요 왜냐, 그 사람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한테 너 와[남자 목소리를 흉내내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의논을 하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건 너한테 달렸다 그게 좀 약간 스트레스였죠 진짜,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걸 떠 말기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뭘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스스로 가지 않는 한 (사례 J)

독립적인 개인이고 싶은 열망과 연애 관계에서 바라는 정서적인 의지는 종종 갈등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알아서 결정하라는 남자친구의 말이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사례 J는 은연중에 상대방이 터프하게 ‘너 와’라는 한 마디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이 높고 여러 번의 연애 경험도 엮매이는 것 없었던 담담함으로 진술하는 그녀이기에 ‘여자로서 기대고 싶음’을 느끼는 자신은 스스로에게도 낯설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양한 내적 자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애 관계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있음을 받아들인다

연애 관계에서 한 사람과의 집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의식하는 양상은 스스로 창조해 가는 것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프로젝트화되는 연애 관계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장이 된다

좋아하는 건 그건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늘 같이 다니는 근데 뭐 특별히 무슨 관계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 제 생활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가 봐요 (마음 불편해요?) 마음 불편하진 않은데 이제는 편해요 내 생활이 편하니까 (둘 다 연애한다고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예, 뭐, 감정은 다른데 군대 가 있는 친구랑 그 사람이랑 비교해서 힘들거나 그렇진 않고 그 사람은 되게 편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고, 나한테 참 관심 많은데 열정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 난 젊는데 열정이 없는 사랑을 할 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 저한테 그러거든요 자기는 나를 되게 사랑하고 있는 니가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하다보면 맞는 말인 거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사랑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 연애를 했던 거 같아요?) 전 연애의 특별한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연애는 그 사람 옆에 있어주면 될 외롭고, 그런 거보다는 누군가 사랑한다는 게 되게 즐겁잖아요 그런 즐거움이랑 연애를 하면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 내가 정말 사람을 좋아하면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의외로 냉정하고 잔인하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 일단은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좋

아하면서 시작하겠지만 연애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사례 G)

감정은 달라도 연애한다고 말할 수 있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례 G가 발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연상이면서 자신을 많이 좋아하는 옆에 있는 남자친구는 군대 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알고 있고 군대 간 남자친구와는 제대 후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그녀는 ‘상대방을 속이는’ 규칙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연애라고 결론내린다. 이는 원래 그녀에게 숨어있었던 자아였다기보다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아일 것이다. 여러 타인들과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그 관계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자아정체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

V. 연애 경험을 통해 재구조화되는 친밀 관계

연애를 통해 강화되는 자의식과 스스로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교류와 자원 획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대생들은 이러한 관계의 지속으로서 동거를 욕망하고 실행하기도 하는 등 연애와 결혼, 성의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적 실천을 이미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대생들은 연애와 결혼, 성이 분리될 수 있는 사건임을 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이들이 기반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여성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세 영역을 개인적인 전략으로 넘나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여대생들은 취업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대학생 시절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험을 하지는 않는다. 즉 소비 영역에서 이들의 강화되는 자아정체성은 가족의 경제적 배경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결혼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내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스로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의 반영인 ‘연애의 여성화’ 현상은 남성과 여성, 여성 자신들에게 갈등적으로 경험되는 서로간의 다름을 만들어낸다. 정서적 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 그러한 훈련을 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남성, 페미니즘의 이미지만 있는 소비 문화가 제공하는 성 해방과 관계의 다양성 속에서 이를 연애 관계의 요소로 통합시킬 수 있는 여성과 그럴 수 없는 여성 사이에 경험의 다름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연애와 결혼, 성이 별개의 사건임을 알게 된 여대생들이 계급적 기반으로서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배경과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성 경험 해석의 모순을 살펴보고, ‘연애의 여성화’로 명명할 수 있는 정서적 관계의 재구조화가 어떤 남녀 주체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A. 계급적 기반으로서의 결혼의 의미 수용

1. 가족 의존적인 소비 주체의 전략

이성과의 연애를 경험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교육과 취업 계획으로 결혼 연령은 높아지면서 연애와 결혼의 연결 고리는 점점 약화된다. 아직 결혼할 나이

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선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대생들에게 연애에 대한 기대나 지금의 연애 관계는 바로 결혼으로의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

나도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도 날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좀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래야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그건 뭐 결혼을 생각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결혼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연애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런 건 아니지만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해서 지레 뭐 막 따지고 든대던지, 겁먹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있잖아요 연애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럼 결혼 생각하면 연애하고는 다른 거를 따지고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거요?) 집안이 얼마나 맞는지, 직업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사례 H)

두 번의 연애를 경험한 사례 H는 앞으로 연애를 하는 데 보다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신중함은 결혼을 염두에 둔 고려와는 다른 것으로 진술된다 연애 관계에 대한 고려는 ‘서로에 대한 감당’으로, 결혼에 대한 고려는 ‘집안과 직업, 가치관’이라는 식의, 별개의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례 H의 계속되는 진술에서 살펴볼 때 ‘서로에 대한 감당이 가능’한 관계란 연애라는 관계로 서로를 규정하겠다는 의지의 속도가 얼마만큼 맞는가 즉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고려가 주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결혼은 연애보다 더 ‘따지고 들어야 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겁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여러 번의 연애를 경험하고 연애 관계에서의 성을 경험하면서 젊은 여성들은 연애와 성, 결혼이 각기 다른 기준들로 구성되는 별개의 사건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아가고 있다 71) 페미니즘은 사랑이 가부장적 이성애 결혼과 결혼을 통한 성통제를 정당화시켜주는 기제일 뿐, 본질적으로 통합된 것이 아님을 주장해왔다

71) 이런 지점에서 이들에게 동성애는 허용 가능한 것이 된다. 즉 연애가 결혼과는 별개의 사건일 수 있다는 인식은 성적 매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관계가 반드시 이성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성애주의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연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사례 D, E, F, K, O는 연구자가 제시하지 않았던 동성과의 연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 모르겠다거나 남자와 해야 할 것(사례 K와 O)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반드시 결혼과 연결되지 않는 연애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몸으로 체득하는 젊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대생들의 결혼에 대한 이러한 간과는 어느 시기를 지나서는 결혼 외에 한 사람과의 정서적, 성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는다 특히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관계로 진행된 연애는 이들이 결혼에 대해 가지는 망설임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 연애를 경험하고 있는 여대생들은 성관계를 포함⁷²⁾하여 상대방과의 안정적인 정서적 생활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정말 다른 데서 살았으면 100% 동거를 했을 거 같아요 누구랑 같이 살고는 싶은데, 그런 거 저두 지금 동거를 하고 싶은 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게 같이 살고 싶은데 절대 집안에서 허락을 할 거 같지 않으니깐 (그럼 결혼하고 싶은 거는 같이 살고 싶은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예 좋잖아요.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역시 성적인 문제도 있는 거 같구 (그럼 결혼해서는 어떻게 살 거 같아요?) 뭐, 한동안은 동거하듯이 그러다가 나중에 아기를 낳겠죠? (사례 B)

사례 B는 자신이 원하는 결혼에 대한 상을 동거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한다. 그녀는 연인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원하면서 이를 ‘동거’로 명명하고 동거를 인정받는 절차로서 ‘결혼’을 얘기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데 결혼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경로를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미래의 상도 ‘우선 함께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을 다른 의미로 만들어가는 변화는 존재한다. 그러나 결혼 외의 삶의 방식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서 결혼에 대해 가지는 문제의식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현

72)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어느 정도 진행된 연애 관계에서 규칙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미혼 여성의 성적 실천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불안정한 공간에서 갖는 성관계는 자신의 욕망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탐험하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D는 여관에서 가져야 하는 성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섹스는 낭만적이지만 섹스하러 들어가는 여관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리얼리티잖아. 그게 싫은 거야 알겠어? 무슨 애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줘) 그니까 그런 장애들이 너무 싫은 거야 여관 나오는 기분이 너무 싫고, 들어가는 기분이 싫고 그리고 웬지 모르게 내 성관계에 대해서, 나 이 사람이랑 연애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나 이 사람하고 잤어 라고 얘기하는 게 땀땀하지 않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섹스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섹스만 해야 하는 그런 공간에서 있어야 하는 게 싫었어 스트레스를 받았어 (사례 D)

실화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이처럼 결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거를 함께 언급했다. 일반적인 추세로 보아도 젊은 세대의 동거에 대한 생각은 매우 호의적⁷³⁾이다. 연애를 경험하면서 관계맺음과 감정 훈련의 기회를 가지는 젊은 세대들이 가지는 사적 인간관계의 삶의 양식에 대한 욕망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과 일상을 함께 하며 안정적인 성적 실천이 가능한 환경의 마련이다. 일단 이러한 욕망을 가지게 된 젊은 여성들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될 때 욕망을 현실에서 실천해 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을 떠나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사례들은 상대방도 같은 조건일 경우 동거를 하고 있었다(사례 L, K) 자신만 다른 지역에서 온 경우는 일주일에 3, 4일을 함께 지내는 준동거 상태였으며(사례 E) 외국에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사례 J는 1년 동안 동거를 해 보기로 계획을 세우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다⁷⁴⁾ 또한 비슷한 조건의 친구들이 동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례들(사례 B, C)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례 K는 연애와 성관계의 진도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진술한다. 또한 행위에 급급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협상할 수 있는 조건도 보다 양호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례 K는 동거는커녕 결혼 전 성관계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형적인 여성 성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성장했지만 연애와 연애 관계에서의 성경험, 동거도 가능한 환경에서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미혼 여성의 성적 실천을 부정하는 현실에서 동거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동거는 삶의 양식으로서 추구될 수 있는 것이기보다 되도록 알려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그것은 떼뻗한 일이기보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예외적인 상황이다

73) 최근에는 결혼 전의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동거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그린 영화(<와니와 준하>)와 공중파 드라마(<옥탑방 고양이>)도 등장하였다. 이 드라마는 실제 동거를 했던 연인이 인터넷 상에 올린 경험담이 화제가 되어 소설로 출간되고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인터넷은 이처럼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연애와 성경험을 사회적인 대세로 공식화하는 강력한 매체로 떠올랐다. “동거가 닭살 커풀을 키웠죠.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 원작자 인터넷 소설가 김유리씨가 공개하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동거” 『한겨레21』 2003년 6월 26일자

74) 본 연구는 연구 설계시 동거하는 사례들을 고려에 넣고 선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사례들 중 동거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이제 미혼 남녀의 동거가 그리 낯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저는 굳이, 동거하는 거를 숨기고 싶진 않아요 왜 숨기는지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요?) 물론 숨겨야죠 (웃음) 저희 또래하고 부모님은 또 틀린 거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구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OO[남자친구 이름]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니까 참, 나 내년엔 전세 얻은 선배네 집에 들어갈지도 몰라, 이랬거든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래? 그럼 좋지 뭐 방세도 덜고 좋지 이러다가 무심코 이렇게 일하다가, 막 켜려보더니, 너 OO랑 살면 죽을 줄 알아 그러더라구요, 엄마가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어, 엄마는 날 뭘로 보고 그래 그랬는데, 사실이죠, 뭐 (사례 K)

미혼 여성의 성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는 성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모두 포함하는 생활의 의미보다 ‘결혼 전 남자와 잔다’는 성에 관련한 의미만이 과도하게 부각된다 두 사람이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어도 주위 사람들과 그 일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는 지속적인 삶의 양식이 되기가 어렵다 또한 미혼의 대학생들의 동거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거를 하든 하지 않든 아직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결혼까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여대생들에게 ‘독립’이란 말의 어감은 아직도 낯설게 느껴진다 ‘독립’은 부모와 갈등이 있는, 몇몇 문제적인 가정에서 주장되는 것이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부모로부터 등록금 및 용돈 일체, 해외 여행비나 어학 연수비를 받는 일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용돈 정도를 벌어서 쓰는 사례들(사례 A, J, P)은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에게도 결혼 이전에 독립을 할 수 있으리라는 의지와 계획은 발견되지 않았다. 예컨대 대학 입학 이후 필요한 모든 돈을 다 벌어서 썼다는 사례 J는 독립을 막연히 꿈꾸지만 집세가 너무 비싸서 구체적으로는 고민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례 J를 비롯해서 막연하나마 독립을 생각해 본 사례들이 꿈꾸는 독립 생활이 ‘텔레비전에서 본 그럴 듯한 원룸’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립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독립의 수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이 잡는’ 이들의 사고방식도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실천을 가르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직업을 통한 개인됨의 욕망, 소비적 주체로의 자기정체성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말 자체를 낮설어하고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인 의존을 당연시하는 개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감각은 소비 영역, 취업 준비 영역, 가족 영역에서 각각 다르게 분열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대학 와서 연애하고 동거하면서 독립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본 적 없어요?) 독립이요? 해 본 적 없는데 (그래요?) 대학 와서 돈 다 받아쓰고 (잠시 침묵) 집에서 떨어져서 살긴 했지만 그리고 연애도 하게 된 거고 근데 그걸 집이랑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거는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부모님도 그 친구 좋아하고 그러니까 별로 갈등 없고, 그런 식이었어요?) 예. (두 사람 미래 계획하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아요? 직업을 구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뭐 당연히, 당연히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항상 그 자리에 엄마 아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결혼한다 그래도 애가 막 내니까 (웃음)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혼했어도 가까이서 살고 싶고 이러니까 완전히 독립한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취직하고 이런 거는요?) 경제적으로 제가 일을 찾아서 번다고 해도 뭐 독립한다거나 그렇게는 딱히 뭐, 아직까지 막 독립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사례 L)

세대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부모와의 대화 단절을 말하는 진술이 경제적인 독립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뀐다. 부모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언제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다. 부모들 자신도 말 통하지 않는다면 무시하는 자식들을 돈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몇몇 사례들(사례 E, I, (다))이 ‘돈을 받지 않으면 서운해하기 때문에 받아준다’라고 진술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중산층 이상 특정 조건의 부모 자식은 서로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그것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연대 수단으로서 돈의 힘을 알고 있고 이를 적절하게 이용⁷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대학 4년 내내 취업 준비와 걱정으로 날을 채우고 취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며 사회적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75) 본 연구에서는 사례별로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사례 P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사례는 등록금 및 용돈을 모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서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례는 현재도 부모가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못 하며 결혼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의식은 강하지만 정작 ‘개인됨’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은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 표현 욕구와 자의식은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이러한 독립된 주체로서의 의식은 소비 영역에서 발견한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소비 영역에서 자아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자원을 뒷받침해 주는 가족에게서 독립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역설은 여기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들의 독립은 성인이 되거나 사회적 노동을 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연된다. 가족에게서 독립한 개인으로서 한 개인을 만나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결혼은 가족과 분리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여대생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의지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과 성, 연애가 개별적인 사건일 수 있음에 대한 간과는 집안 배경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기반으로 결혼을 수용하게 되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지금 상태가 결혼 생각도 해 볼 만큼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근데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는 게 너무 싫어요, 결혼에서 제일 싫은 게 제일 또 결혼이라는 게 매력적인 거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도 좋을 거 같은, 그런 남자친구와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좋은 거 같구 그리고 엄마가 된다는 건 그 중간이에요 엄마가 개를 싫어하세요 골치아프다고 (그럼 뭐 다른 좋은 데 선 보라든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씀까진 안 하시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뭐 어, 일단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는 음 마음씨 착하고 뭐 외모도 그럭저럭 좋은 인상에 학벌도 그 정도면 정말 되게 좋은 편이잖아요? 근데 좀 결정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좀 나중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될 지도 모르고, [남자친구 집안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부담이 될 요소들이 많은데 차라리 학벌이 좀 덜 되고 뭐 외모는 그냥 보기 싫지 않을 정도면 되고, 집안 부담이 없는 쪽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조건 따져보고 만나라 (음, 혹시나 다음에 연애할 때는 그 쪽 집안 조건 같은 것도 보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거 정말, 다른 결혼하신 고모들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가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와 내가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이 어떤 부몬가 그게 정말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아직은 많이 그렇죠) 일부분이 아니라 이건 진짜 그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구 경험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자긴 정말 되게 사귀는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하나 봐요) 네 그 친구는 지금 어차피 군대 가 있는 상태니까 아, 애랑은 절대 결혼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중간에 힘들어서 헤어지게 될 거 같아요 (사례 E)

면접 초반에 연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과 결혼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동반자와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진술했으며 자신을 통제하려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독립의 의지로서 연애 관계에서 가진 성경험을 의미화하기도 했던 사례 E가 구체적인 결혼에 대한 고민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상대방의 집안 형편을 따져야 하는 것은 경험 있는 부모와 친척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녀는 이제 부모를 만족시킬 만한 집안 형편과 학벌, 자신의 개인적인 동반자가 될 만한 스타일과 인성을 모두 갖춘 사람을 골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게 된다

생각해 보면은 엄마, 아빠 돈 같은 거, 결혼 자금이나 이런 거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의무감 같은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의무감이요?) 그니까 음, 내가 노후에 돈 많이 벌어서 뭐 사 드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내 스스로가 성공이나 결혼을 잘 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부모님이 또 원하시는 거니까 (사례 B)

현재의 연애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례 B는 돈을 벌 생각이 없는 남자친구에 대해 곤란함을 느낀다. 연애 관계로만 보았을 때는 상대방 남성이 함께 놀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아르바이트로 번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은 생각하면서 그는 남편감으로서 부모에게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의 마음에 드는 결혼이어야 결혼 자금도 얻어낼 수 있다 그녀는 연애가 아닌 결혼에서는 그 정도의 조건을 자신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결국 ‘부모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자기 정당화⁷⁶⁾를 하게 된다

여대생들의 결혼에 대한 분리된 사고와 전략은 사실 그들 자신에게는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들은 소비 문화의 이미지와 상품을 다루고 또래 친구들과 연애 관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지만 사

76) 박혜경(1993)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결혼할 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 것은 사실이며 그만큼 여성의 개인의 삶에 대한 바람과 감정이 배우자 결정에 중요한 몫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자기 결정 권한이 부모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독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한다 배우자 결정은 부모와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면 부모와 자식의 배우자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때 이 협상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결혼으로 연결된다

회적 노동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제적인 한 개인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못 한 조건에 놓여 있다 이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양면 전략은 바로 이런 분리된 개인적 조건을 통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혼과 결부된 성의 의미 변화

여대생들이 계급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서의 결혼의 의미를 수용한다는 것은 결혼에서의 성별적인 자원 거래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 때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남성의 경제적인 조건과 거래되는 여성의 처녀성이다 전술하였듯 여대생들은 연애 관계에서 이벤트와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성을 경험하면서 처녀성이 의미하는 여성의 성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몸의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개입을 통한 집안끼리의 만남과 이를 통한 물질 기반의 강화라는 결혼의 의미를 결국 수용하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적 조건과 교환되는 여성의 성의 의미는 이들의 혼전 성경험과 충돌하면서 모순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다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성경험을 가진 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다음에 다른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례 A)

이제 성경험을 가진 것 자체가 연애 관계를 끝낼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연애 기획의 이벤트로서 성을 경험함으로써 여성의 성에 부착된 도덕적이고 제도적인 의미를 탈각시키고 이를 자아를 규정하는 힘으로 설명하는 여대생들은 ‘단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관계와 나아가 결혼까지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지금의 연애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연애를 한다든가 안 하지는 않을 결혼을 할 때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고민스럽다 그래서 사례 A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나름대로 조건이 맞을 수 있다면 지금의 연애 상대와 결혼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연애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수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연애에서 경험한 성은 쾌락과 주체성으로

의미화되지만 그녀가 수용할 결혼에 있어서는 성이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취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 경험하는 성은 언제나 해방 혹은 피해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성의 성은 그 여성이 경험하는 관계의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험 혹은 자원이 된다. 이는 여대생들이 연애 관계에서 경험하는 성은 그 관계의 경계 안에서는 쾌락과 주체성으로 의미화되지만 경계를 벗어나서는 스스로에게 다른 의미로 전환되는 양상을 살펴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성경험은 처음이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산만했어요. 그니까 제 생각은 원래는 성은 어떤 기호같은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또 요새 와서 드는 생각은 내가 그렇게 편하게 보였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참 그게 괴로운 거 같아요. (사례 F)

사례 F는 연애 관계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기대 만땅’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성경험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관계를 포함해서 함께 일상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게 된 연애 관계의 맥락에서 그녀가 경험한 성은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된다. ‘자신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기호’와 같은 것이라는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으로의 의미에서 ‘편한 여자로 취급’이라는, 여성의 성에 관한 이중적인 담론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후자의 의미는 결국 여성의 성이 가부장적 이성애 결혼을 기준으로 그 내부의 신성한 성/외부의 더러운 성의 의미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전히 결혼을 기준으로 한 혼전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 부여는 여성들로 하여금 공식/비공식의 경계를 개인적인 전략을 통해 넘나들게 만든다. 즉 연애 관계에서의 성을 쾌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계급적인 기반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욕망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여대생들은 성에 관한 자기 해석에서 모순적이기 쉬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대생들이 연애 관계에서 경험했던 성을 그 관계의 경계 안에서 진술하는 방식과 경계 밖에서 진술하는 방식은 대체로 매우 상반된다. 여대생들은 연애에서는 자신이 통제하고 협상할 여지가 큰 인간관계를 경험하지만 그 이후의 지속적인 관계나 결혼은 연애 관계의 경험과는 큰 간극을 지닌 채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계의 경계들을 넘어갈 때마다 성은 관계의 맥락에서 다르게 의미화된다.

연애 관계에서 경험하는 주체성으로서의 성의 의미와 결혼에서 거래 자본이 되는 성의 의미의 충돌은 연애 관계에서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고 심각하게 결혼을 고려한 사례 D에게서 특히 잘 드러난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콘돔 사용하는 거 되게 싫어해 안 해, 거의 그래서 거의 체외수정을 하지 남자애들이 안 하는 거야 (그럼 여자애들이 그런 걸 강제 안 해?) 강제 못 해 요구하지 못 해. (왜 그런 거 같애?) 사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강제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자기는 왜 못했던 거 같애?) 글썄 (그것 땀에 헤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한 거야?) 그래, 그건 못 한 거 같애. 그렇게 못 했던 거 같고, 설마 했지 그게 임신이 될 거라곤 생각 못 했어 내가 얼마나 몸이 아파지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못 한 거야 그게 되게 맹점인데, 섹스의 환상과 섹스 이후의 생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못 한 거야. 그냥 섹스하는 건 좋고 환상적이고 재밌는 일인데 그 이후를 연결시키지 못 한 거지 사귀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경제력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미래랑 경제력, 그게 불씨가 된 거지 음, 가장 힘든 시련의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임신시키고, 낙태시키고, 이 여자가 분노해서 이 남자랑 헤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헤어지겠다는 얘기가 난 이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이거니까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했지 나한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 돼라 그래갖구 예를 들면 돈 벌어라, 돈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라. 그 다음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나한테 성실해라 두 가지 요구를 했던 거지. 받아 들였지.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다시 만났어 그 상태에서. 근데 있으면 답답한 거야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었거든? (사례 D)

사례 D는 연애 관계에서의 성경험에서 자신의 쾌락을 중시하고 비교적 평등한 협상이 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쾌락과 주체성으로 표현한 성경험의 의미는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면서 달라진다 주체적으로 함께 경험했던 성관계가 임신을 '시키고' 낙태를 '시킨'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피임 협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일단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피해의 물질성 때문에 그녀는 이를 인정하고 싫어하지 않아 한다.

그녀는 낙태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진술은 낙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결심하게 되자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그녀의 성은 ‘돈을 벌고 성실할 것’ 즉 남편감으로서의 경제적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 자원으로 의미화된다. 남자친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그녀의 성경험은 성폭력으로까지 의미화되고 있다 77)

이처럼 젊은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주체적이고 쾌락적인 성과 착취적이고 피해적인 성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남녀의 만남을 규정하는 연애라는 특정한 방식의 프로젝트가 그 경계 바깥의 관계를 규정하는 우리 사회의 도덕률을 다르게 바꾸어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위치지워지는 여성의 성의 맥락성이 이를 동시에 경험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분열적이고 모순적인 의미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B. 연애의 여성화

1. 남성과 여성의 차이 심화

여대생들은 연애 관계 내에서 자신의 개인성을 실현하고 정서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감을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소비 문화의 틀 속에서 개인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기획할 수 있고 결혼과의 연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계의 지속에서 관계의 과정을 고민하는 연애 경험은 여성의 삶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자신감과 힘을 주는 경험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본질적으로 이성과의 정서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과 관계맺음의 변화가 정서적인 관계 또한 다르게 파악하고,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목도되는 정서적 관계에 대한 열망은 스스로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애는 여성화(feminization)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연애 관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행복한 경험인 것은 아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과정에서 특

77) 젊은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경험하는 성의 폭력성이 모두 결혼과 관련된 모순적인 자기 해석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에서는 성을 포함하는 연애 관계와 계급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결혼을 동시에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젊은 여성들의 전략 속에서 성에 관한 자기 해석이 모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한 의미를 지니는 정서적 경험, 일종의 게임과 연행으로서의 연애 관계는 남성들에게는 일찍이 익숙한 것이었다. 결혼과 가족이 유일한 사회적 영역이 아니고 결혼을 통한 성통제가 존재를 규정하지 않았던 남성들에게는 결혼 이외 여성과의 정서적 관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들은 그러한 관계들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성을 확인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들의 개인성을 확인해 주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 대한 얹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관계로 연애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변화는 여성 자신 뿐 아니라 그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남성에게도 갈등과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든다. 남성들은 이제 여성들이 자신들의 개인성 실현을 위해 타자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관계 안에서 서로의 개인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깨달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들이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지식화의 중요한 기재인 문화적 자원과 텍스트들을 접하는 데 있어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이 글로벌화되어가는 대중 문화를 소비하면서 관계의 기술과 자아에 대한 배려로서의 성을 욕망하게 되는 데 반해 남성들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포르노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매체의 기술적인 발달은 포르노를 통한 여성 몸의 기술적 조작에 대한 탐닉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중 문화의 글로벌화와 매체의 기술적인 발달이 남녀에게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대한 이미지와 언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젊은 시절 오랜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군 입대 이전과 이후로 인생 계획과 이성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⁷⁸⁾ 장기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맺음의 방식에 대한 훈련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의 관계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여성화되고 있는 상황이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관계와 성적 욕망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78) 본 연구의 남대생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이성 관계, 인생 계획, 결혼 계획 등이 모두 군대 이전과 군대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였다. 한국 사회 남성들에 군대 경험은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일종의 기원 서사(origins of narrative)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의 정서적 관계는 여성들이 역할이 아니라 개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더욱 갈등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은 남녀의 이와 같은 격차가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다 첨예하게 보여주는 장이 되고 있다. 군대 경험을 통해 ‘사회적 남성’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권오분 2000; 김현영 2002) 성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는 경계들을 경험하지 않는 남성들은 여성들의 ‘변화’를 성경험 횟수의 증가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혼 전 성경험을 ‘허락’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결혼이라는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모순적인 여성상으로 표현된다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지고 그런 게 어떤 의미예요?) 섹스를 하는 게, 믿음을 주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식의 믿음이에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민감한 게 자기는 주는 입장이니깐 내가 이 남자를 확실히 믿을 수 없을 때는 솔직히 몸을 허락하기 힘들 거 같거든요 이 사람을 믿으니깐 몸을 허락한 거고, 그러니까 애가 정말 날 사랑하고 있는 가보다 라고 내가 느끼고 그러면 더 아껴주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될 믿는 거예요?) 글썄, 그 순간 그 남자가 책임을 진다는, 평생을 같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자기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모르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기 안 해 봤는데 (그런 애기는 안 해 봤어요?) 예 그래서 전 경험 있는 여자가 좋다는 게, 경험 없는 여자는 발목 잡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가 있었던 여자들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으니깐 알잖아요 (사례 (나))

사례 (나)는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자신을 그만큼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러한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여자친구가 실제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즉 여성들의 성에 관한 태도의 변화는 향유하되 여성과 개인적으로 맺는 관계를 두 사람 모두가 개인성을 실현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기 어려운 남성들은 결국 역할 수행으로서의 결혼을 수용하고 그를 통한 가부장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여성들의 성에 대한 태도 변화에 관한 남성들의 이 같은 해석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는 여성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킨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성관계는 결혼, 임신 그리고 가족에의 헌신과 연

결되어 있었고 그를 통해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조은·조주현·김은실 2002, 258) 그러나 다른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성을 향유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변화는 보다 전반적인 여성 삶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을 때 피해자적인 느낌을 가지기 쉬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직 부모에게서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선행되지 않은 여대생들은 계급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결혼의 의미를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복잡해진다 욕망의 주체는 되었으나 경제적 주체는 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성, 여성의 욕망을 관계 안에서 함께 고민하기보다 성경험 횟수의 증가로만 파악하는 남성 상대와 경험하는 성은 이들의 성에 대한 해석을 갈등적이고 모순적인 것으로 만든다

한편 성에 있어서의 남녀 갈등과 더불어 연애가 여성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성들의 강화된 자의식의 투영과 문화적 자원/텍스트들을 통한 연애의 지식화이다 이는 연애가 여성 자신이 개입하여 기획할 수 있고, 개인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으로 여겨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애 관계에서 여성들의 행위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이후 장기적인 인생 과정과 인간관계에서 자율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연애가 이들의 삶 전체와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애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 여성을 삶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지만 정서적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적인 삶의 조건은 여전히 큰 괴리를 안고 있다 여성,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가능성 앞에 놓여있는 듯 여겨지지만 한편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임금과 고용 조건상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로 편입되는 노동 시장(김현미 2000b)이다 게다가 성관계에 대한 환영 이외에는 남녀 역할 분담에 대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어려운 남성들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는 이들의 행위성이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로 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전략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대상자들의 진술은 연애 관계와 결혼을 현실적으로 분리시키면서 연애와 결혼이라는 관계에 따라 적당한 남성을 분류하는 것은 이들의 행위성의 향방을 고민하게 한다⁷⁹⁾ 즉 연애와 성과 결혼이 분리된 사건임을 알게 된

여성들의 지식화가 사적 존재로서의 여성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게 되기보다 각각의 영역을 부지런히 넘나들며 일종의 자기 성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행위성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 스스로를 사회적 존재로 위치시키면서 사적/정서적 관계 또한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내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가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삶과 남성들의 변화와 동반되지 않을 때 다시금 개별 남성과의 개인적 관계만이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관계로 여성들에게 남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2. 여성들간의 차이 심화

공적 영역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의 강화된 자의식과 기획력을 반영하는 ‘연애의 여성화’ 현상은 남성과 여성 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체험되지 않는다 본 연구 연구대상자인 여대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20대, 4년제 대학 재학, 중산층의 집안 배경 등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애 관계와 관련한 문화 자원의 습득과 그것을 일상에 통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들이 스스로를 타인으로부터 차별화된 존재로 여기는 자아정체성의 차이화 기제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식화되는 연애 과정을 얼마나 잘 알고 실천에 임할 수 있는가, 연애에서 요구되는 여성성의 연행을 얼마나 잘 해 낼 수 있는가 여부는 ‘연애의 여성화’ 현상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우리 사회의 규범에 대하여 차별화된 또래 집단의 문화를 만드는데도 중요한 기제가 된다 세대, 학벌, 계급 등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기제와 더불어 문화 자원의 습득과 문화적 경험⁸⁰⁾이 여성들이 스스로를 다른 존재로 설명하고 인식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무역기구

79) 최근 젊은 여성들의 연애담을 그리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옥탑방 고양이>, <싱글즈> 와 같은 영화나 드라마들은 꿈꾸던 것과는 거리가 먼 힘든 직장 일과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남자친구와의 연애, 모델 없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한편의 기대를 재현한다

80) 문화 자원의 습득과 문화적 경험은 계급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 때 문화 자원과 문화적 경험은 경제적 자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르디외(1995)는 맑스의 자본 개념을 확장시켜 경쟁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자본으로 개념화한다 이에 따르면 문화 자원과 문화적 경험은 문화 자본(culture capital)의 형태로서 특정한 사회적 장을 지배하는 특수한 이해 관계에서 경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문화 자본과 계급 재생산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로는 조은(2002)을 참조할 것

(WTO) 가입, 본격적인 소비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 등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사회 여성들은 욕망의 이미지와 소비 상품의 유통이 일상화되는 소비 사회에서 이것의 의미와 쾌락의 생산/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세대/여성의 틀로 자신들을 엮매고 있는 지역의 협소함을 벗어나고자 시도한다. 즉 한국 여성들의 인식틀과 의미 체계는 더 이상 국가 내로 고정되지 않고 세계화, 국지화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글로벌화되는 서구 문화에 노출되고 이를 해석/수용하는 경험을 통해 소비 문화의 이미지와 상품들, 글로벌 대중 텍스트를 실제적인 관계의 욕망과 기술로 가져오는 젊은 여성들은 연애와 성, 결혼이 분리될 수 있는 사건임을 알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로서의 남녀관계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남성과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여자'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이를 잘 연출해내는 자아에 대한 자신감과 남성 또한 스타일화된 남성성의 연행을 잘 해 낼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욕망하는 행위성을 발전시켜나간다. 이들이 일종의 프로젝트로 경험하는 정서적 관계에서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르시즘적인 동시에 스스로 기획해야 하는 자아정체성이다.

반면 연애가 대중적이고 표준화된 지식이 되어가면서 여러 문화적 경로를 통해 이를 습득하고는 있지만 이성애 연애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인 여성성의 연행에 성공적으로 접합시키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 관계의 기술과 사회적 관계로서의 남녀관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정서적 합일과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열망을 고수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정서적 관계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여전히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상형이, 나는 내가 하나도 눈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눈은 높은 게 아닌데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소개팅을 하면 뭐 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인데 그래요?) 다른 건 다 상관없고 저랑 취미생활만 같으면 되거든요. 음악적인 취미가 맞고 생각하는 방향이 같으면 되요. 정신세계가 저랑 맞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느껴져요?) 예 (왜요?) 못 봤어요 (자기가 본 남자들은 어땠는데?) 남자들은, 너무 뻥한 거 같아요. 보고 있으면 유치한 것도 정말 많고, 아무 것도 아닌데 괜히 권위적인 사람도 많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구요, 일단 음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유치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날 무시하는 거죠 (사례 M)

본 연구에서 연애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사례 M의 진술과 비슷하게 ‘동일한 취미를 공유하고 세계관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정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열망을 진술했다. 연애 경험이 없는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난 데 있지 관계 자체를 거부하거나 순진히 결혼에 대한 전략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성별 차이를 극대화한 남녀의 매력을 기반으로 한 이성애 연애 관계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연애 경험이 없는 이들이 이성애 연애 성립의 성별화된 조건을 간파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젊은 여성들은 연애 경험 여부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남성성의 변화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이 관계를 맺는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성의 변화가 ‘여자’가 되는 연행을 잘 해 내는 것일 때 이를 해 내는가의 여부가 결국 관계의 가능성을 결정짓게 된다 자신이 ‘여자’가 되지 않는 방식의 다른 관계에 대한 열망을 있지만 그럴 수 있기 위한 관계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상대방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계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연출하고 그러한 연출에 따라 확장되는 자아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연행력이 증가하는 데에는 여성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삶의 비전을 표현하는 언어에서 페미니즘을 끌어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 연행은 결국 페미니즘의 성찰보다 소비 문화의 언어와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의 정치보다 페미니즘의 이미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소비 문화는 여성들이 ‘스스로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여자’ 연행을 추구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영향은 있지만 페미니즘이 강하게 개입하기 어려운 소비 문화가 제공하는 성 해방과 관계의 다양성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과 누릴 수 없는 집단 사이에 차별적인 지점을 만들어낸다. 우선 소비 문화의 이상인 젊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여자’ 연행에 필요한 요소를 구매/통합시킬 수 있는 여성들에게 성과 관계는 자신의 권력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 한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연애 관계와 성의 추구는 도달해야 할 여성성의 수준을 상승시키고 전통적인 남녀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남성의 보호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81)

81)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관계의 지속과 남성의 보호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남녀 평등이 이미 선택되었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담론적 권력은 자유로운 연애 관계와 성 해방으로 혜택을 받는 집단에 대해서 성별 권력 관계를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재현을 한다 또한 이를 ‘한국 사회 모든 여성’의 권력이 증대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여성들간의 다른 경험과 다른 자아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들이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세대와 비슷한 계급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도 문화적 자원과 경험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여성 정체성으로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들의 강화되는 자의식과 증가하는 기획력의 반영인 ‘연애의 여성화’ 현상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들 사이에서의 경험의 다름을 심화시키는 문화적인 기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들의 경험의 다름과 그에 따른 차별화 기제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다양해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VI. 결론 및 종합논의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개인성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정서적 영역으로 부상한 연애 경험을 통하여 젊은 여성들이 형성해 가고 있는 새로운 여성 주체성의 내용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경로가 불확실해지는 후기 근대라는 시대적 조건 하에서 대학은 더 이상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공간이 아니다. 대학생들은 더 이상 대학이라는 공간에 한정된 엘리트적 집합 주체로 호명되지 않는다. 삶의 경로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늘어나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감각 속에서 이들은 일상과 관계맺음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매순간 고민해야 하는 일상과 관계맺음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특정한 방식의 의미로 재전유하는 프로젝트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되는 일상과 개개의 장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자아로 구성된 다중적 주체성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일상과 관계맺음의 방식이 재구성되고 있는 변화의 시기는 교육과 취업을 통한 자기 성취를 당연시하는 여대생들에게 삶에서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여대생들의 미래 계획은 더 이상 결혼과 가족만이 전부는 아니며, 결혼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결혼 이전에 취업할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노동은 자신의 능력 발휘와 존재 입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들을 둘러싼 이 같은 사회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들의 일상은 더 이상 가족, 학교, 국가 등 기존의 사회화 집단을 통해서만 규정되지 않는다. 여대생들은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일상을 또래 친구들, 놀이, 대중 문화, 연애를 통해 채우게 된다. 이 때 이들은 일상의 한 부분이 된 글로벌 소비 대중 매체와 또래 집단을 통하여 연애를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기보다 관계 자체를 위한 의식적인 계획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성을 과정의 일부로 포함하는, 일종의 프로젝트로서 인식하게 된다.

둘째, 연애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연애는 소비 문화적 틀 속에서 프로젝트적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된다. 소비 문화는 연애를 세분화된 단계와 과정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의 연속으로 만든다. 이 때 연애는 로맨스를 매뉴얼로 하여 계획되고 연출되는 연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제 연애에서 요구되는 성별성은 로맨스 매뉴얼을 유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식적으로 연출된다. 연애 관계에서 매력적인 남성성의 조건으로 외모와 스타일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연애

관계에서 특정 코드를 유희할 수 있는 남성성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연애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자아를 연출하는 것으로서 여성성을 연기하면서 이를 통해 자아를 발견/확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연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벤트로서 경험되는 성은 여성들의 이러한 자아 인식을 강화한다 이제 혼전의 연애 관계에서 경험하는 성은 금기를 깬다는 죄의식보다 스스로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수치심의 맥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연애는 점점 더 자아에 대한 삶의 욕망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자신의 필요를 중심으로 계획되는 상대 남성을 통한 사회적 교류와 자원 획득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협상을 훈련시킨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여대생들은 남녀관계가 사회적 관계라는 지식을 얻고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험을 한다.

셋째, 연애 경험을 통한 자의식의 성장과 자신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교류와 자원 획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대생들은 이러한 관계의 지속으로서 동거를 욕망하고 조건이 가능할 때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도 한다 동거는 또래의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낯선 경험이 아니다. 그러나 결혼의 정상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동거는 지속적인 대안적 생활양식은 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 하고 있고, 결혼을 통해서만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대생들은 부모가 원하는 계급적 기반으로서의 결혼의 의미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의 맥락에서는 여성의 성이 남성의 경제적 자원과 교환되는 거래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연애 관계에서의 성경험을 통해 처녀성이 의미하는 여성의 성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몸의 경험은 결혼과 관련된 성의 의미와 충돌한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적 생활양식을 실험하기 어렵고 결혼 또한 다른 방식의 관계로 만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 관계에서 쾌락과 주체성으로 의미화된 경험은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 다르게 의미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정서적인 친밀 관계의 재구조화가 어떤 여성과 남성 주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러한 주체성 형성 양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개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이를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는 특정한 방식의 프로젝트로 만들고자 하는 현상은 관계맺음의 방식을 포함하여 스스로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 텍스트와 문화 자원의 재전유를 통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삶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관계를 욕망하는

데 반해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텍스트를 접하지 않고, 군대 이전과 이후의 삶을 다르게 생각하는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의 이와 같은 변화를 성역할 수행으로서의 연애와 성경험 횟수의 증가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애 관계에서의 남녀 갈등이 더욱 심화됨과 동시에 결혼을 둘러싼 여성들의 전략적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인 소비 문화는 여성들에게 성 해방과 관계맺음의 다양한 방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성들과 누리기 힘든 여성들 사이에 경험의 다름을 만들어낸다. 즉 여성의 삶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같은 세대와 비슷한 계급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도 연애 관계를 구성하는 문화적 자원과 경험의 일상 통합 여부에 따라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대생들이 경험하는 연애 관계의 변화 속에서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여성 주체성은 1990년대 이후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느끼는 자신감과 힘을 표현하면서 연애, 결혼, 성이 개별적인 사건임을 알아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페미니즘과 여성학의 본격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일상과 관계맺음을 기획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변화와 여성 삶의 과정의 변화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연애 관계를 프로젝트로 만드는 소비 문화의 논리,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별성과 자아 연출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기반으로서의 결혼을 포기하기 어려운 여대생들의 배경은 연애 경험을 통해 증대된 이들의 자의식과 행위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남성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한 여성들의 새로운 주체성 구성에 페미니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지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우선 한국 사회 남성성의 형성에 대해 구체적인 맥락을 드러내는 비판적 연구가 더 많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흔히 남녀간의 정서적 관계에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성별적인 차이를 극대화한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 사회 ‘연애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들의 변화 뿐 아니라 남성들의 변화하지 않음이 함께 맞물려 빚어지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젊은 남성들의 군대 경험과 변화의 시기 성별적으로 채택되는 문화 자원과 경험을 이러한 차이가 심화되는 이유로 살펴보았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

지 않는다 이는 남성들도 희생자임을 주장하면서 성별 권력 관계를 무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여성들의 전략과 행위성이 특정 사회의 성별 질서를 조직하는 논리 속에서 이해가능하다고 할 때 남성성의 형성에 대한 논의는 곧 여성성의 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남성과의 개인적 정서적 관계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삶의 변화와 여성 주체 구성에 대한 다른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경험의 다름은 정치적인 언명으로 존재해 온 성격이 강하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 사이의 경험의 다름을 만들어내는 권력의 축인 세대, 계급 외에도 문화 자원과 문화적인 경험은 이들의 정체성을 다르게 구성하고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는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이 때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이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권력 관계의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와 차이에 대한 새로운 의제 설정은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단지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위치한 여러 사회적인 장들의 이해 관계와 이들을 특정한 위치에 놓는 담론적 권력이 맺는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개별 여성들의 성찰적 행위성과 집단 여성의 힘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들의 높아지는 삶에 대한 기대와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실의 거리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페미니즘적인 전략은 어떠한 것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됨에 대한 욕망은 증가하지만 그 개인됨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 영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 때 여성들은 소비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새로움의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소비 문화가 여성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언어를 제공하면서 자아를 다르게 경험하고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전복성을 체험하게 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전 없는 성 해방과 진정성 없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변화는 집단 여성의 저항과 힘의 증가보다 개별 여성들의 개인적인 전략적 행위성만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여성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과 문화적 환경의 변화, 다양한 대안적 인간관계 및 생활양식의 창출과 함께 고민되어야만 ‘여성’이라는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권김현영. 2001 “시대의 무게를 벗고 일상의 정치에 나서다 -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 영 페미니스트” 『20세기 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 권오분 2000 “군대정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 - 남녀공학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소영 2002. “한국형 블록버스터에서의 동성사회적 판타지 · <텔미썸딩>과 <JSA>” 『여/성이론』, 6. 도서출판 여이연
- 김은실. 1996.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 비교문화적 논쟁” 『여성학 논집』,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_____ 2001a. “몸의 경험과 느낌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며.”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_____ 2001b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재현과 대중 문화”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_____ 2001c ““아들 낳기”와 여성 주체성”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_____ 2002.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성별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엮음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 김재인 외 2000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지영 2000. “대학 내 취업 지원 체계의 여성 배제 구조.”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지혜. 1997 “레즈비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서구 레즈비언 발전 과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현미 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여성학』, 13(2).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0a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16(1).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0b. “2000년 한국, 여성은 노동자가 될 수 없는가?” 『여성의 일 찾기, 세상 바꾸기』, 또 하나의 문화 15. 또 하나의 문화.

- _____ 2002. “2002년 월드컵의 ‘여성화’와 여성 ‘팬덤’” 『당대비평』, 20 삼인
- 김현영 2002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남승희 2001. 『나는 미소녀가 좋다』 해냄
- 달과 입술 1999.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 또 하나의 문화 동인 1991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1 『새로 쓴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6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 미메시스 1996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현실과 문화.
- 민가영. 2000. “10대 여성의 가출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정미 2002.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사례 분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혜경 1993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결혼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서동진 1996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문예마당.
- 신상숙 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13 (사)한국여성연구소.
- 엄기호. 1998 “無限之愛 - 연애라는 이야기를 굴리는 시지프스들.” 『두입술』, 창간준비호 연세대학교 두입술편집위원회(준)
- _____ 2002. “대학, 대중 문화 그리고 일상.” 조한혜정·양선영·서동진 엮음. 『왜 지금, 청소년? - 하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또 하나의 문화
- 엄연수 1997. “로맨스 문화를 통해 본 여고생의 성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연세대학교 두입술편집위원회 2000. 『두입술』, 4. 연세대학교 두입술편집위원회
- _____ 2002 『두입술』, 6. 연세대학교 두입술편집위원회.
- 이경미 1994 “성의 자율성과 순결 이데올로기 - 20대 여성의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숙경 1993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 - 낙태 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재경 2003 “가족의 변화와 미래, 그리고 페미니즘.” 『가족의 이름으로 -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 이화여자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2001 “우리들의 일그러진 연애” 『이화』, 63.
이화여자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 장수정. 1998. “20대 대졸 여성의 피임 경험을 통해 본 성적 주체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장(운)필화 1999.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되기” 『여성/몸/성』 또 하나의 문화
전인권. 2003 『남자의 탄생』 푸른숲.
- 정승화. 2002. “근대 남성 주체와 동성사회적 욕망 -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서사와 멜랑콜리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비교문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조은 2002. “문화 자본과 계급 재생산 . 계급별 일상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와 계급 - 부르디외와 한국 사회』 동문선.
- 조은·이정옥·조주현. 1997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은·조주현·김은실 2002 『성 해방과 성 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윤정 1996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조정아 1993 “대졸 사무직 여성의 노동과 좌절”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조주현. 2000 “한국여성학의 지식생산구조와 향방 『한국여성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6(2) 한국여성학회.
- 조준상·이은정. 1994.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가지않은 길
- 조형. 2002. “공사영역의 변화와 여성의 삶의 질.” 『지구화와 여성 시민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혜정 1994 “자본주의 사회의 성과 사랑.”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3』. 또 하나의 문화
- 조(한)혜정 1998a “남성 중심 공화국의 결혼 이야기 1 . 모권에서 아내권으로.”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8b. “청소년 성문화 성적 주체로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8c “불균형 ‘발전’ 속의 주체 형성 · 한국 근대화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 주은우 1994 “90년대 한국의 신세대와 소비 문화” 『경제와 사회』, 21. 한국산업사회학회

최원영 2003 “낙태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9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아카데미

한설아. 1998 “여성의 외모 관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다이어트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홍승희. 1999. “항공사 여승무원의 외모 중심 고용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 외국 문헌

Adams, M L 1997 *The Trouble with Normal : Post Youth and the Making of Heterosexual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Ahmed, S. et al 2000. "Introduction . thinking through feminism." Edited by Ahmed, S et al *Transformation : Thinking Through Feminism*. Routledge

보드리야르, J. 1991. 『소비의 사회 - 그 신화와 구조』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보부아르, S 1993. 『제 2의 성』 . 조홍식 옮김. 을유문화사.

부르디외, P. 1995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최종철 옮김 새물결.

백, U. 1997.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 홍성태 옮김 새물결.

백, U · 백-게른샤임, E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 · 권기돈 · 배은경 옮김 새물결

백-게른샤임, E 2000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 이재원 옮김. 새물결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Routledge.

카스타-로자, F. 2003 『연애, 그 유혹과 욕망의 사회사』 박규현 옮김 수수꽃다리

코르벵, A “내밀한 관계 또는 주고받는 즐거움.” 『사생활의 역사 4 - 프랑스 혁명부터 제 1차 세계대전까지』 전수연 옮김 새물결

Cronin, A. M 2000. "Consumerism and 'compulsory individuality' · women, will and potential" Edited by Ahmed, S. et al. *Transformation : Thinking Through Feminism*. Routledge.

D'Emilio, J 1983. *Sexual Politics, Sexual Communities . The Making of a*

Homosexual Minority in the United States, 1940-197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돈, M A 2001 “영화와 가면 놀이 여성 관객을 이론화하며”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남역 옮김 한울

Douglas, C. A 1990 *Love and Politics Radical Feminist and Lesbian Theories* Ism Press

Duncombe, J and Marsdon, D. 1996. "Whose Orgasm is this Anyway? 'Sex Work' in Long-term Heterosexual Couple Relationships." Edited by Weeks, J. and Holland, J. *Sexual Cultures · Communities, Value and Intimacy* Macmillan.

Ehrenreich, B. Hess, E and Jacobs, G 1986 *Re-Making Love . The Feminization of Sex*. Anchor Books.

에번스, S 1998 『자유를 위한 탄생 - 미국 여성의 역사』 조지형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펠스키, R. 1998.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 · 심진경 옮김 거름.

파이어스톤, S. 1983. 『성의 변증법』. 김예숙 옮김. 풀빛.

Fiske, J. 1989.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Unwin Hyman.

플라워즈, A. 2001. 『판타지 공장 - 내부자의 시각에서 본 폰섹스 산업』. 박범수 옮김 동문선

푸코, M. 1990 『성의 역사 : 삶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출판.

기든스, A 1995 『현대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 · 황정미 옮김 새물결

_____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옮김 새물결

그레이, J. 2002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김경숙 옮김. 친구미디어

호, J. 2001 “‘스페이스 소녀’로부터 ‘원조교제’로 - 대만 십대 소녀들의 성애화” 『연세여성연구』, 7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홀, S 1996 “미디어와 이데올로기”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임영호 옮김. 한나래

홉스봄, E. 1997. 『극단의 시대 · 20세기 역사』 이용우 옮김 까치.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lland, D. and Eisenhart, M 1990 *Educated in Rom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lland, J Ramazanoglu, C. and Thomson, R 1996 "In the same boat? The gendered (in)experience of first heterosexual" *Theorising heterosexuality telling it straight*. Edited by Richardson, D Open University Press.

하우그, F 1997 『마돈나의 이중적 의미』 박영옥 옮김. 인간사랑

Jackson, S 1996 "Heterosexuality and Feminist theory." *Theorising heterosexuality telling it straight*. Edited by Richardson, D Open University Press

Jackson, S and Scott, S 1996 "Sexual Skirmishes and Feminist Factions Twenty-Five Years of Debate on Women and Sexuality" *Feminism and Sexuality - A reader*. Edited by Jackson, S and Scott, S Edinburgh University Press

Katz, J N 1996 *the INVENTION of HeteroSEXUALITY* A Plume Book.

Koedt, A. 1996 "The Myth of the Vaginal Orgasm" *Feminism and Sexuality - A reader*. Edited by Jackson, S. and Scott, S Edinburgh University Press.

Laws, J L and Schwartz, P. 1977 *Sexual Scripts - The Social Construction of Female Sexualit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르페브르, H. 1990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세계일보.

레비, P 2000. 『뉴 테크놀러지와 문화 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김동윤 · 조준형 옮김 문예출판사

루이스, L · 코플랜드, D 2003. 『실용연애전서-남자용』 서현정 옮김 만물상자
_____. 2003. 『실용연애전서-여자용』. 서현정 옮김. 만물상자

Lury, C 1996 *Consumer Cul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마페졸리, M 1997. 『현대를 생각한다 - 이미지와 스타일의 시대』. 박재환 · 이상훈 옮김 문예출판사

모튼, A 2002 『Madonna, Sexual life』 유소영 옮김. 나무와 숲

네그리, A · 하트, M 2001 『제국』 윤수중 옮김 이학사.

페로, M 2002 "가족의 승리" 『사생활의 역사 4 - 프랑스 혁명부터 제 1차 세계대전까지』 전수연 옮김. 새물결

Raymond, J 1986 *A Passion for Friends · Towards a Philosophy of Female*

Affection. Beacon Press

Richardson, D 1996. "Heterosexuality and Social theory." *Theorising heterosexuality . telling it straight*. Edited by Richardson, D Open University Press

Robertson, R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Publications.

살스비, J 1985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규현 옮김 민음사

Sedgwick, E. K. 1985. *Between Men :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exu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Segal, L 1994. *Straight Sex - rethinking the politics of pleas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셜링, C 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 옮김. 나남출판

슬레지예프스키, E G. 1998. “전환점으로서의 프랑스 혁명.” 『여성의 역사 4, 상 프랑스 대혁명부터 제 1차 세계대전까지』 권기돈 · 정나원 옮김 새물결

타브리스, C 1999.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똑같지도 않은 이유』 히스테리아 옮김 또하나의 문화

유웬, S. 1996.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백지숙 옮김. 시각과 언어

웍스, J 1994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서동진 · 채규형 옮김. 현실문화연구

Wollstonecraft, M 1775.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Penguin Books.

야나부 아키라. 2003. 『번역어 성립 사정』 서혜영 옮김. 일빛

3. 신문, 잡지 및 방송 자료

일간지

“놀이공원, 호텔 밸런타인 데이 행사 풍성” 『세계일보』 2000년 2월 10일자.
www.kinds.or.kr.

“대졸실업 근본 대책 아쉽다.” 『국민일보』 . 2001년 12월 5일자

“백화점 밸런타인 데이 상혼 극성.” 『국민일보』 1992년 2월 10일자
www kinds or kr

“밸런타인 데이가 무엇이길래.” 『대한매일신문』 1993년 2월 13일자

“밸런타인 소동 왜 이러나.” 『국민일보』 1992년 2월 10일자 www kinds or.kr

“비용 적게 들고 편하다, 알뜰커플에 인기/신혼열차” 『세계일보』 1992년 3월 29일자 www.kinds.or.kr

“예물반지, 우리는 영원, 남녀 커플링 인기” 『경향신문』 . 1994년 3월 14일자. www.kinds.or.kr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고백” 『한국일보』 2000년 2월 10일자 www.kinds.or.kr

“청년실업 대책없나 ’ 『한국일보』 . 2001년 9월 5일자

주간지

“나 밝힌다! 어쨌래 여성 오르가슴 찾기 3인의 당당한 주장.” 『주간동아』 2002년 6월 20일자

“나쁜 여자 전성 시대!” 『한겨레21』 . 2003년 1월 30일자

“당당하게 살자 미혼모들 쿠데타-美 TV에 나타난 뉴라이프 스타일, 드라마·시트콤 등 싱글마더 변화된 시각 반영, 원해서 아이갖고 직업전선에 새 가치관 ‘눈길 팍’” 『우먼타임즈』 2003년 1월 10일자

“동거가 닭살 커플을 키웠죠.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 원작자 인터넷 소설가 김유리씨가 공개하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동거” 『한겨레21』 2003년 6월 26일자

“또 사랑이 온다, 어쨌란 말이나 .불륜은 없다, 다른 색깔의 사랑일 뿐, 최근 영화·드라마 등에서 욕망에 당당한 여성들” 『한겨레21』 . 2002년 5월 2일자.

“마음에 드는 것은 다 가진다 - 남자 선택해 길들이는 ‘나쁜 여자’들.” 『시사저널』 2002년 5월 2일자.

“봄은 ‘만남’의 계절 - 남녀 파트너 BEST & WORST” 『대학 내일』 2003년 4월 20일자

“사랑학 교과서 인터넷 게임.” 『시사저널』 . 2002년 6월 20일자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연애, 불확실성의 시대 사는 신세대 신흥 종교” 『시사저널』 . 2002년 6월 20일자

“섹스 말고 궁금한 건 없다? - <섹즉시공>과 <마들렌>의 건강한 청춘, 죄의식 없는 성숙한 남녀관계 다뤄.” 『한겨레21』 2003년 1월 2일자

“스타일 있는 남자가 좋아요, 긴급 설문으로 알아본 ‘달라진 결혼의 조건’, 남자는 능력있는 여자’에 반한다” 『한겨레21』 2003년 6월 12일자

‘여성이 느끼는 <섹스 앤 시티>, 그들처럼 윤택하게!’ 『한겨레21』 2002년 9월

12일자

“여성 취업 전쟁 - 학점·영어 성적 전부 좋은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녀차별 취업문 어찌하오리까.” 『우먼타임스』 2002년 11월 15일자

“여성 취업 전쟁 - 철새 여성 직장인의 비애” 『우먼타임스』 2002년 11월 22일자

“영화보다 재미있는 TV 외화 시리즈 - 집 밖에 왜 나가? 애들이 있는데!” 『Film 20』 . 2002년 10월 22일자

“핑크 콤플렉스를 극복하라” 『한겨레21』 2002년 8월 29일자

월간지

“global girl - my so-cool life.” 『Elle girl』 . 2003년 3월

방송 자료

“신인류의 사랑법” 『MBC 시사매거진 2580』 . 2003년 4월 6일 방영

4. 인터넷 자료

김창남. 1999 “O양 비디오 사건이 남긴 것.” www.kcaf.or.kr/zine/artspaper.

“당신도 청년실업자?” 『2002 Daum 기획 특집』 www.issue2.daum.net.

www.foxylove.net.

www.mogego.kr.

www.namrodang.com

ABSTRACT

A Study on Women's Experiences of 'Yeon-ae' as a Project and Women Subjectivities : With a Focus on Women University Students

Kim, Hyungyung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minist implication of women subjectivities that women have been making through 'Yeon-ae' experiences which have been generalized as an important field for individuality, especially focusing on women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It seems that women have been making the natural process of love/marriage/sexuality in a different way through expressing pride and power in 'Yeon-ae' experiences. This study is to consider feminist reexamination about this phenomenon.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ocial transformations and women's agency can be problemized in a feminist way.

Examining men and women differences and women's differences because of culture resources and cultural experiences in restructuring

intimate relationships through 'Yeon-ae' experiences,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women's agency will be directed and in which position feminism can participate in.

The main research technique used for this study is the depth-interview of women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been experiencing university culture and considering 'Yeon-ae', marriage and job. And as supplementary materials, this study referred men university students' 'Yeon-ae' experiences, women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in 1980's and the materials dealing with related issues in printing and visual medi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security of life and higher-educated women's growing opportunities under conditions of late modern age make women's 'Yeon-ae' experiences as not the natural process for marriage but the project which need to be planned and tried for the relationship and focused on process of the relationship. Popular culture of consumption which has been globalized and peer groups have become cultural apparatuses that supply specific languages and images for 'Yeon-ae' as a project. Second, women's desire for 'Yeon-ae' as a project is constructed more specifically in consumer culture, which makes 'Yeon-ae' as a process of events. Women are experiencing a kind of femininity performance based on romance scripts. Women desire maleness focused on appearance and style in this relationship. And they are experiencing enlargement of their own self-identity. Sexuality as a kind of an event in 'Yeon-ae' relationship can grow this self-identity. Third, in spite of this 'Yeon-ae' experiences, women university students accept the class-based marriage. They don't experience independence economically while they are students. They signify their sex experiences in a different way beyond a boundary of 'Yeon-ae' relationship. Fourth, because of differences of culture resources and cultural experiences which make desire and knowledge of the relationships, men and women's differences have become intense. And cultural apparatuses of

distinction among women also have become diversified

Women have been understanding that 'Yeon-ae', marriage and sexuality can be different cases through this kind of 'Yeon-ae' experiences. Yet direction of women's agency is a difficult problem because they can't give up the class-based marriage easily. Therefore, feminist position on this phenomenon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examining on making of Korean maleness in a more specific and contextual field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re essential to see women's agency in the relationship with men Second, new agenda for transformation of women's lives and construction of women subjectivities is needed. Third, feminist reflectvility and strategies on distance between women's growing desire of their own lives and reality which they should face are also essential.